



10

1983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3. 10호

(루게 432)



◆◆◆◆◆◆◆◆◆◆ 차 례 ◆◆◆◆◆◆◆◆◆◆

작가들은 당중앙위원회 제 6기 제 7차 전원회의결정 관철에 이바지하는

혁명적작품을 적극 창작하자!	4
수령님을 우리러, 당을 받들리 (외 1 편)	6
주체의 봉화	7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헌시	8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노래	9
고요	10
령혼과 육체	21
달이 뜨네	34
한평생을 바쳐	35
위대한 영상	36
새세대로동계급의 성격을 진실하게 그리자	37
당의 해발아래	41

해뜨는 아침에도 별돋는 저녁에도.....	42
천금의 무게를 가지고 힘있게 울리는 대사	43
당은 내 삶의 어머니	46
인민의 태양이 솟아오른 고향에서	47
은인들	50
나팔소리	61
방직일가	62
락원의 목소리	63
감격의 그날	64
아 들	72
압록강반에 서서	72
우리 당비서	73
해빛넘치는 이길에	74
발을 맞추자	75
이웃집	77
철길원 처녀	77
고성어머니	78
관문점	80

머리글

작가들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7차 전원회의결정 관철에 이바지하는 혁명적작품을 적극 창작하자!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지도밑에 소집되고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7차전원회의는 화학교지와 15억메터 천고지를 앞당겨점령하고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목표와 과업들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결정집행정형 총화와 철도 운수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였다.

당전원회의에서 15억메터의 천고지를 점령하고 인민들의 입는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당면일정에 올리고 토의한것은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뜻깊은 역사적사변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의 중요고지를 점령하는데서 또하나의 역사적대진군으로 된다.

화학교지와 15억메터 천고지를 점령하면 주체적인 화학섬유기지와 경공업토대가 더욱 튼튼히 마련됨으로써 인민들의 입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며 전반적물질문화생활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질것이다.

당전원회의결정은 인민들에게 더욱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시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크나큰 사랑의 구현이며 천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앞길을 밝혀준것으로서 우리 인민들에게 크나큰 고무와 보람찬 전망을 열어주며 그들을 새로운 로력적위훈과 영웅적투쟁으로 힘차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이미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쌓아놓았으며 이 땅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웠다. 이제 우리 인민이 경공업을 다시한번 추켜세워 15억메터의 천과 입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면 우리 나라는 더욱 살기 좋은 인민의 나라로 전변되고 인구 일인당 천생산에

서 세계적수준에 당당히 올라서게 될것이다.

우리 작가들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7차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한결같이 펼쳐나선 우리 근로자들을 형상한 문학작품들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창작할 새로운 전투적 임무가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하게 의거한 혁명적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습니다.》

우리 작가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문학작품을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작가들은 창작활동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작품에 민감하고 깊이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무엇보다먼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사랑과 은덕, 령도의 현명성을 최상의 높이에서 형상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이번 , 당전원회의결정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과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높은 예술적 경지에서 훌륭하게 그려내야 한다.

우리 문학은 아직 화학공업부문과 섬유공업부문 및 철도운수부문의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을 형상한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많이 내놓지 못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작가들은 언제나 당정책에 근거하여 문제를 제기하여야 할뿐 아니라 그것을 당정책에 맞게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대와 생활의 물음에 올바른 해답을 주는 좋은 작품을 내놓을수 있습니다.》

작가들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결정,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의도를 깊이 체득하고 작품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일찌기 우리 나라 력사에 없었던 15억메터의 천, 화학공업발전에서의 세기적변혁과 철도운수사업에서의 새로운 혁신은 이 부문 로동계급과 그와 련관된 모든 부문 근로자들의 영웅적투쟁, 로력적위훈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바치는 높은 충성심으로 일관된 그들의 생활, 그들의 사상의지를 떠나서 잘 형상할수 없다.

문학작품에는 생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상이 강조되어야하며 위대한 생활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자각한 근로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창조된다는 관점을 명백히 해야 하며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그리면서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성격을 깊이있게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전형을 옳바로 창조할수 있으며 기계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산 사람들을 진실하게 개성적으로 그려낼수 있다.

작가들은 작품에서 당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반기고 나아가는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투쟁속에서 태어나는 새시대의 주인공들인 80년대의 김혁, 차광수들의 형상, 당에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긍정적주인공의 전형적형상을 강조하는데 모를 박아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7차전원회의결정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정책적선이 뚜렷하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해냄으로써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

데서 제기되는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들을 제때에 들고나와 옳바른 예술적해답을 주어야 한다.

작가들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결정을 작품에 구현함에 있어서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하는 작품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을 강조하여야 하며 그것을 계급교양의 견지에서 풀어야 한다는 우리 당의 문예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높은 정치적안목을 가지고 당전원회의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보수주의와 소극성, 형식주의와 요령주의, 관료주의 등 온갖 낡고 진부한것을 극복해나가면서 새롭고 혁명적이고 아름답고 숭고하고 영웅적인것에 열렬히 공감하고 그것을 적극 지지하여야 하며 거기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되어가는 우리 시대의 긍정적주인공들의 전형을 그려내야 한다.

작가들은 현실주제작품 창작에서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서의 주체문학의 높은 요구에 맞게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형상을 창조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이룩하기 위하여, 보다 유족하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에 충성다하는 우리 로동계급의 영웅적이고 랑만적이고 아름답고 보람찬 생활화폭, 인간성격의 전형들을 창조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생활의 변두리에 서있을것이 아니라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7차전원회의결정 관철을 위한 로동계급의 힘찬 투쟁의 한복판에 뛰어들어가야 하며 그들의 생활과 사상감정을 취재만 할것이아니라 열렬히 공감하고 체험하여 단편적인 작품들을 기동적으로 창작하고 장중편소설들을 비롯한 큰 형식의 문학작품들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7차전원회의결정을 문학작품창작활동에서 잘 관철하여 80년대 주체형의 긍정적주인공들의 전형을 창조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은덕에 충성의 작품창작으로 보답하며 온 사회의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수령님을 우러러, 당을 받들리 외 1편

전초민

아직도 남아있으리
장백의 준령우엔
조국의 새봄을 안고온
투사들의 발자국 발자국
남아있으리 아직도
오가자의 들길우엔
한별을 우러러 사선을 헤치며 달려온
열혈청년들의 뜨거운 숨결

힘든 일을 할 때나
험한 일을 할 때나
그 길을 조용히 더듬어보나니

아, 수령님을 우러러 천만리
당을 받들어 천만리
얼마나 영광찬 혁명의 길을
산에 들에 수놓으며 달려왔던가
우리 인민

얼음보다도 차고
풀보다도 무정한 세월이었다
한사람 두사람...
망국에 우는 겨레를 찾아내시여
추우면 열을 주시고
어두우면 빛을 주시며
수령님은 인민을 투사로 키워주시고

허를 깨물며
단두대의 이슬이 될지언정
천고의 밀림속 무주고혼이 될지언정
그 사랑 그 믿음은 못잊어
인민은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위하며
피바다 불바다를 헤쳐왔다

수령님 주신 자주의 보검으로
제국주의 두 강적을 때려눕힌 조선
당이 준 예지로 천리를 내다보며
폐허를 차고일어나
공업화의 언덕을 넘어오기까지 반세기
오늘은 세계가 우러러보는
자주시대위 당당한 기수!

아, 노래를 부르면 끝이 있으랴

만세를 부르면 끝이 있으랴
이 영광이 존엄을 안겨주신
수령님과 당은
우리의 하늘!
우리의 태양!

자나 깨나
그 사랑 그 해빛을 머리우에 이고 살면서도
그 뜨거움
그 위대함 다는 모르나니
아마도 그것은 내 부신탄탄

그렇다, 목숨은 버려도
의리는 저버리지 못하는것
그때문에
꿈속을 가듯 락원의 거리를 지나가도
무심히 지날수 없고
충충 솟은 집 비단자리우에 누워서도
쉬이 잠들지 못하는게 아니라

그 사랑 그 은정에 다 보답하기엔
인간의 한생이 너무도 짧아
타고난 지혜 너무도 모자라
백년을 교대없이 일하고싶은 조국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품이여!

진정 그 품은
한번 안기면
삶도 죽음도 따로 없는
우리모두 영생하는 위대한 품
그 품속에서 우리는 보람도 시련도
한피줄. 하나의 운명으로 이어졌나니

자랑하노라 우리 사는 조국
우리 가는 길
수령님을 따라 인민이 가고
인민이 가는 길 당이 이끌어주며
폭풍도 격랑도 두렵없는
양양한 조선의 미래-

우리는 가리라 또다시
선렬들이 피로써 물려준
그 신념 그 의리를 백배해

수령님을 우러러 천만리!
당을 받들어 천만리!
조국의 통일과 공산주의미래를 향해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해

우리는 가리라 대를 이어 영원히

태양을 우러러 불타지 않는 심장
한걸음도 용납하지 않는
충성의 천만리를!
오직 당이 이끄는
주체의 한길로!

주체의 봉화

아. 봉화가 타오른다
맑고푸른 조국하늘
만리대공을 채우며
주체의 봉화가,

지구의 억만보석을 다 찾아
여기에 쌓아올렸는가
금빛을 뿌리며
은빛을 뿌리며
대동강 아름다운 기슭에
높이 솟은 주체사상탑!

구슬구슬 분수꽃 흘날리는
화강석 은반우에 서서
사람들 너무도 황홀하여
행복에 겨워
눈시울 적시며 바라보는
아, 위대한 저 해불!

광복의 천리길을 떠나
화전의 키낮은 초가밀에서
한점의 저 불꽃을 지피시려
우리 수령님 바치신 탐구와 사색
그 무엇을 놓고도 견줄수 없나니

그 불꽃 기발로 드시고
얼마나 준엄한 시대의 한복판을
우리 수령님 헤쳐오셨던가
피바다 불바다를 넘어
하늘마저 어깨에 실리는듯한
피로도 위험도 다 잊으시고

오직 하나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인류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장장 반세기를 혁명에 바쳐오신
아버이수령님!
아. 저 해불앞에서

제국주의시대는 해떨어진 바다
저 빛발 안고
자주의 봄은 대륙마다 찾아왔나니

위대하여라
인간의 존엄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을 한껏 꽃피워주는
주체사상이여!

다시는 없으리라
저 불길 누리에 타오르는 한
사람이 사람의 운명을 우롱하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불질하는
제국주의 전횡의 암흑시대는

천년이 흘러가고
반년세월 이끼로 덧쌓여도
변함없이 빛나리라
20세기의 상상봉에
우리 수령님, 밝혀주신
주체의 봉화는,

빛나리라
영생불멸의 주체의 기치
위대한 저 빛발은
밤이면 불야경
인민의 요람을 지켜주고
낮이면 혁명과 건설의 천만리길을
비치며 밝혀주며

아, 봉화가 타오른다
주체의 봉화가
맑고푸른 내 조국 하늘을 넘어
아득한 우주공간을
노을처럼 붉게붉게 물들이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헌시

주체위업의 계승자이시며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삼가 축하를 드립니다

나빌 아흐마드 무쓰라파

위대하도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당신은 빛나는 슬기와
천재적예지를 지니신 혁명의 영재
당신은 폭풍도 격랑도 뚫고헤치는 담력과
만능의 지략을 지니신 영명한 스승
인민들은 심장으로 노래불러라
친근하신 지도자동지의 이름을
인민들은 한마음 맡기고 살아라
자애로운 당신의 그 한품에

아 **김정일**동지
당신은 세기를 주름잡아
불멸의 업적 쌓으시는
속도전의 령수
당신은 창조와 건설의 영웅
당신은 우리 시대의 위인중의 위인!

찬란한 향도의 손길아래
꽃피는 거리와 마을
하늘을 떠이고 솟은 기념비들도
당신의 이름과 더불어 빛나고
인민은 당신을 한없이 우러르나니
울려퍼지는 저 노래소리에
새들도 즐거워 창공을 날으는가

세인을 놀래운 문학예술혁명도
당신께서 이룩하시되

당신의 위대한 령도아래
조선은 혁명가극의 조국으로 빛나올랐고
웃음소리 랑랑히 울려나는
저 눈부신 살림집들도
당신의 뜨거운 사랑속에서 솟아났어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당신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참다운 후계자
인민에게 희망을 주시고
인류의 래일까지 설계하시는
인민의 친근한 아버지
당신은 주체사상을 빛내이시고
더욱 찬란히 꽃피우시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령도자!

친애하는 당신의 향도를 따라
집들은 더 높이 일떠서고
조선은 더욱더 번영하리니
이 강산은 그 은덕 노래하고
온 세상은 그 위업 길이 칭송하리라
아 내 오늘 이 붓을 들어
친애하는 당신의 만수무강 삼가 빌며
흙모의 마음 한가득 담아
이 시를 지어 삼가 드리오니
기쁨에 넘치여라
행복하기 그지없어라

(필자는 애급 와어엘전람사 사장)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

헤르쭘 뻬페르

김정일 동지 그이는 새별

온갖 어둠을 뚫고 찬연히 빛나는 별

그 별빛 까르빠찌아를 넘어 두나이 찌싸강류역

까지

우리의 앞길 등대처럼 밝혀주어라

김정일 동지 그이는 인류의 천재

사상과 령도력을 겸비한 천재

그이의 붓끝에서 만능의 무기가 버러지고

그이의 손길따라 세기의 기적이 창조되여라

김정일 동지 그이는 붉은 기치

지배의 쇠사슬을 불사르는 투쟁의 기치

그 기치아래 뭉친 자주의 힘

온 세계에 붉은 노을 펼쳐가노라

불보다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 인민의 어버이

그이의 사랑속에 인생의 기쁜 꽃피가노라

김정일 동지 그이는 투쟁과 승리의 상징

청춘조선 통일조선 인류의 봄의 상징

온 세계에 자주위업 실현되는 날

인류는 그이를 지구의 영웅으로 추대하리라

진보의 투사들이여

그대들 모두 향도의 별을 위하여 위성이 되어

그이의 기치 높이 들라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심장으로 부르고 웨치라

김정일 동지 만세를

(필자는 마자르수리문헌 및 통보국영화

김정일 동지 그이는 어버이

촬영소 연출가)

고요

리종렬

1

해가 기울어져 골짜기는 이미 서늘한 산그늘속에 묻혔으나 길가의 강냉이잎들은 한낮의 해볕에 데쳐진듯 후줄근해진채로 까딱 움직이지 않는다. 만곡의 깊고 아늑한 골짜기에 풀벌레들의 야릇한 울음소리만 가득찼다.

집을 나선 천상수는 일생동안 굳어진 버릇대로 실눈을 짓고 아득한 하늘가에 잇닿은 험악한 산악들의 파도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휴- 내쉬고는 철도제모를 머리에 올려놓았다.

《여보 잠간...》

뒤에서 안해의 은근한 목소리가 들렸다.

천상수는 얼굴을 돌렸다. 머리가 파뿌리처럼 센 작달막한 안해가 곁으로 총총히 다가왔다. 젊음 마음으로 돌아치다가는 로친의 조글조글한 얼굴을 보고 제 나이가 가늠되어 자중해지기도 했던 그다.

안해는 두손을 모아붙여 그의 가슴앞으로 내밀었다. 주름살투성이의 두손바닥은 공로메달 하나씩을 떠받들고있다. 하나는 전쟁때에 받았고 다른 하나는 1차5개년계획이 끝나던 해에 받았는데 안해가 가보로서 의동밀에 깊이 간수해두었던것이다. 메달들의 술에는 진흙빛 녹이 내배였다.

《이걸 달고나가요.》

《뭐?...》

《받은 다음 언제 한번 달아본 일이 있어요. 마감날인데 오늘 안달문...》

《넌장...》

그는 안해의 손을 부드럽게 떠밀었다. 안해의 눈에 눈물이 부엌계 고인다.

천상수는 가슴이 허물어져내리는듯하여 안해를 외면하고 돌아섰다.

오늘 근무를 마치면 그가 30여년동안 역장으로 근무해온 만곡역은 폐쇄되고 그는 년로보장자로 되어 집에서 새끼나 꼬게 된다.

그는 다리땀이 탁 풀렸으나 전쟁때에 다쳐 약간씩 저는 원다리에 힘을 주어 의젓하게 걸으려고 애쓰며 달구지길에 나섰다. 근엄하면서도 고집스러운데가 있어보이는 그의 얼굴에 보일듯말듯 경련이 알고 땀방울이 맺혔다. 발을 옮길 때마다 길바닥에서 후끈한 먼지가 풀썩풀썩 일었다.

그는 약간씩 저는 다리때문에 내내 걸음새에 마음을 쓰며 이 길로 해서 역으로 나갔고 역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지난 30여년간 그는 이 길에서 많은 생각을 했었다. 그의 추억, 그의 희망, 그의 공상, 그의 기쁨과 고뇌는 모든 만곡역과 이어져있었다.

만곡역은 운산령을 굽이굽이 감돌아 치달아오른 철도선의 심심산중 간이역이다. 우의 역은 벽계역이고 아래역은 하산역인데 그 역들에는 역장과 운전지휘원, 전철수와 화물원에 꽃같은 출표원치녀까지 있는데다가 철길소대까지 붙어있어 격을 갖춘 번창한 도시역 부럽지 않았다. 그러나 간이역인 만곡역의 근무성원은 지난 39여년간 내내 늙은 내외만이 살고있는 천상수의 식솔처럼 단출하였다. 직원이 도합 얼마 되지 않는데다가 그나마 세교대에 풍기고나면 늘 역에는 한사람이 지켜앉아있기가 일쑤였다. 그래서 천상수는 역장이며 출표원이고 전철수에 화물원이기도 했다. 다른 역에 가볼 때마다 그가 제일 부러워한 것은 출표원이나 안내원치녀였다. 역의 다른 일은 몰라도 안내에서는 늙은이 냄새가 나는 자기 보다는 그런 처녀가 손님들앞에 나서야 제격이고 또 얼마나 살뜰하게 봉사할수 있으려싶어서였다. 만약 그런 처녀가 만곡역에 있다면 발벗고나서서 세상에서 으뜸가는 총각을 골라 중매서고 시집갈 때에는 비단이불도 해주고 친부모들 못지않게 눈물 흘리리라 공상도 했었다.

만곡역에는 하루 두번 아침녘과 저녁녘에 완행 열차가 서서 서너명의 손님을 내려놓고는 그만한 손님을 싣고 떠나갈뿐이고 다른 모든 열차들은 기적소리로 심심산중의 적막을 깨뜨리며 바람처럼 스쳐지나갔다. 역장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차가 들어올 때마다 신호기나 신호등을 들고 반겨 달려나갔다가 기차가 지나간 뒤의 회오리바람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우두커니 서있었다. 그 때마다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듯한 섭섭함과 노여운 감이 들었는데 일생동안 그 감정에 습관될수 없었다. 역의 존재는 나날이 미미해져갔고 역장의 생활은 한적하고 단조롭기 그지없었다. 철도출판사에서 찍어내는 열차운행표에 《만곡》이 빠지는 경우도 드문드문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작고 보잘나위 없는 나무라도 그루를 잘라보면 제나름의 년륜을 뚜렷이 간직하고있듯이 이 자그마한 간이역도 자기 《력사》와 귀중한 사연을 가지고있었다.

만곡역은 골짜기를 따라 15리쯤 올라가있는 림산마을 만곡리와 깊은 인연을 맺고있었다.

이 역은 해방직후 만곡에 큰 채벌장이 생겨 수백년 자란 아름드리 거목들을 찍어낼 때 그 운반을 위하여 생겨났었다. 그때 만곡의 원목들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실려나가 민주건설에 크게 이바지하여 이름을 떨치었다. 나무때문에 번창해진 만곡역의 구내에서는 낮에 밤을 이어 들이닥치는 차량들에 원목들을 싣는 일이 떠들썩하게 벌어졌고 찾아드는 사람도 많았다. 큰 기업소의 자재 일군들과 도와 중앙의 신문기자들도 찾아왔으며 예술단소편대와 함께 유명한 배우들도 찾아왔었다. 만곡의 벌목부들과 함께 만곡역의 철도일군들도 도일보와 중앙신문들에 사진이 버젓하게 실려 그 소문이 세상에 자자하게 퍼진 일도 있었다.

그 시절에는 림근의 하산역이며 벽계역은 만역의 기세에 눌러 빛이 없었다. 그때 하산역의 조역으로 있던 천상수는 늘 선망의 눈길로 만곡역을 쳐다보곤했다.

그의 생활에서는 그런 기세는 고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것 같았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다. 그것은 48년 여름 어느날이었다.

북행하던 특별열차가 하산역에 멎더니 김정숙 녀사께서 어리신 지도자동지께 물주전자를 들려가지고 홈에 내려서시었다. 그때 천상수는 한창 나이여서 축기가 여간 빠르기 않았던지라 녀사를 인차 알아보고 반겨달려가서 인사를 올렸다.

그날은 햇빛이 유난히 눈부신 날이었다.

녀사께서는 장군님께서 이 산간지대는 물맛으로 유명한 고장이라는데 어디 한모금 물맛이나 보고 지나가자고 하시여 내리셨다고 말씀하시며 근처에 샘이 없는가고 물으시었다.

천상수가 역 바로 뒤 바위쥔에서 샘물이 사시 장철 솟아나는데 물맛이 좋은데다가 이가 시릴 정도로 차다고 말씀드리자 녀사께서는 기뻐하시며 그를 따라 샘터로 가시었다.

샘터에 이르자 어리신 지도자동지께서는 자신이 물을 퍼담겠다고 하시었다. 천상수가 드린 쪽박을 쥐신 어리신 지도자동지께서는 허리를 굽히고 티가 없나 물속을 깐깐히 살펴보신 다음 물을 떠서 주전자에 정성스레 부어 넣으시었다.

떠나실 때 어리신 지도자동지께서는 기차결에서 천상수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었다. 그는 너무 황송하여 몸둘바를 몰랐다. 그리고 모처럼 역에 들린시 그에게 물만 들려보내는것이 안되어 역옆의 산자드락으로 달려가 수물속을 산양처럼 훌쩍훌쩍 뛰어다니며 색색의 메꽃들을 꺾었다. 열차는 벌써 역을 떠나기 시작하였다. 그는 열차를 쫓아 정신없이 달려가며 승강대에 서계시는

어리신 지도자동지의 가슴에 가득 메꽃들을 안겨드렸다.

그리고는 그만 발이 무엇에 걸쳐여 앞으로 힘껏 엎어졌다. 어리신 지도자동지께서는 너무 놀라 다급한 소리로 조역아저씨를 부르시었다. 그 소리에 벌떡 솟구쳐일어난 천상수는 다친데가 없다는것을 보여드리려고 모뎀발로 경충경충 뛰여 오르며 쾌활하게 웃어보였다. 그러자 어리신 지도자동지께서도 밝게 웃으시며 손을 저어주시었다. 어둡침침한 숲속에 언뜻 비쳐든 한가닥 햇빛같은 그 추억이 되살아오를 때면 천상수는 남모르는 미소를 머금곤했었는데 한해후 북행열차의 기관사가 김정숙녀사께서 서거하셨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때 천상수는 샘터에 나가앉아 홀로 눈물을 뿌렸다.

그후 천상수는 귀중한 추억이 깃든 샘물을 알뜰히 거두었다. 그리하여 새파란 이끼가 붙은 바위쥔에서 모래알들을 굴리며 풍풍 솟아나오는 샘물은 언제나 박우물안에 가득차서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돌면서 끝없는 이야기를 속삭여주는듯 하였다.

천상수는 전쟁직전에 만곡역 역장으로 조동되여 올라왔다.

그것은 채벌장이 먼곳으로 옮겨가고 만곡골안이 그지없이 호젓해진 때였다. 만곡리에는 두개의 조립작업반이 들어와있었다. 역의 손님이란 성미가 누긋한 조립공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이 산간벽지로 찾아오는 얼마 안되는 길손들뿐이었다. 그리하여 한때 들썩하던 만곡역은 한적한 간이역으로 되였다. 그러나 천상수는 역을 알뜰히 거두고역사뒤에 샘물도, 새로 파놓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이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왔다.

만곡역의 폐쇄문제는 전기와 연료를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예비를 적극 동원하면서 수송의 긴장성을 풀기 위한 사업이 힘차게 벌어진 때마다 제기되곤하였다. 만곡역은 《경제적효과성》이 없다는것으로 하여 늘 논의의 대상으로 되여왔는데 지난달에는 도소재지의 철도관리국에서 부국장이 직접 내려와 현지조해를 하였다.

부국장은 중책을 지닌 일군답게 몸이 실하고 의젓하게 틀쳐보이는 사람이였다.

철도제복상의우에 바람과 햇빛에 색이 바랜 작업복을 보기 좋게 걸친 그는 노상 밤을 때는 일군들에게서 흔히 볼수 있는것처럼 눈구석에 피가 젖고 말투에서 지나친 흥분이 느껴졌다. 그런데 머리카락은 무슨 기름을 발랐는지 반들반들 윤이 흐르고 체모를 벗었다 걸 때마다 향긋한 냄새를 풍겼다.

천상수를 더욱 불안케 한것은 그가 하산역장 오일범을 데리고 온것이였다. 하산역에 만곡역의

업무며 설비와 기재들을 넘겨주자는것이 분명하였다.

부국장은 이미 결심이 된듯이 천상수와는 별로 담화도 하지 않고 오일범을 데리고 역의 안팎을 돌아보며 설비와 비품들을 돌아보았다.

천상수는 역이 막혀 말도 변변히 하지 못하고 그들의 뒤만 따르다가 부국장이 앞뜰에 나서서 뒤집을 지고 구내를 돌아볼 때에야 큰마음을 먹고 곁으로 다가섰다. 그는 만곡에 두개의 조립작업반이 있고 인민학교 본교도 있으며 지질탐사대도 자주 드나드는데 역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삼사십리나 걸어나가야 기차를 타게 되겠으니 그 고생이 얼마나 막심하겠는가고 말하였다. 이때 공교롭게도 메새 한마리가 그들의 머리우에서 날아돌았는데 누구의 모자채양에서인가 비방울 떨어지는것같은 소리가 났다. 천상수는 미심쩍은 생각에 얼른 체모를 벗어보았다. 모자채양에서 허연 새똥이 흘렀다. 부국장은 그것을 흘깃 돌아보고는 외면을 했고 오일범은 쓴 입을 찡찡 다시었다. 그 새똥은 늙은 역장의 감정이며 의견을 홀연 고루하고 시대에 뒤떨어진것으로 만들어버리고 통털어 그의 존재전체를 고목과 비슷한 인상으로 흐려놓았다.

부국장은 이윽고 그에게로 돌아서며 이 산골에서 잔치집에나 찾아다니며 술대접을 받은 그런 세속적인 인정에 눈이 흐려져 국가사정도 몰라봐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 소리에 역이 막혀 천상수는 턱을 끌어들이며 신음소리를 삼켰다. 그가 만곡의 여러 잔치집에가서 앉아있은것은 사실이다. 만곡사람들은 한평생 자기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해온 간이역장을 가까운 친척처럼 여겨서 기쁜 일이 있거나 경사가 생기면 잊지 않고 끌어갔으며 인민학교 본교에서 무슨 모임이 있을 때도 의례히 그를 초대하여 주석단에 앉혔다. 그리고 구시대에 살아온 늙은이들은 만곡에 제복을 입은 사람은 혼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남달리 어렵게 대하며 각별히 존대하였다. 그런 축들은 잔치같은 자리에는 제복을 입은 사람을 상좌에 앉혀야 좌석이 점잖아진다고 생각하였었다. 이래서 끌려가고 저래서 끌려가다니니 여러잔치집에 가앉아있게 되었다. 그러나 술을 파하게 드는 일이 없었으며 철도대표의 격을 낮추지 않으려고 늘 마음을 써왔었다.

천상수는 노여움이 북받쳐 얼굴이 벌겋게 되었으나 입을 꼭 다물고있었다. 마지막 대접이 이런 것인가싶으면서 굳이 변명하고싶지 않았던것이 다.

역장실로 돌아와 비품목록을 한눈에 훑어본 부국장은 방안을 두루 살피보다가 코를 별름거리며 이게 무슨 냄새냐고 물었다. 천상수는 모기가 많아 밤마다 모기쑥을 태우는데 그 냄새가 빠지

지않았다고 하였다. 그러자 부국장은 올해 춘추가 얼마이나고 묻고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일어섰다.

부국장이 돌아간 다음 그는 불안한 가슴을 안고 며칠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며 소식을 기다렸다. 그러는데 관리국에 올라오라는 지시가 왔다.

천상수는 관리국에 올라가서 울머블면서라도 책임적인 일군들의 마음을 움직여 역을 없애지 못하게 하리라 마음을 먹었다. 그는 역을 유지해야 될 여러가지 문제들을 쇠꼬챙이처럼 날을 세워가지고 그것들을 어떤 역경속에서도 술술 엮어 내릴수 있도록 속으로 거듭거듭 외워보고는 늙은 안해의 바래움을 받으며 먼길을 떠났다. 수많은 간선과 지선들, 백여개의 역을 거느린 관리국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수송을 보장하느라고 숨가쁘게다가 새로 개발된 광산과 탄광지구들에 다섯개의 큰 역을 내오는 방대한 사업때문에 와짜 끊어번지고있었다. 웅장한 5층건물의 수십개의 방들은 전화기는 소리, 토론하는 소리들로 떠들썩했으며 복도와 층계들은 사람들로 붐비었다. 그런 분위기에 어리어리해진 산골간이역장은 어느 방으로 들어가야 좋을지 몰라 복도에서 서성거리다가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쳐 꾸중을 들은 일도 있었다. 붙잡고 하소연해보고싶었으나 어느 누구도 그에게 주의를 돌려주지 않았다.

젊은 시절의 친지 몇을 만났으나 그들 역시 무척 반가와는 하면서도 잠간 기다려달라 한마디 던지고는 경황없이 지나가버렸다.

만곡역장은 서글퍼졌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집을 떠날 때 쇠꼬챙이처럼 날을 세워가지고온 문제들이 물거품처럼 사그라지고 만곡역의 경우란 이 거창한 세계에서 모래알보다도 못한, 입에 올리기조차 쑥스러운 일로 여겨졌다. 그리하여 만곡에 내려왔던 서상만부국장이 그를 자기 방에 불러들여 역이 폐쇄되게 되었으니 내려가서 일체 설비와 비품들을 하산역에 인계하고 년로보장수속을 하라고 지시했을 때 인차 수궁되고말았다.

그러나 만곡에 내려오자 그 모래알은 다시 수백명 만곡사람들의 불편과 관련되는 문제로 커져서 그를 괴롭혔다. 천상수는 밤마다 신음소리를 삼키며 우에 올라가서 한마디 의견도 내비치지 못한 자기를 못난이 줄장부에 속매이라고 꾸짖으며 가슴을 쥐어뜯었다. 만곡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머저리역장때문에 한늬 고생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 지는듯 아파났다. ...

한생의 추억을 더듬으며 절음을 옮겨가던 천상수는 앞에서 웬 청년이 허리를 구부정하고 자기 걸음걸이를 눈여겨 살펴보자 우뚝 멈춰섰다. 지질탐사대복차림의 약삭바르게 생긴 젊은이다.

천상수는 본능적인 모욕감에 회곳회곳한 눈섭을 사납게 찌프리고 뻔뻔스러운 녀석을 쏘아보았

다. 한달전 만곡역에 내린 심십여명의 지질탐사대원들속에서 본듯한 얼굴이다.

《역장아바이시지요?》

《…………》

《한가지 물어볼게 있어 찾아왔는데… 우리 탐사대에서 며칠 옥신각신하다가 직접 물어보자고 찾아왔습니다. 역장아바이가 다리를 저는게 확실하지요?》

《내 허물이 님자네 탐사대에 무슨 상관인가. 영?》

《아, 아 그렇게 아니라 동맥을 찾자고 그러니까.》

《뭐?》

《우리 소대장이 십산마을에서 들었다는데… 역장아바이가 저 운산에 무슨 일로 올라갔다가 번개에 치워 다리를 상했다면서요? 그게 어디쯤입니까? 번개가 자주 내리치는데 동맥이 묻혀있을 수있어 그러니까.》

그의 다리는 전쟁때 시한탄을 치우다가 상한 것이었다.

천상수는 죄송스러움에 얼굴이 벌개진 청년옆을 스쳐지나갔다. 마감날에 이런 수모까지 당하니 노여움이 더욱 끓어올랐다.

2

전쟁때 폭격에 파괴되어 다시 지은 만곡역은 역장실과 대합실 두칸으로 된 자그마한 기와집이었다. 역의 기와지붕이며 하얀 회벽, 알뜰거리는

유리창문, 문손잡이 모든 구석구석에 천상수의 일생의 지성이 고스란히 깃들어있었다. 이제 역은 허물리우게 되고 그 자재들은 하산역장 오일범의 손아귀에 넘어가 무슨 창고같은것을 짓는데 쓰이게 될지 모른다.

이러한 생각을 하며 천상수가 대합실로 들어가니 서너명의 러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겨 인사를 하였다.

천상수는 뒤집을 지며 모두 어디로 가던 길손들인가고 물었다.

지질탐사대의 청년은 휴양소로 가는 길이고 림산마을의 새색시는 친정집으로 간다고 하였다. 오십고개는 넘어보이는 아낙네는 읍에 사는 아들이 생남을 했는데 손자를 안아보러 간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천상수는 역장실로 들어가 손님들에게 표를 팔아주고는 안내원이 되어 다시 대합실로 나왔다. 그는 서너명의 손님들을 가지런히 앉혀놓고 언제나와 같이 차에 오를 때 주의할 점들이며 차칸에서 손집을 어떻게 간수할것인가에 대하여 차근차근 일러주었다. 그러는데 이게 마감이구나 하는 생각에 문득 목이 베여 주먹으로 입을 막으며 헛

기침을 몇번 하고는 갈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여러분,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만곡역은 오늘로 일을 마감짓고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없어집니다. 손님들은 그리 알고 다음 여행때부터는 하산역을. 리용해주기 바랍니다. 먼길에 부디 시름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손님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래쳐 그를 쳐다보았다.

역장은 얼른 그들은 외면하여 개찰구로 나갔다.

그는 출찰가위로 술렁거리며 나오는 손님들의 차표를 하나하나 찍어준 다음 그들의 손집까지 흠으로 들어다주었다.

완행렬차가 들어오고 승강대문이 열렸을 때 림산마을의 아낙네는 역장아바이의 손을 꼭 잡고 만곡사람들 나들이에 불편이 없게 하려고 한뼘 수고하였는데 우리 마을에 와서 살자고 말했으며 새색시는 머리를 깊이 숙여 절하며 눈물이 글썽해졌다. 천상수에게는 아낙네의 말이며 새색시의 눈물이 어떤 표창보다도 크게 여겨져 은근한 위안으로 되었다.

렬차가 떠나자 천천히 역장실로 들어와 제모를 벗어 벽에 걸어놓고는 책상에 접어놓은 신문을 펼쳐들었다.

신문1면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부산간농촌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한 보도기사가 사진과 함께 한면 가득 실렸다.

천상수는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그러니 요전 새벽에 지나간 특별렬차에 수령님께서 타고계셨겠구만…)

그는 얼른 돋보기를 끼고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산간지대의 협동농장들을 친히 찾으시며 농사에서 적지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하여 가르치시며 이 지대에서는 옛날부터 소출이 좋은 감자를 심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일찌기 창성련석회에서 밝힌대로 산간지대의 농민들은 산을 잘 리용하여야 별방지대의 농민들 못지않게 살수 있다고 하시며 산에 과일나무, 잣나무, 뽕나무며 약초도 많이 심어 농민들의 현금수입을 늘여줘야 한다고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천상수는 흐려지는 안경알을 닦고는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사진속의 수령님께서서는 전이 넓은 농립모를 벗어 부채질을 하시며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길도 없는 숲속을 헤쳐나가고계시였다.

그는 가슴이 찢르르 저러들어 한숨을 내쉬었다.

(년세가 많으신 수령님께서 이런 험한 길을 걸으시다니… 원참, 창성련석회의가 있는지 언젠데 거기 사람들이 아직도 일을 쓰게 못하는 모양이

군. 이 사진을 보고 량심에 가책이 되지 않는 사람은 후레자식이지...)

문득 지난 30여년간 수령님께서 타신 특별렬차가 이 만곡역을 몇번이나 지나갔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 눈을 지그시 내려감았다. 그는 지난 30여년의 세월을 거슬러올라가며 그 수를 헤아려보았다.

특별렬차는 깊은 밤중에도 이른새벽에도 지나갔으며 눈보라치는 날에도 번개가 번쩍이고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엔 날에도 지나갔었다. 그 수를 도무지 가늠할수 없다.

천상수는 수령님의 로고를 생각하니 절로 눈굽이 저려나 손등으로 눈을 비비쳐거렸다. 그러는데 문득 48년도의 그날이 못견디게 그리워났다.

그는 밤으로 나가 비자루를 들고 앞뜰을 스택스적 쓸어나갔다. 별안간 역장실쪽에서 다급한 전화종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찼다.

(인제준비를 독촉하자는게군, 역을 없애는게 저리도 급할가...)

그는 화집에 흙으로 달려나가 역명판부터. 뿔아버리려고 그 밑기둥을 안아 마구 흔들어댔다. 어찌나 깊이 박아넣었는지 끄떡하지 않는다. 전화종소리는 계속 다급하게 울리며 그를 불렀다.

천상수는 하는수없이 땀을 흘리며 느릿느릿 걸어 들어가 송수화기를 들었다.

없어진 역은 왜 자꾸 찾는가싶어 목소리가 여느때없이 거칠어졌다.

《여보시오, 만곡이 웨다.》

수화구에서는 서상만부국장의 쟁쟁한 목소리가 울렸다.

《만곡이요? 만곡역이요? 역장동무요?》

《예-》

《만곡- 내 말이 들리오?》

《어서 말씀하시우다.》

《만곡- 당장 역구내와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놓소! 내 말을 알아듣겠소?》

천상수는 정신이 번쩍 들며 가슴이 활랑거렸다.

(특별렬차가 통과하게 되는 모양이구나!)

그가 알았다고 대답하고 밖으로 허둥지둥 달려나와 비자루를 드는데 또다시 전화종이 울렸다.

《만곡이요? 나 하산역장이요.》

수화구에서 오일범의 절절한 목소리가 울렸다.

《이자 부국장이 거기다두 전화를 했나?》

《그렇네.》

《벽계역에다두 했네, 그러니 틀림없어. 틀림없네. 만곡- 여보게 잘하라구!》

그 말에 가슴이 후더워졌다.

천상수는 역구내와 주변을 깨끗이 쓸고는 기차바람에 먼지가 일지 않도록 물을 뿌렸다. 그 다

음은 화단을 열린 정리하고 창문유리들을 닦고 역장실과 대합실을 말끔히 청소하였다.

이런 거둬질을 끝내니 어느덧 날이 어슬어슬 저물었다.

천상수는 역장실에 앉아 미흡한 점이 없는가 두루 궁리해보다가 철길로 나갔다. 그는 침목들을 밟으며 천천히 오르내리면서 자기가 한생을 바쳐온 간이역, 이제 밤이 지나면 영영 없어지게 될 그초소를 눈여겨 살펴보고 또 바라보았다.

차를 타고 지나가시는 수령님께서 만약에 역을 보아주신다면 그 인상이 어떨것이며 무엇이 선참 눈에 띄일것인가 하고 가늠해보는것이였다. 그는 몸을 뒤로 젖힐사하고 실눈을 짓고 바라보는가 하면 머리를 획 돌리며 한눈에 스쳐보기도 했다. 그러다가 역명판에 씌여진 《만곡》이라는 글자가 두드러지지 않는것을 발견하고는 그 글자둘레를 비누물로 극성스럽게 닦았다. 바람처럼 달려지나가는 차창에 만곡역이 비쳐드는 순간은 한 찰나겠지만 그 순간에나마 수령님께서 역을 보아주신다면 자기 한생이 더 보람찬것으로 되고 여한이 없을것 같았다.

그날밤 만곡역의 창문들과 좁다란 구내에는 여느때없이 전등불빛이 환했는데 그 불빛은 멀리에서도 바라보였다.

역장 천상수는 신호기와 신호등을 책상우에 가지런히 놓고 제모를 반듯하게 쓴채 전화기앞에 앉아있었다.

밤벌레들이 창유리에 날아와 부딪치는 소리가 이따금 들릴뿐 역사와 구내에는 경건한 정적이 짓들고있었다.

자정이 훨씬 지나 전화종소리가 귀따갑게 울렸다.

천상수는 후닥닥 뛰여일어나 송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구에서 울려오는 오일범의 엄숙한 목소리가 그의 가슴을 두드렸다.

《만곡! 만곡!》

《만곡 듣는다!》

《특별렬차 하산역 통과-》

《알았다...》

천상수는 목이 메여 가까스로 대답하였다.

그는 활랑거리는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송수화기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신호등을 들고 뛰노는 마음을 다잡으며 침착하게 걸어서 밖으로 나갔다.

3

렬차가 들어올 시간이 다가오자 천상수는 철길 옆에 곳곳이 서서 공연히 모자채양을 쥐었다놓는가 하면 옷깃을 더듬더듬 쓸어만져보면서 하산쪽만 바라보았다.

어느덧 저쪽 산굽이의 어둠속에서 백열로 이글거리는 불덩어리같은 빛이 달려나왔다. 달려오는 기관차의 전조등불빛이었다. 철길을 따라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점점 세차게 울려왔다. 가슴이 뛰노는 소리인지 땅이 울리는 소리인지 가늠 못할소리에 귀가 멍멍해진 그는 불시에 시간이 흘러나지나는것 같은 아찔한 느낌과 함께 눈부신 백광속에 들어 얼굴이 확확 달아올랐다. 어둠속에서 철길옆의 전주들이 언뜻언뜻 드러나는가싶더니 들이닥치던 렬차가. 꿈인지 생시인지 속도를 늦추며 서서히 미끄러져왔다. 천상수는 너무 놀라 강렬한 환성을 내지르고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으나 목이 꼭 메여 그러지도 못하고 신호등을 쳐드는것도 까마득히 잊은채 주춤주춤 뒤걸음질만 쳤다.

(이건 꿈이다. 꿈이야! 내가 꿈을 꾸는게다)

그러나 특별렬차는 분명히 역구내에 멎어섰다.

차바퀴밑에서 휩쓸어나오는 바람에 옷자락을 나뭇기며 허둥거리던 역장은 눈을 슴벅거리면서 준비하게 늘어진 차량들의 불빛 환한 차광들을 둘러보았다. 의심할바없이 특별렬차는 만곡역에 멎어선것이다.

이슬이 흐르는 차량들에서는 북부산간지대의 선기가 서늘하게 풍겨오는듯싶었다.

승강대의 문이 열리며 대여섯명의 사람들이 줄레줄레 내리고 뒤따라 회색양복을 단정하게 입은 젊은분이 땅에 내려서서 한손을 허리에 올리고 다심한 눈길로 역사며 주변의 우중충한 산발들을 둘러보시었다.

천상수는 그분을 알아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서 역장의 직분을 다하여야 되겠다는 조바심에 그는 거수경례를 서둘러 붙이고 정보로 척척 걸어나가 그이 앞에 섰다. 그는 남의 목소리같은 우렁찬 소리로 보고를 올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만곡역은 근무중...》

그이의 옆에 선 수원이 입술에 손가락을 세워 붙이며 속삭였다.

《아바이, 쉿 조용히...》

천상수는 거수경례를 붙인 손을 내리지도 못하고 어정쩡해 서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에게로 다가오시어 스스럼없이 손을 잡아 내려주시었다.

《역장동무입니까?》

《오텔, 만곡역장 천상수입니다.》

그는 벽찬 감격에 가슴이 터져나가는듯하였다.

《의논할 문제가 있는데 어디 좀 들어갑시다.》

《의논할 문제라는 그 말씀에 늙은 역장은 더욱 놀랍고 황송하여 눈을 빛내이며 그이만을 쳐다보았다.

《.....》

《좀 도움을 받을 일이 생겨 그러합니다.》

천상수는 그이를 모시기에는 역이 너무 초라하고 루추하여 두손을 앞에 모아쥐며 어쩔바를 모르고 망설이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후 역장실에 들어온 그이께서는 철이 벗겨진 흰 의자에 허물없이 앉으시었다. 천상수는 벽에 붙여놓은 긴 결상 한끝에 조심스럽게 앉아 옷깃을 여미였다. 그는 처음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혹시 이 늙은 역장을 알아보시지 않을가 하여 여간 마음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지나간 30년은 그의 용모를 알아보기 어렵게 변화시키고 남을만한 긴 세월이었다. 더우기 그이께야 얼핏 만나본 한 조역이 무슨 기억에 남을만한 존재겠는가.

천상수에게는 그것이 다행이었다. 이 자그마한 간이역에서 맴돌며 크게 해놓은 일도 없이 한생을 다 보내고 물러가게 된 자신을 드러내보이기 부끄러워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무슨 한가지 생각에만 골몰하시며 근심어린 얼굴로 물으시었다.

《이제 통과하는 차들이 많습니까?》

《예...》

《차들이 기적소리를 자주 울립니까?》

《예, 저 아래하구 우쪽의 산굽이를 돌 때 모든 렬차들이 기적소리를 길게 내게 돼있습니다.》

《그 소리가 여기까지 크게 들려옵니까?》

《들려오다마다요. 여기 골짜기들은 나팔통이나 다름없습니다. 저 산굽이에서 기적이 울리면 그 소리가 모든 골짜기들에 메아리치는데 정말 굉장합니다. 그 울림에 산에서 바위가 굴러내린 일도 있습니다.》

그이의 눈가에 보일듯말듯 그늘이 비졌다.

《그렇습니까... 역장동무, 렬차들이 기적소리를 내지 않고 지나가도록 해줄수 없겠습니까?》

《기적소리말입니까.》 하고 천상수는 의아한 눈으로 그이를 쳐다보았다.

《예... 기적소리가 크게 울려오면 안되겠습니다. 저 렬차안에서 지금 수령님께서 주무시고계십니다. 이번 현지지도에서 몹시... 몹시 피로하셨습니다.》

순간 천상수에게는 낮에 신문에서 본 수령님의 형상이 떠올랐다. 전이 넓은 농립모로 부채질을 하시며 산비탈밭으로도 수없이 오르내리시고 험한 산길도 끝없이 걸으셨겠으니 년세가 많으신 수령님께서 얼마나 지치시였을까...

그는 가슴이 저려났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시고는 말씀을 이으시었다.

《돌아오시는 길에도 산간지대 농민들의 생활때문에 내내 걱정하시며 렬차집무실에서 일을 보셨는데 방금 잠이 드셨습니다. 도중역들은 다 복잡한 역들이고 여기가 제일 한적한곳이라고 해서

차를 세웠습니다. 이제 평양에 나가면 또 방대한 사업이 수령님 앞에 쌓여집니다. 여기서 잠시라도 폭 쉬시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러자면 고요해야됩니다.》

그이의 절절한 음성은 늙은 역장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고요해야 된다고요. 아무렴 그렇지요. 지도자 동지, 걱정 마십시오.》

천상수는 얼른 일어나 전화로 벽계역과 하산역을 찾아 이제부터 통과하는 모든 열차들이 기적을 울리지 말도록 일러달라고 당부하였다. 벽계역은 그의 말뜻을 인차 깨닫고 알았다고만 짚막하게 대답하였으나 호기심이 많은데다가 성미가 검질긴 류다른 피짜, 하산역장 오일범은 곤끈지게 캐어물었다.

《여보게 만곡, 이게 웬일이야? 밀려난다더니 하산에 지시까지 하니 자네 관리국장이라도 된셈인가, 툭 터놓게, 무슨 일인가 영? 이웃사촌이라는데 만곡과 하산이야 그럴 처진가.》

그는 오일범의 이런 너스레가 아무리 모르고 하는 소행일지라도 무엄한짓으로 여겨져 울컥해졌다.

《오일범 동무, 이젠 내 지시가 아니란말이요!》

그러자 저쪽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다. 몇순간 뒤에 불같은 말이 날아왔다.

《천상수 동무, 잘하오. 동무는 오늘밤 우리 철도로동계급을 대표하고있다는걸 명심해야 되오!》

천상수는 송수화기를 놓지 못하고 얼굴이 벌개져 한동안 서있었다. 이윽고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돌아보며 어쭙게 말씀드렸다.

《하산역장은 젊어서부터 제 막역한 친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고 그이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었다.

역장은 역구내에 환한 외등불빛이 차안에 흘러들면 수령님께서 주무시는데 방해되지 않을가 싶어 벽에 붙어있는 외등스위치에 손을 가져가며 외등을 끄는게 어떻겠는가고 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처음에는 끄라고 하셨다가 다시 생각해보시고는 켜두는게 더 좋겠다고 하시었다.

《차창에 차광막을 치면 불빛은 흘러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수령님께서 잠을 깨셨다가 역구내가 캄캄한것을 보시면 순간이나마 걱정을 하실수있지 않겠습니까.》

수령님께 티끌만한 걱정도 끼쳐드리지 않으시려는 그이의 실정에 천상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어디선가 모기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역장은 그이께서 어서 특별열차로 올라가시었으면 하고 바

랐으나 그냥 앉아계시면서 방안을 두루 살펴보시었다.

그이께서는 공기속에서 무슨 냄새를 맡아보신듯 문득 이렇게 물으시었다.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천상수는 언제인가 부국장에게 무안을 당한 그 냄새이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쳐 얼굴이 화끈거렸다.

《여기는 앉아계실데가 못됩니다.》

그는 죄송스러워 허리를 굽석 꺾으며 말씀드렸다.

《저... 제가 모기를 쫓느라구 장창 모기쑥를 태웠더니 그 냄새가 벽에 배서...》

《모기불냄새요?》 하고 되물으시는 그이의 얼굴에 놀랍게도 그 무슨 감회와 기쁨의 빛이 어렸다.

《예...》

《참 오래간만입니다. 우리 어머님도 그전에 여름밤이면 모기를 쫓느라구 정원에 모기불을 자주 피우곤했습니다. 만경대고향집에 찾아가도 늘 이런 냄새가 풍겼습니다》 여름밤이면 증조할아버님이 마당가에 모기불을 피워놓고 퇴마루에 앉아 새끼를 꼬시며 나한테 많은 옛말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는 만경대집에서 그 냄새마저 다 가져갔습니다. 참 세월이 많이 흘렀지요...》

천상수는 웬일인지 가슴이 찌르르 저러들며 목구멍으로 뜨거운것이 북받쳐올랐다. 그는 그것을 삼키느라구 두툼한 입술을 꼭 다물며 눈을 지그시 내리감았다. 그의 목에 도트라진 울대뼈가 오르내리며 무엇인가 넘어가는 소리가 났다.

어느덧 벽계역쪽에서 화물열차가 내려올 시간이 되었다. 늙은 역장은 전화를 걸어놓았건만 안심치않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말씀드리고는 얼른 신호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외등불빛이 환한 역구내에 길게 늘어선 특별열차는 아늑한 고요에 묻혀있었다. 그는 흰 휘장이 목직이 드리운 차장들을 얼핏얼핏 훑쳐보며 말소리를 죽여가면서 걸음을 다그치다가 역구내를 벗어나자 마음놓고 달려올라갔다. 숨이 턱에 닿아 기적신호표가 붙어있는데까지 온 그는 저도모를 젊은 힘이 뻗쳐올라 산굽이 앞코승이로 밤새처럼 홀 날아올라갔다.

이윽고 달려내려오는 전기기관차의 전조등불빛이 산굽이를 휩쓸었다. 그는 눈이 시여 한손을 얼굴앞에 들어올리고 신호등을 번쩍 쳐들어 흔들었다. 기관사는 산굽이 앞코승이에 서있는것이 고목이 아니라 사람이며 만곡역장이라는것을 인차 알아본듯하였다. 열차는 기적소리를 울리지 않았을뿐아니라 이뿌리까지 저려드는 마찰음을 내면서 서서히 멎어섰다.

전기기관차의 높다란 차창에서 모자끈을 턱밀

에 건 기관사가 얼굴을 쑥 내밀었다.

《만곡아바이 벽계역에서 들었습니다!》

《여보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역에 내려계시네.》

역장은 더운 입김을 내뿜으며 다급하게 말하였다.

《정말입니까?》

《그러이, 수령님께서 편히 쉬시도록 하시려고 이 밤을 밝히고계시네.》

《아바이, 벽계역에서 그러는데 저 령산광산과 아흐레고개 도로공사장에서도 발파시간을 뒤로 미뤘답니다. 만곡 백리주변이 교요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난 이거 야단났습니다.》

《뭘 실었게?》

《장관입니다.》

《장관? 하- 왈가당거리겠지? 미속에 가까운 저속으로 살살 몰아지나라구.》

《예, 좌우간 해보겠습니다.》

전기줄에서 시퍼런 섬광이 번뜩이며 전기기관차가 서서히 미끄러져나가기 시작하였다. 땅바닥이 물결치듯 움푹거렸다. 차바퀴소리, 삐걱소리, 무엇인가 덜커덩거리는듯한 소음- 그 모든 소리들에 가슴이 발기발기 찢기는듯하여 역장은 저도 모르게 펄쩍 움크리고앉아 차바퀴들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차바퀴들에서 세찬 바람과 함께 울려나오는 소음을 눌러 가라앉히려는듯 앞으로 내뻗은 손을 조용조용 아래로 저었다. 그 손놀림은 보채는 자기의 가슴을 도닥여주는 엄마의 그것처럼 부드럽고 신비로와보였다. 속시 타서 바삭 말라든 입술에서는 단김과 함께 안타까운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가만... 가만히... 이 미옥한것들아, 지도자동지께서 밤을 밝히신다. 소리를 죽여... 죽여...》

그의 절절한 심정이 무정하고 둔한 차바퀴들에도 전해진듯 렬차는 차차 소음을 죽이며 어둠속으로 소리없이 미끄러져나가 역구내를 조용히 지나갔다.

그제야 천상수는 잔등에 척척한 식은땀을 느끼며 허리를 폈다.

그는 렬차가 올 때마다 매번 벽계쪽과 하산쪽의 산굽이로 달려나가 이렇게 보살피며 속을 태우곤하였다. 그리고나서 돌아오다가 역구내를 바라보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특별렬차옆을 천천히 거닐고계시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심각한 생각에 잠기신듯 머리를 수긋하고 수령님께서 주무시는 객차의 차창밑에 서계시다가는 다시 걸음을 옮기곤하시였다.

한편 이 밤 역장실의 전화종은 간단없이 울렸다. 만곡이라는 역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랐으며 한번 찾은적도 없는 책임적인 일꾼들이 통보를 받고 황급히 철도교환을 불러 만곡역을 찾았

다. 만곡역에는 전화사태가 쏟아졌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이 가닿을 때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편히 쉬실수 있도록 잘 보장해드리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갖가지 당부를 해오는것이였다. 천상수가 전화받은 내용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말씀드리면 그이께서는 수원들을 통하여 절대로 소란을 피우지 말고 모두 자기 위치들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하라고 지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여전히 교대 없는 위병처럼 피곤도 잊고 특별렬차옆을 거니시는것이였다.

천상수가 세번째 렬차를 통과시키고 돌아오니 특별렬차안에 들어갔다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환히 밝은 얼굴로 승강대를 내려오시였다. 그이의 눈이 기쁨에 넘쳐 유난히 빛났다.

교요속에서 대기도 이름할수 없는 기쁨과 행복에 취하여 조용히 설레이는듯싶었다.

그이께서는 영문을 몰라 엉겨주춤 서있는 천상수에게로 다가오시였다.

《역장동무, 기관사동무들이 정말 렬차를 기막히게 몰아줍니다. 어찌나 조용히 지나가는지 차창걸로 미풍이 스쳐지나가는것 같습니다. 렬차가 세번이나 지나갔는데도 수령님께서서는 여전히 편안히 주무시고계십니다.》

그가 네번째 렬차를 통과시키고 돌아오니 내내 특별렬차옆에 계시던 그이께서 보이지 않았다. 아마 렬차에 올라가 쉬시는 모양이라고 생각한 역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역장실로 들어갔다.

목안이 칼칼해져 물을 마시려고 보니 책상우에 물주전자만 있고 밑굽의 찰이 벗겨진 법랑고뿌가 보이지 않았다.

천상수는 미심쩍은 생각에 밖으로 나가 역뒤로 어슬렁어슬렁 돌아가다가 흠칫 놀라 멈춰섰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샘터의 너럭바위에 앉아계시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턱에 손을 고이시고 샘을 들여다보시며 끝없는 생각에 잠겨계시였다.

샘터뒤 둔덕에 풍성하게 자라오른 가독나무가 미풍에 소리없이 설레이고 그 나무가지들사이로 흘러내리는 달빛에 샘물이 은백색으로 반짝거렸다. 사위는 그지없이 교요한데 대지의 아득한 지심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이 박우물에 넘쳐흘러내리는 소리만 돌돌 들려왔다.

그는 숨을 죽이고 엉겨주춤 서있다가 뒤로 슬금슬금 물러섰다. 그이께서 얼굴을 들고 이쪽을 바라보시였다. 그 눈길은 역장을 가까이로 부르는것 같았다.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조용히 물으시였다.

《이 샘물이 여기에 있는지 오릅니까?》

《전정직전에 제가 역장으로 배치되어와서 파농

은젼니다.》

《내가 예전에 이 부근의 어느 역에 들린적이 있었는데 그 역에 아주 시원한 샘물이 있었습니 다.》

천상수는 목이 껍 메어올랐다.

《그건 저아래 하산역입니다. 그 샘물은 예나 다름없이 물맛이 좋고 시원합니다. 이 운산령 밑에서는 어디를 파든 그런 시원한 샘물이 나오니 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겨 군처를 돌려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역으로 돌아와서도 역구내를 천천히 오르내시였다.

천상수는 아득한 청춘시절의 잊지 못할 그날의 감회가 밀물처럼 가슴에 밀려들어 그이의 뒤를 따르다가 곁에 다가섰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의 팔을 스스럼 없이 끼시고 역구내를 한번 또다시 한번 오르내리시였다. 구내를 환히 밝히고있는 외등들의 둘레에서는 하루살이떼가 뽀얗게 날아돌고있었다.

줄곧 깊은 생각에 잠겨 거니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수령님께서 주무시는 객차의 차창을 지켜보시였다. 그이의 눈에 보일듯말듯 이슬기가 어리였다. 이윽고 다시 걸음을 떼신 그이께서는 혼자 말씀처럼 조용히 뇌이시였다.

《우리 어머님처럼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전사는 없었습니다. 항일투사들도 다 그렇게 말합니 다. … 이번에 여러고장을 돌아보니까 도시나 읍이나 산간농촌에도 다 만수무강탑을 높이 세웠습 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의 표 시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 탑들에는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글발들이 멀리에서도 바라 보이게 정성담아 새겨져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탑을 세운으로 충실성을 다 보였 다고 여기는지 실제 일을 쓰게 하지 않고있습니 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대로, 수령님께서 바라시 는대로 일은 하지 않고도 태평스럽게 지내고있습 니다. 이번에 산간농촌지대에 나가봐도 그렇습니 다.

수령님께서 농사에서 적지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일꾼들의 귀에 못이 배기도록 가르치셨는데도 자기네 땅에서 잘되는 감자농사를 잘 짓지 못하여 몇해째 수확을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령님께서 일찌기 창성련석회의에서 산간지대에서는 산을 잘 리용해야 인민들을 잘살게 할수 있다고 간곡히 가르치셨는데 산도 잘 리용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령님께서 일꾼들을 데리고 수없이 산에도 오르고 밭에도 나가시여 산간지대인민들을 잘살게 할수 있는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셨습니다. 수

령님께서서는 밤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시였습니다.

우리가 반세기나 혁명을 했는데 인민들의 생활이 아직도 높지못하다고 가슴아파하시며 잠드시지 못하시였습니다. 그러다나니 피로에 피로가 겹쳤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여기에 차를 세웠겠습니까.》

그이의 절절한 말씀에 천상수는 가슴이 저며지는 듯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일이 있을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지라 수령님을 모실수 있도록 역을 꾸리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는 고요해서 좋습니다.》

그이께서는 한손을 허리에 올리시며 역사와 그 주변의 우중충한 산들을 둘러보시다가 문득 패활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내가 예전에 어머님과 함께 들렸던 그 역의 조역은 새파란 청년이었는데 아주 패활한 동무였습니다. …기차가 떠날 때 달리는 차를 따라오며 내가슴에 꽃을 안겨주고는 그만 넘어졌드렸는데 상하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려고 경충경충 뛰어 올랐습니다. 참 패활한 청년이였습니다.》

천상수는 눈앞이 탁 흐려와 머리를 숙였다.

《지도자동지!…》

그이께서는 늙은 역장의 얼굴을 눈여겨 살펴보시며 가슴아프신 음성으로 뇌이시였다.

《아, 세월이 많이도 흘렀습니다. 역장아바이, 왜 자기를 감추려고 합니까?》

천상수는 그이께 어떻게 이끌려 방으로 들어왔는지 물랐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와 다정하게 마주앉으시여 살아온 이야기랑 들으시다가 저는쪽 다리를 끌어만져보시였다.

《언제 다쳤습니까?》

《전쟁때 시한탄을 치우다가 다쳤습니다. 전후에 상처가 도져 수술을 했는데도 이 모양이 됐습 니다.》

《도시의 평탄한 길이라도 모르겠는데 이런 산 골길에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한평생 걸음걸이에 마음을 써왔겠습니까.》

그이께서는 한평생의 피로움을 끌어만져주시는 듯 다심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천상수는 코물을 훑 들이켰다.

《젊어서는 좀 그랬는데… 늙어서야 아무렇게나 걸으면 뭐랍니까.》

《그래 30여년간 어디도 가지 않고 내내 이 역에 계셨단말입니까?》

《예…》

《이 심심산중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천상수는 가슴속 설음이 못건디게 터져올라 그만 한손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흐흑 흐흑했다. 흐느낌소리가 터질 때 정수리를 덮은 성긴 백발이

보일듯말듯 흔들렸다. 그는 인차 자신을 다잡으며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다.

《저는 저 만곡사람들한테 봉사하고 만곡사람들은 저를 혈육처럼 여겨줬습니다. 그게 큰 기쁨이구 락이여서 이날 이때까지 외로운줄두 힘든줄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예…》 하고 그이께서는 머리를 무겁게 끄덕이시었다.

《내 앞으로는 여기를 지나갈 때면 꼭 들리곤 하겠습니까.》

천상수는 한동안 머리를 수궁하고있다가 죄송스럽게 말씀드렸다.

《고맙습니다… 한데 이 역은 없어집니다. 이 밤이 지나면 없어지고합니다.》

《예? - 없어지다니요?》

《우리 관리국산하에 새 역들을 내오게 된 사정 때문에 이 역은 폐쇄하게 됐습니다. 새로 개발된 탄광과 광산지구들에 큰 역을 다섯개나 새로 내온답니다.》

《그러면 이 역을 리용하던 인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삼사십리나 더 걸어나가야 기차를 타게 되니 불편이야 하겠지만 참아야 합니다. 탄광이랑 광산이랑 많이 개발돼야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참아야지요. 만곡사람들은 본건 적어두 리해성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만곡리에 들어가 해설사업을 할가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안색이 어두워지시며 다심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역의 마감손님이겠습니까.》

천상수는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4

하산쪽에서 올라오는 마감 렬차가 지나갈 때 뒤꼬리의 차창차에서 검은 그림자가 뛰어내렸다.

그 그림자는 산굽이 앞코숭이에 서있는 천상수에게로 황황히 다가왔다. 철도관리국 부국장 서상만이였다. 그는 숨이 턱에 닿아 헐떡거리며 다우쳐 물었다.

《특별렬차가 지금도 만곡에… 역에… 서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모셔드렸소? 수령님께서 편히 쉬십니까?》

《예…》

《왜 제때제때에 보고를 안하는가말이요. 온 관리국이 속이 새까매서 앉아있는데… 참다못해 내가 뛰어왔단말이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모두 자기 위치에서 정상적으로 사업하게 그런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역에 계시오?》

《예.》

《그래 어디에… 어느 방에 모셨소?》

《역장실에…》

《역장실에? 령감냄새나는 그런 방에 모신단말이요? 만곡때문에 우리 관리국이 망신을 당하게 했소.》

부국장은 이전에 와서 받았던 인상을 되살려 역을 잘 거두지 못했다고 늙은 역장을 마구 몰아대었다. 그리고는 결쾌스럽게 돌아서 자갈소리를 와작와작 내며 역쪽으로 걸음을 다그쳐갔다.

천상수는 노여움이 북받쳐 가슴이 방망이질하였으나 지그시 누르며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다. 불빛이 환한 역구내에 들어서자 부국장은 특별렬차결에 서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다가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부국장에게 몇마디 말씀을 건네시는것 같더니 그를 데리고 역장실로 들어가시었다.

천상수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알지 못하였다.

특별렬차의 차장들에 불빛이 환히 켜지고 수원들이 기쁨에 설레이며 오르내릴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역장실에서 나오시었다. 역장실문이 열렸다가 닫기는 그 틈에 부국장이 머리를 싸쥐고 책상에 앉아있는것이 언뜻 들여다보였다.

역구내에 비가 쏟아졌다, 서남쪽 하늘가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둔중한 우뢰소리가 먼 포성의 메아리처럼 울려왔다.

렬차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기쁨에 넘친 얼굴로 천상수에게로 다가와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었다.

《수령님께서 꼭 쉬시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곡역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바이,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떠나십니까?》

천상수는 가슴이 텅 비는것 같은 허전한감에 말을 잊기 못하였다. 늙은 역장의 눈에 눈곱이 그렇게졌다.

비물이 흘러내려 번쩍거리는 렬차가 역구내를 서서히 미끄러져나갈 때 천상수는 언뜻언뜻 지나가는 차장들을 향하여 머리를 깊이 숙여 절을 하였다.

그가 허리를 펴는데 누구인가 바람처럼 옆을 스쳐지나갔다. 부국장이였다. 그는 엇비스듬히 흘날리는 비발속으로 렬차를 따라 정신없이 달려나갔다. 땅을 진감하는 차바퀴소리, 날리는 옷자락, 무엇이라고 부르짖는듯한 목메인 소리… 렬차의 뒤꼬리가 비발속에 멀어지자 그는 맥없이 멎어섰다.

쏟아지는 비줄기가 땅을 두드리며 물보라를 뿜양게 일으켰다. 그는 폭풍속에 든 사람처럼 머리

를 움켜잡고 허우적거렸다.

영문을 몰라 황황히 다가간 천상수에게 그는 갈린 소리로 부탁했다.

《혼자 있게 해주세요.》

시간이 퍼그나 지나 천상수가 역장실로 들어가니 부국장은 번민이 가득 실린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숨이 질 때까지 명심할 가르치심을 받았습니다.》

눈물에 젖은 목소리였다.

그는 더 말을 잊지 못하고 펼쳐진 사업수첩을 역장에게 내밀었다.

《여기에 있습니다. 빠짐없이 적느라고 했는데...》 그리고는 방에서 조용히 나갔다. 비방울들이 휘뿌려진듯 글자들이 여러군데나 번지여 얼룩을 그린 수첩장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심각한 음성이 울려나오는 것 같았다.

《만곡역장은 만곡에 사는 사람들과 이 산간벽지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생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인민의 총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국에서 새 역들을 내오는 사정과 관련하여 이 역을 없앤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고장 인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수령님께서 13명의 어린이들을 위해 통학열차를 보내주시고 한두명의 아이들을 위해 자그마한 정거장까지 마련하여주시는데 이미 있던 역이야 무엇때문에 없애겠습니까. 어떻게나 예비를 짜내어 새 역들도 내오고 이 역도 없애지 않도록 타산해보시오. 나는 지나가던 손님으로서 의견을 말합니다.

큰 사업때문에 인민들의 조그마한 이해관계를 소홀히 대하거나 함부로 무시해버려도 좋다는 법은 없습니다. 인민들의 심정이나 이해관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은 우리 혁명의 근본원리나 목적에도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사상감정입니다.

어느 누구나 그런 사상감정이 마음속에 있다면 티끌만할 때에 없애버리고 더 생기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을 무시하고 깔보는데 습관되면 혁명의 역신으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이

간고한 우리 혁명이 남긴 하나의 심각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여러 지방을 돌아보니 인민들에 대한 사상관점이 바로 서지 않은 사람들때문에 인민경제의 구석구석에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일이 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령님께서 인민들을 잘살게 하려고 한생을 바쳐오십니다.

이번 현지도에서도 수령님께서 인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 그르쳐진 일들을 바로잡느라고

그토록 피로하셨습니다. 수령님께서 올해 년세가 얼마이십니까, 자기 인민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인민들에게 헌신복무할 대신 인민들에게 고통을 주어 심려만 끼쳐드리는 일군을 수령님께 충실하며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허황한 소리입니다. 지각있는 사람이라면 특별렬차가 이 간이역에 묵게 된 사연을 두고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나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우선 자기 사업단위에서 인민의 총복이 되어야 합니다.》

천상수는 바위돌로 굳어진 듯 움직일 줄 몰랐다. 희뽀한 새벽빛이 어린 유리창문에 비방울이 하라락 뿌려졌다....

만곡역은 폐쇄되지 않았다.

머칠후 하산쪽으로부터 한대의 수동차가 철길을 울리며 만곡방향으로 살같이 달려올라왔다. 수동차우에는 이쁘장한 처녀가 쇠란간을 잡고 바람을 맞받으며 서있었다. 그 처녀는 흘날리는 머리칼을 자주 쓸어만져올리는가 하면 이마우에 손채양을 붙이고 마주 달려오는 우중충한 산들을 둘러보며 미소를 날리었다.

수동차를 억척스럽게 몰아오던 하산역장 오일범은 길을 가다가 자기네 일행을 놀랍게 쳐다보는 두메산골사람들을 향하여 팔을 내저으며 웨쳐댔다.

《만곡역에 출표원이 옵니다- 꽃같은 체네가 들어-옵니다-》

수동차가 역구내에 들어서자 만곡역장은 근엄하면서도 고집스러운 얼굴표정으로 옷차림을 살펴보고는 의젓하게 걸어서 마중나왔다.

령혼과 육체

(중국) 장현량

역 강학래

그는 버림받은 부자집 아들…
빅포르 유고 《레 미제라블》

1

허령균은 아버지를 다시 만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여기는 고급호텔 7층, 잘 꾸러진 객실이다. 창밖은 다만 광막한 푸른 하늘 여기저기 흰띠구름이 몇 오리 널려있을뿐이다.

그러나 그곳 황토고원농장의 창밖에는 푸르고 누른 풍만한 전야가 펼쳐져있지 않았던가. 이곳에 온 그는 갑자기 구름우에 올라앉기라도 한듯 온몸이 허전한것만 같았고 게다가 아버지의 고불통에서 피어오르는 푸른 연기가 안개처럼 방안에 서리어 눈앞의 모든것이 더욱 종잡을수 없는 환각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인디안주장의 머리가 찍혀진 아버지의 고불통에서 서려오르는 담배연기며 그가 어렸을 때 늘 말곤하던 달콤한 커피향기는 이것이 꿈이 아니라 틀림없는 현실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었다.

《지나간 일은 더 생각지 말자!》 하며 아버지는 손을 내저었다.

30년대초에 하버드대학에서 준박사학위를 받은 이후에도 캠프릿지시절의 기백을 그냥 간직해온 그였다. 지금 그는 고급모직양복을 입고 까치다리를 하고 소파에 앉아있다.

《나는 대륙에 와서 <앞을 내다보자>는 정치술어를 배웠다. 너도 어서 외국에 가도록 하자!》

방안 갖춤새와 아버지의 옷차림은 그로 하여금 야릇한 압박감을 느끼게 했다. 그는 생각에 잠기였다. 과거의 일들은 이미 지나가버렸다. 하지만 그것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30년전 일이다. 그날도 이런 가을날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써준 주소를 들고 하비로거리에 있는 정원이 달린 한채의 양옥집에 찾아갔었다. 소낙비가 내린 뒤여서 황이 든 나무잎들이 볼풀없이 후줄근해진 담장안의 프랑스오동나무에서 물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지고있었다. 담장우에는 가시철조망을 둘러쳤다. 대문도 어마어마하게 회색 뽕기칠한 쇠대문이었다. 그가 대문가에 서서 초인종을 한참 눌러서야 철문우의 조그만 피창문이 열리었다.

그는 이 문지기를 알고있었다. 늘 아버지에게 편지를 전해주는 사람이였다.

문지기는 그를 데리고 좌우쪽에 동청나무를 심은 세멘트포장길을 지나 2층 양옥집 살림방으로 들어갔다.

그때의 아버지는 물론 지금보다 썩 젊었었다. 그는 누르끼레한 양털조끼를 입고있었는데 팔굽을 벽난로에고인채 머리를 수긋하고 고불통만 뻗뻗 뻗고있었다. 벽난로앞에 놓인 등받이가 높은 소파에는 어머니가 진종일 저주를 퍼붓던 그 녀인이 앉아있었다.

《애가 그 앤가요?》

그 녀인이 아버지에게 묻는 말이었다. 《신통히도 당신을 닮았구려! 와요. 이리 와요!》

그는 가지 않았으나 눈길은 저도 모르게 그에 재미쳤다. 그 녀인의 맑은 두눈과 새빨강게 칠한 두입술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할수 있었다.

《무슨 일이나? 영?》 아버지가 머리를 쳐들었다.

《어머니가 앓으면서 아버지를 오래요.》

《밤낮 앓긴, 밤낮…》

아버지는 화를 내며 벽난로에서 물러나 주단우를 왔다갔다하였다. 초록색바탕에 흰 꽃무늬가 돋친 주단이다.

그는 아버지의 발걸음을 따라 눈길을 돌리며 쏘아지려는 눈물을 참고있었다.

《가서 어머니한테 말해라. 내 줌 있다가 간다구…》

아버지는 마침내 그앞에 와서 멈춰섰다.

그러나 그는 이 대답이 믿을만한것이 못된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어머니도 전화로 이런 대답을 한두번만 들은것이 아니였기때문이다.

그는 겁을 내면서도 고집스럽게 졸랐다. 《어머닌 아버지를 지금 당장 오라구 했어요.》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아버지는 손을 그의 어깨우에 얹고 가볍게 그를 문어구로 떠밀었다.

《네가 먼저 돌아가거라. 내 차를 타구. 어머니병이 심하거든 먼저 병원에 가보게 하여라.》

행랑채까지 그를 바래러 나온 아버지가 갑자기 다정하게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을걸! 그럼 너도 알수, 알수 있었을텐데... 너의 어머니하군 정말 함께 있기 어려울걸! 그 사람은 너 무너무두...》

그는 얼굴을 들었다.

미간을 찌프리고 한손으로 연방 앞이마를 문지르는 아버지, 연약하고 시름겨워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측은해보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크라이슬러에 앉아 시누런 락업이 핑구는 프랑스조계지를 가로지를 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내렸다.

굴욕감과 젊고 고독한 생각이 불쑥 쳐들었던 것이다.

누구니 누구니 해도 불쌍한것은 그자신이였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얼마 받지 못하였다. 어머니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때보다도 마장패쪽을 어루만지는 때가 더 많았다.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도 얼마 받지 못하였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얼굴을 잔뜩 찌프리고 빈민과 권태감에 휩싸여있다가는 나중에 어머니와 육신 각신하기가 일쑤였다. 아버지는 그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모든 사연을 알수 있었을것이라고 했지만 실제상 열한살 난 그는 벌써 어렴풋하게나마 그들 사이를 짐작하고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강렬하게 바란것은 남편의 따뜻한 사랑이였고 아버지가 간절하게 바란것은 반대로 그 피뎌한 성미를 가진 안해의 손에서 벗어나는것이였다. 이러나저러나간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다같이 그를 바라지는 않았다! 그는 미국류학생과 지주집 아가씨와의 봉건결혼의 한 산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후 아버지는 과연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얼마 안있어 남편이 정부를 데리고 대륙을 떠났다는것을 알게 된 어머니는 도이칠란드사람이 경영하는 병

원에서 죽고말았다.

바로 이무렵 인민해방군 대부대가 상해로 진격해오고...

이제는 30년 길고 긴 세월이 흘러갔다. 력사상의 그 어떤 30년간에도 담지 못하였던 수많은 사변들을 치르고난 오늘, 이 아버지가 불쑥 돌아오고 게다가 그를 외국으로까지 데리고 가려는것이다.

모든것이 너무나 뜻박이여서 그는 자기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인지, 아버지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자기인지 딱히 믿기 어려울 지경이였다.

방금전, 아버지의 녀서기 미쓰 송이 옷장문을 열고 아버지에게 옷을 꺼내줄 때 그는 크고 작은 트렁크우에 알락달락한 러관상표들이 잔뜩 붙어있는것을 보았다.

거기에는 로스안젤레스것도 있었고 도쿄것도, 방코크것도, 홍콩것도 있었으며 보잉 747이라고 적

은 미국우주항공회사의 타원형 가격일람표도 있었다.

이 작은 옷장안에는 광활한 세계가 펼쳐져있었다.

그런데 자기는 어떠했던가. 사흘전에 상부에서 전해주는 국제여행사의 통지를 받고 이틀동안 자동차와 기차에 들까불리우면서 겨우 이곳에 왔다. 그가 들고 온 회색의혁가방은 지금 긴 쏘파 한쪽 구석에 놓여있다.

이런 들가방도 농장에서는 《멋쟁이》축에 속하였으나 이 객실에 오자 수집은듯 불쌍히 웅크리고있었다. 들가방우에는 나이론그물주머니가 놓여있었는데 그속에는 그의 세면도구와 그가 오면서 먹다남긴 차잎담알 (담알을 맹물에 삶아 껍질에 금을 낸 다음 다시 차잎물에 끓여낸것) 몇개가 들어있었다. 평균은 놀라운듯 입을 벌리고 쭈그리고들있는 차잎담알 몇알을 바라보자니 떠난 날 저녁 수지가 많이 가지고 가서 아버지께도 맛보이랴던 말이 생각나 절로 쓴웃음이 나왔다.

그해였다. 수지는 정성을 데리고 한사코 현성의 정거장까지 나와 그를 배태우려고 하였다. 결혼후 그는 한번도 농장을 떠나본적이 없었다. 이번 그의 먼길 행차는 이 집안에 있어 획기적인 거사가 아닐수 없다.

《아버지, 베이징은 어데 있나?》

《베이징은 현성 동북쪽에 있단다.》

《베이징은 현성을 많이많이 합친것만큼 크나?》

《그래, 현성을 많이 합친것만큼 크지.》

《마란꽃이 있나?》

《없단다.》

《메대추는 있나?》

《없단다.》

《에이고-》

청청은 어른처럼 긴 한숨을 내쉬며 손으로 아래턱을 고이고 저으기 실망해하였다. 청청은 좋은 고장에는 마란꽃이나 메대추가 응당 있어야 한다고 여겼다.

《요놈의 계집애, 베이징은 아주 큰고장이야!》

마차를 모는 조동무가 청청을 돌려주었다. 《너의 아버지 이번엔 멀리 뻗지두 몰라! 너의 할아버지와 같이 딴 나라로말이다. 그렇지요, 허선생?》

다리를 쪼그리고 조동무뒤에 앉아있던 수지가 그에게 썰썰 웃어보일뿐 말은 하지 않았으나 이웃을 하나로 자기의 믿음과 깊은 정을 드러내보였다. 수지는 그가 다른 나라로 가리라고는 상상할수조차 없었다. 청청이가 베이징이 얼마나 큰지를 상상도 하지 못하듯이.

차바퀴자국이 울퉁불퉁하게 난 신작로를 따라말들이 비적거리며 느릿느릿 가고있었다.

길 북쪽켄엔 네모반듯한 밭들이 끝없이 펼쳐져있고 길 남쪽 멀리 안개서린곳엔 바로 그가 이전

에 말을 방목하던 초원이 있다. 이 고장의 모든 것이 자석처럼 끌어당겨 말 세필이 마차 한대를 끄는데도 무척 힘겨워하는것 같았다. 그렇다, 이곳 한포기의 풀, 한그루의 나무가 다 끝없는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급기야 이 모든것들과 헤어지자니 더욱 정답게만 느껴지었다.

그는 나란히 선 세그루의 백양나무뒤에 굽다란 메대추나무 한그루가 서있는것을 알고있다. 그는 마차에서 내려 메대추나무 한가지를 꺾어다가 모두들 마차우에서 한알한알 같이 따먹었다. 이것은 서북지방에만 나는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주는 들과실이다. 기근이 든 60년대에 그는 이런 들과실만 먹고 살았다. 여러해 먹지 않다가 이제 맛을 보니 류별나게 그윽한 향토미를 자아낸다. 정말 청청이가 베이징에 메대추가 있는가고 물을만도 하였다.

《청청이할아버진 메대추를 못잡수어봤을거예요.》수지가 메대추씨를 마차밖으로 내뺄으면서 웃으며 말했다. 그가 외국에서 돌아온 시아버지를 최대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생각해낸것이 이것이 다였다. 실상은 상상해볼것도 없다.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나 비슷하게 생겨서 수지가 길거리에서 만난대도 대번에 알아낼것이다. 두사람은 가느스름한 눈과 선이 가늘고 끝은 코마루, 룬콕이 드러난 입술, 지어 손놀림, 발걸음에도 한피줄임이 알리였다. 아버지는 그닥 늙어보이지 않았다. 살갗마저 아들처럼 거뭇거뭇했지만 그것은 틀림없이 로스안젤스나 홍콩의 해수욕장에서 탕을것이고 조금도 초췌해보이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맵시를 보고 걸치레에 깐깐하여 머리는 세였지만 흩어진 머리칼 한오리 없다. 손등에는 검버섯이 박혔지만 손톱은 깨끗이 다듬어 반들반들했다. 차탁우에 놓인 정교한 커피잔둘레에는 3B 표 고불통과 마로찌제 양가죽담배쌈지, 금라이타, 금강석넥타이핀이 널려있었다.

그가 어떻게 메대추를 먹어보았겠는가!?

2

《아, 여기서도 단니 구토펜의 <간지스강의 달빛>을 들을수 있군요!》

미쓰 송은 순수한 표준어를 알고있었다. 키가 늘씬하고 풍만한 그의 몸에서는 소형화향기가 풍기였다. 기다란 검은 머리칼은 뒤덜미에 모아다 꽂져서 움직일 때마다 말꼬리처럼 좌우로 너들거렸다.

《리사장님, 저것 보세요. 베이징사람들은 홍콩사람들보다 디스크춤을 더 즐기는것 같군요. 저사람들도 이젠 현대화됐는걸요!》

《아무도 향락의 유혹을 막지 못하는 법이니까.》아버지는 모든것을 꿰뚫어보는 철학가처럼 웃고있었다. 《그들은 지금도 자기가 금욕주의자

라는걸 부인한다오.》

저녁식사를 마친후 아버지와 미쓰 송은 그를 무도장으로 데리고갔다. 그는 베이징에도 이런곳이 있다는것을 생각조차 못하였었다. 어렸을 때 그도 부모를 따라 상해의 《디디스》, 《백락문》,

《프랑스파티》에 가본적이 있으므로 지금 마땅히 옛고장에서 다시 노니는 기본에 사로잡혀야 할것이다. 그러나 그는 부드럽고 우유빛 나는 등불밑에서 사나이같은 녀인들과 녀인같은 사나이들이 마치 달빛속의 유령들처럼 자기 주변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오히려 불안스럽게만 하였다. 그는 마치 관중이 무대에 끌려나가 갑자기 배우가 된것처럼 자기 역에 뛰어들지 못하고있었다.

방금전에 그는 식당에서 어떤 료리엔 저가락을 몇번 대지도 앉았는데 들어내가는것을 보았다. 그래서인지 위장안에서는 경련과도 같은 반감이 일어나고있었다. 그가 사는곳에서는 현성의 국영식당으로 갈 때면 뉘뵤통을 들고가서 남은 밥과 찬을 담아 집으로 가져가지 않았던가!

홀안에서는 즐거운 무도곡이 울리고 몇쌍의 남, 녀가 피상망측한 춤을 추고있었다. 그들은 꺾이는 앉고 바투 다가서서 땀싸움하듯 서로 밀치며 허리를 앞으로 꺾기도 하고 뒤로 체끼지도 하였다. 그들은 이런식으로라도 넘치는 정력을 소모하지 않고는 못견디는 모양이었다.

그의 머리속에는 지금 한창 논판에서 벼가을을 하고있을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들은 허리를 굽히고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부지런히 일손을 놀리고있을것이다. 그러다가도 가끔 머리를 쳐들고 먼곳의 물지게군에게 석신했던 목소리로 《어이, 물, 물...》하고 웨쳐댔것이다.

아, 만일 그가 지금 그곳의 록음아래거나 시누런 물이 찰찰 흐르는 개울가에 누워 벼향기와 목숙향기를 가득 머금은 실바람을 한껏 들이마실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춤출줄 아시겠지요? 허선생.》

문득 그는 미쓰 송이 곁에 와 묻는 말을 들었다. 그바람에 달콤하던 환상이 그만 깨여지고말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의 맑은 두눈과 구홍을 빨갛게 바른 입술을 흘끔 쳐다보았다.

《모, 모릅니다.》

그는 흥미를 가져본적이 없다는듯이 그에게 웃어보였다. 그는 말 방목할줄도, 밭갈이할줄도, 가을걷이도, 마당질도... 뭐나 다 할줄 아는데 무엇보다 때문에 그따위 춤을 배우겠는가?

《그 사람을 피롭히지 말게.》아버지가 웃으면서 미쓰 송에게 말하였다. 《저길 보라구, 왕지배인이춤을 청하러 오네.》

희색양복을 입은 멀끔한 사나이가 탁자를 에돌아오더니 싱글벙글 웃으며 미쓰 송에게 허리를

약간 굵혔다. 두사람은 나는데 출판에 뛰어들었다.

《넌 아직두 무슨 미련이 있어서 그러느냐? 응?》 아버지는 또 고볼통에 담배를 붙여물었다. 《공산당의 정책이 늘 변한다는거야 네가 나보다 더 잘 알지 않느냐. 지금은 러권 내기가 비교적 쉽지만 이다음엔 또 어떻게 될지 알게 뭐냐.》 《저에게도 차마 헤여질수 없는것들이 있어서...》

그는 몸을 돌려 아버지와 마주섰다. 《그 고통까지 포괄해서말이나?》 아버지는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고통속에서 찾은 행복이기에 더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요.》

《응?》 아버지는 그를 뵈기 쳐다보면서 이해할수 없다는듯이 어깨를 으쓱하였다.

그의 머리속엔 언뜻 섬뜩한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이때에야 비로소 아버지도 이 낯선, 이해할수없는 세계에 속해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육체적으로 어쉴비슷하다고 하여 정신적인 장벽마저 허물어버릴수 있는것이 아니다. 그도 아버지가 그를 뵈어지게 쳐다보듯이 그렇게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두사람의 시선은 상대방의 눈망울속에 깊숙이 간직되어있는것까지는 꿰뚫어볼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직... 아직두 나를 원망하느냐?》 마침내 아버지가 눈길을 떨구며 물었다.

《아니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는 손을 내저었다. 이 동작은 신통히 아버지가 하던 동작과 같았다. 《아버지가 말씀하신것처럼 지나간 일들은 이미 다 지나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

무도꼭이 바뀌어졌다. 이번에는 무거우면서도 느릿느릿하여 마치 도랑물이 긴 수채속을 빠져나가는 소리같았다. 등불빛이 희미해져서 그는 출판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툭툭히 볼수 없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채 한손으로 연방 앞이마를 문지르면서 또다시 것처럼 나약하고 고통스러운 낯색을 보였다.

《네 말이 옳다. 지나간 일은 벌써 파거지사로 되고말았지. 하지만 돌이켜볼 때마다 난 가슴이 아프더구나. ... 그래서 나는 너를 몹시 그리워하였다. 더구나 지금에 와서...》

아버지의 나직한 속삭임은 비교적 점잖게 울리는 무도꼭에 잘 어울려 그의 마음을 흔들어놓았다.

《그랬을거예요. 그건 저도 믿어요.》 그는 생각에 잠긴채 말하였다. 《저도 아버지를 그리워했으니깐요.》

《그래?》

아버지는 머리를 번쩍 들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20년전 어느 가을밤이었다.

큰비에 창호지가 다 떨어져나간 창살구멍으로 달빛이 흘러들어 현천무지를 무덕무덕 무쳐놓은것 같은 사람들의 몸을 비치고있었다. 토피로 지은 이 나지막한 방안에서 10여명의 사람들이 자고있었다. 그는 벽밑에 바싹 붙어 누웠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쓸쓸한 흙냄새를 풍기는 습기가 그의 옷에 폭 배었다. 그는 오한이 나서 견디다 못해 축축한 복대기우에서 일어나고말았다.

밖으로 나오니 진창판이 달빛을 받아 깨어진유리처럼 반짝거렸다. 어디에나 비물이 질탕하니 고였다. 공기속에는 썩은 물비린내가 가득차있었다. 그는 마구간으로 찾아갔다. 거기가 비교적 건조한편이었다. 말통내와 말오줌냄새가 오히려 훈훈한 감을 주었다. 말과 노새와 하늘소가 저마끔 제앞에 놓인 구유안에 대가리를 틀어박고 서격서격 마른풀을 씹고있었다. 그는 구유앞에 빈자리가 나있는것을 발견하고 그안으로 기어들어가 갓 태어난 예수처럼 말구유안에서 잤다.

달빛이 엿비스듬히 비쳐들면서 마구간벽에 환한곳과 그늘진곳을 대각선으로 쭉 갈라놓았다. 술한 말들이 구유앞에 대가리를 늘어뜨리고있는 모습은 흡사 달을 향해 아침인사를 하는것 같았다.

느닷없이 그의 가슴속엔 쓸쓸한 생각이 갈마들었다. 모든 정경이 그의 고독한 처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버렸다. 그래서 그는 짐승들과 자리를 같이하게 된것이다!

그는 울었다. 비좁은 말구유가 그의 온몸을 조였다. 그것은 마치 생활이 사방에서 그를 압박하고있는것과 같았다. 그는 먼저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았다. 그다음은 어머니에게서 버림을 받았다. 외삼촌은 어머니의 유물을 다 걸어가면서도 그만은 거두어주지 않았다. 그후 그는 기숙사에 옮겨가서 인민들이 대여주는 학비로 공부를 하였다. 공산당이 그를 거두어주었고 공산당의 학교가 그를 공부시켜주었다. 50년대의 그 즐겁던 나날에 그는 기형적인 가정에서 키워진 그 피벽하고 민감하며 과묵하던 성격을 차츰 집단생활속에 용해시켜갔다. 50년대의 모든 중학생들이 그러했던것처럼 그도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있었다. 학교를 졸업하자 그의 꿈은 현실로 되었다. 그는 남색천으로 지은 제복을 입고 옆구리에 교과서를 끼고 한손에 분필을 들고 교실로 들어가곤하였다. 그에게는 자기 생활의 길이 있었다. 그러나 학교의 당지부 서기가 우파를 숙청할데 대한 지표를 완수하려고 그를 또다시 아버지쪽으로 떠밀어버렸다. 마치도 육체적인 혈연관계가 계급의 대를 잇는데서 필수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라도하는듯이. 이렇게 되어 그는 또다시 자산계급의 한 성원이 되고말았다. 지난날, 자산계급들은 그를 배척하고 다만 그의 리

력서에다 《재산》을 남겨주었을뿐이었다. 그런데도 그후 사람들은 또다시 그를 배척하면서 그의 머리에 우과모자를 씌워놓았다. 그리하여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몸이 되었으며 이 외진 농장에 밀려와서 노동단련을 하게 된 것이었다.

말 한필이 자기앞에 놓인 건초를 다 먹고 구유물 따라 그가 있는쪽으로 옮겨오고있었다. 고삐가 자라는것 뻗어온 말은 주둥이를 그의 머리말에 내밀었다. 그는 얼굴에 풍겨오는 따스한 코김을 느꼈다. 그는 그 절따말이 두툼한 입술을 호물거리며 머리말 구유밑바닥에서 벼알을 찾고있는것을 보았다. 말도 그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놀라지 않고 머리를 가우뚱하고는 축축한 코끝으로 머리를 냄새맡더니 말큰한 입술로 그의 얼굴을 쓸어주는것이였다. 이 애무에 그는 마음이 짜릿해졌다. 그는 기다란 여린 말머리를 와락 그러안고 흐느껴울며 뜨거운 눈물을 불깃한 말갈기에 문질렀다. 그리고나서 그는 구유안에 뚫어앉아 바닥에 널려있는 벼알들을 뽁뽁 굵어 말앞에 모아주었다.

아 아버지, 그때 아버지는 어디에 있었는가요?

3

지금 그 아버지가 마침내 돌아왔다.

이것은 꿈이 아니였다. 아버지는 옆방에서 자고있었다. 이것은 꿈이 아니였다. 그자신도 지금 폭신한 스프링침대우에서 자고있는것이다.

그는 두손으로 침대를 어루만져보았다. 그 딱딱하던 나무구유와는 촉감이 전혀 달랐다.

달빛이 엷은 창가림으로 스며들어 주단과 쏘와와 침대우에 어루어루한 룡형문양을 던지고있었다. 몽롱한 달빛속에서 이날 받은 인상이 이때에 와서야 선명하게 떠오르는것이였다. 그가 받은 총적인 인상은 자기가 그 모든것에 적응되지 않았고 습관되지 않았다는것이였다.

아버지가 돌아왔지만 그에게는 전혀 낯선 사람같이 느껴졌다. 아버지의 귀환은 그에게 고통스러운 추억만을 불러일으켰으며 조용하던 그의 생활을 휘저어놓았을뿐이었다.

가을철이라고는 하지만 방안은 갈수록 숨막히는것같이 무덥고 답답하였다. 그는 모포를 밀어제끼고 자리에서 일어나앉아 탁상등을 켜고 흐리멍덩한 눈으로 사위를 둘러보았다. 이윽고 그의 눈길은 자기 몸에 와닿았다. 그는 근육이 울퉁불퉁한 팔과 퍼런 피줄이 꿈틀거리는 장딴지며 발가락사이가 남달리 넓은 두발과 손바닥과 발뒤꿈치에 박힌 누르스름한 못을 보면서 오후에 아버지가 한말을 생각해보았다.

오후 커피를 다 마시자 아버지는 미쓰 송에게 심부름을 시키고나서 그에게 자기가 경영하는 회

사가 해외에 어떻게 뻗어가고있으며 그의 배다른 동생들이 어떻게 무능한가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였다.

《... 네가 곁에 있으니 나는 좀 위안이 되는구나.》 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30년전 일로 하여 나는 날이 갈수록 마음이 불안하였다. 나는 대륙에서 잘사는 집 출신들과 계급투쟁을 한다는 말을 듣구 네가 괴롭게 살아갈게구 지어는 네가 벌써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여기면서 마음속으로 네 근심만 하였다. 어렸을 때의 네 모습이 노상 내 머리속에 떠올랐다. 갓 태어난 너를 위해 너의 할아버지가 남경 외교부 부근에 있는 화교초대소에서 당병연(아이가 세상에 나서 3일만에 차리는 연회-역주)을 차렸던 그날 젖엄마의 품에 안겨있던 네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히 떠오르는구나. 그날 실업계의 거두들인 신신의 영씨네와 선시의 팽씨네 그리구 중화방직을 경영하던 류씨네와 영미담배회사를 경영하던 정씨네도 모두 상해에서 왔더랬지. 너는 알아야 한다. 네가 우리종가집 장손이라는걸...》

연록색 갓을 씌운 등불밑에 드러난 자기의 건강한 육체를 굽어보던 그는 불쑥 새롭고 기이한 인상을 받게 되었다. 한것은 여직껏 들어본적이 없는 자기의 철부지시절의 이야기를 아버지의 입에서 처음 듣게 됨으로써 지난날의 자기와 오늘의 자기가 머리속에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떠올랐기때문이었다. 마침내 그는 아버지와 자기와의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이 어디에서 온것인지를 똑똑히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호의호식하던 종가집 장손으로 태어난 자기가, 일찌기 비단강보에 싸여 주지옥림에 파묻힌 베이징과 상해 일대의 실업계 거두들과 마님들의 칭찬을 받던 자기가 명실공히 노동자로 변해버린데 있는것이구나!

하지만 이렇게 되는 전과정에는 수없이 많은 고통도 있었지만 평범한 노동의 즐거움도 있지 않았던가!

노동단련을 끝마친 그는 의지할곳이 없었기에 농장에 남아 말을 기르는 방목공이 되었다.

이른아침 해가 버드나무우듬지에 머리를 빠끔히 내밀고 풀밭에서 이슬이 반짝일무렵이면 그는 곧 말우리문을 열어주곤하였다. 그러면 말들은 배가죽과 엉덩이를 비비적거리며 앞을 다투어 풀밭으로 달려나갔다. 뿔종달새와 꿩들은 즐겁고 놀란 소리를 지르며 풀숲에서 솟구쳐올라 날개를 펼쳐 그 말잔등우를 스칠듯이 날아지나서는 살같이 버드나무숲속에 들어박히는것이였다. 그는 말을 타고 말떼가 밟고 지나가면서 줄줄이 진록색 흔적을 남긴 풀밭을 달려 순식간에 대자연의 품에 안기곤하였다.

풀밭에는 넓은 소택지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같이 키를 넘게 빼곡이 자랐다. 말들은 갈밭에 흘

어저 큼직한 입술을 호물거리며 연한 풀들을 뜯어먹었다. 소택지밭에서는 말들이 줄곧 붙어대는 투데질소리와 절벽거리는 물소리만을 들을수 있었다. 그는 흙무지경사면에 반듯이 누워 인생처럼 변화무쌍한 하늘의 흰 구름송이들을 바라보곤 하였다. 이럴 때면 바람이 풀초리와 소택지의 수면을 스쳐지나 청신한 풀냄새며 말땀냄새며 대자연의 숨결을 실고와선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그의 온몸을 어루만져주면서 자못 친절하게 그를 애무해주는것이였다. 그러면 그는 팔을 뻗치고 겨드랑쪽에 얼굴을 돌려대고는 자기의 땀내를 맡으면서 자기 생명의 숨결이 대자연의 숨결과 한데 어울려져있음을 가슴뚫듯이 느끼는것이였다. 이런 흐뭇한 감각은 참으로 미묘한것이여서 그를 끝없는 생각으로 이끌어가곤하였다. 그는 자기가 벌써 땅야의 생활에 익숙되어 어디에나 자기 손길이 미치고있으며 지난날의 자기와 결별해가고 있다고 여기게 엮는것이였다. 의기소침하고 비참하던 생각과 운명에 대한 억울한 기분은 차츰 사라져버리고 생명과 자연에 대한 사랑이 그자리에 굳건히 자리잡혀가고있음을 느꼈던것이다.

한낮이면 말들이 한필한필 불룩한 배를 뚱기적거리며 갈밭에서 나와 갈기를 흔들고 긴 꼬리를 휘저어 등에와 소파리들을 쫓곤하였다. 말들은 믿음과 사랑을 안고 그의 주위에 모여붙어 선한 눈길로 자기들을 방목하고있는 주인을 바라보았다. 때로 흰점박이 7호말이 몇필의 여원 말들을 에돌아 슬며시 다리를 저는 100호말곁에 다가가 성긴 수염이 돋은 입술로 그 말을 건드리며 희롱하곤하였다. 100호말도 만만치 않았다. 날새개 엉덩짝을 돌려대고 절기때문에 땅을 짚지 못하는 발로 힘껏 뒤발질을 하였다. 7호말은 화닥닥 물러서면서 머리를 쳐들고 마치 장난꾸러기아이가 수건떨기기놀음을 할 때처럼 말무리들 사이를 누비면서 은빛 물방울을 튕기는것이였다. 이때마다 그는 긴채찍을 들고 날카롭게 몇번 고향을 지른다. 그러면 모든 말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7호말에게 책망어린 눈길을 던지였다. 7호말도 그제야 진정하고 마치 책망을 들은 소학생처럼 무릎노리를 치는 소택지에 들어서서 입술을 벌리고 무료한듯 자기의 긴 앞이발을 갈았다. 이때면 그는 자기가 짐승들속에서 생활하고있는것이 아니라 풍화에서 나오는 왕자처럼 하늘의령물이라도 거느리고있는듯싶었다.

한낮의 햇빛아래, 먼곳의 산기슭에서 구름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여올 때면 소택지에서 《물소》라고 불리우는 물새들마저 더위를 못참아 부리를 갈뿌리에 대고 갈갈 울어댄다. 여기에는 풀숲을 헤치는 말과 소와 양떼의 끝없는 흐름이 있고 푸른산천의 아름다움도 있다. 함으로 조국이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이 이 한개가 있는 공간에 짙게 축소되어 자기의 아름다운 자태를 한껏 드러

내보이는상싶었다. 그는 만족스럽기만 하였다.

생활이란 역시 아름다운것이다! 대자연과 로동은 그에게 학교에서 배울수 없는것들을 수많은 가르쳐주고있었다.

가끔 소낙비가 풀밭에 덜쳐드는 때도 있었다. 그것은 먼저 산언덕우에 투명한 검은 실로 짠 장막같은 비발을 드리우면서 광활한 초원을 비치던 찬란한 햇빛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런 다음 비발은 천천히 바람결을 따라 산언덕아래로 옮겨와선 콩알같은 비방울을 쏟아부어 온 초원을 몽롱한 물안개속에 몰아넣는다. 그런만큼 사전에 그는 방목하고있는 말떼를 수림지대로 몰고 가야만 하였다. 그는 긴 채찍을 들고 말안장에 높이 앉아 옷자락을 날개처럼 펼치고 비바람을 맞받아 말떼를 따라 달리면서 한놈도 무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소리치며 지휘한다. 이럴 때면 그는 자기의 온몸에 무진장한 힘이 뜨겁게 굽이치고있음을 느꼈으며 자기도 작은 존재거나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는것을 느끼곤하였다. 바람과 비와 모기떼와의 싸움에서 그는 차츰 자기 일에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

각 생산대의 방목공들은 이런 때에만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그들이 비를 굶기 위하여 지은 초막은 마치 외로운 쪽배처럼 들판의 깊은 물안개속에 잠겨있었다. 초막안은 서늘하고 축축하였으며 독한 담배연기가 가득차있었다. 그는 방목공들이 주고받는 익살과 걸쭉한 우스개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에게는 자기와 같은 그런 복잡한 감정, 로동과 생활에 대한 그런 민감한 새로운 체험이 없는것이 놀랍고 신기하기만 하였다. 그들은 순박하고 단순한 사람들이였다. 생활은 비록 간고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만족해하는것이였다. 그는 그들이 부러워나기 시작하였다.

한번은 예순나문살 난 늙은 방목공이 그에게 이렇게 물은적이 있었다.

《모두들 자네더러 우파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파라는게 뭐가?》

그는 부끄러워 머리를 숙이고 떠뜨름떠뜨름 말하였다.

《우파... 우파라는건 파오를 범한 사람들입지요.》

《우파라는건 바루 57년 그 판에 좀 바른소리를 한 사람들이라우.》 7생산대의 방목공이 하는 말이었다.

《그해의 정풍에 걸려든 사람들은 공부깨나 한 사람들이였다우.》

7생산대의 방목공은 마음이 곧고 입이 가벼운 사나이였다. 평소에 통담을 즐기기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그를 《팍대포》라고 불렀다.

《바른말을 하는게 왜 <파오를 범하는걸>로 되나? 만일 죄다 바른말을 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나, 당장 뒤죽박죽이 되고말걸세.》
늙은 방목공은 곰방대를 빨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뛰니뛰니해두 로동이산 없으니 간부가 되지 말라구. 나는 칠순이 가까운 사람인데두 눈두 어둡지 않구, 귀두 멀지 않구, 허리두 굽어들지 않았네. 닭은 콩두 와당와당 씹어먹구...》

《그래서 아바인 자식들한테 한사코 로동을 시키는군요!》《팍대포》가 웃으면서 그의 말허리를 끊어버렸다.

《자식들이 로동하는게 뭐가 나빠?》

늙은 방목공은 정색하여 말하였다.

《로동을 떠나서는 사람이 살지 못해. 벼슬두 못하구 공부두 못하는거야...》

끝없이 주고받는 이런 단순하고 소박한 말들은 소낙비가 내린후의 무지개처럼 늘 그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감정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로 하여금 평범하고 소박한 생활속에 더 깊이 들어가 그들처럼 그런 기쁨과 만족을 얻기를 갈망하게 하였다.

장기간의 육체로동에서, 사람과 자연이 부단히 물질변화를 일으키고있는 속에서 그는 점차 일종의 공고한 생활습관을 얻게 되었다. 이 습관은 완강하게 자기 모양대로 그를 빚어놓았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과거의 모든것들은 희미한 꿈처럼 사라져 마치 책에서 본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되어버렸다.

그의 기억도 이런 공고한 생활습관과 전과 다른 생활방식에 의하여 몽청 끊어지고말았다. 대도시의 생활은 공허한것으로 되어버리고 지금의 이 모든것만이 실재하고있을뿐이었다. 마침내 그는 이고장의 생활에 적응하게 되었으며 이고장에서만 생활할수 있는 사람, 진짜배기 방목공으로 되었던것이다.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그해에도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잊고있었다. 그러다가 본격적인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야 누군가 그가 우파였다는것을 상기하고 그를 끌어내려 조리돌림을 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때 여러 생산대의 방목공들이 초막에 모여 의논한끝에 언덕밑 풀사정이 씨원치 않다는 핑계를 대고 농장 지휘부에 한마디 인사치레를 하고는 후닥닥 짐승들을 몰고 산언덕으로 올라가고말았다. 그도 물론 따라가야만 하였다. 왜냐 하면 몇달씩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서 해야 하는 그의 일을 제 할 일을 제쳐놓고 대신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때문이었다.

방목공들은 그를 도와 얼마 안되는 그의 집을 말잔등에 실어주고 말안장에 올라앉아 거들먹거리며 시비가 분분한 고장을 떠나갔다.

그들은 날카롭게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 끊임없이 짹짹한 고함을 지르기도 하며 요란한 말발굽소리와 함께 큰길우에 시누런 먼지를 피워올렸다.

먼곳, 바로 비취처럼 령롱한 빛을 뿌리는 산비탈폴발... 이날 그가 받아안은 남다른 뜨거운 정은 그의 기억속에 그리도 깊이 새겨졌던것이였다.

여기에는 그의 고통도 있었고 또한 즐거움도 있었으며 인생에 대한 가지가지 체험도 있었다. 그의 즐거움을 고통스럽던 지난날과 떼여놓는다면 그 즐거움은 빛을 잃고말것이며 아무런 가치도 없게 될것이다.

지난봄, 그는 갑자기 산언덕우의 폴발로부터 농장지휘부로 불리워왔었다. 그는 농립모를 들고 안절부절 못하며 《정치처》라는 문패가 붙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동부주임이 그에게 문건 한장을 읽어주었다. 그리고나서 부주임은 지난 시기 그를 우파로 규정한것은 잘못된것이며 지금은 그것을 바로잡고 그를 농장학교 교원으로 임명하였다는것을 말해주었다. 동부주임의 얼굴은 엄숙하고 무표정하였다. 아까부터 떠돌고있던 파리 한마리가 그냥 사무실안을 뒹뒹거리며 날아다녔다.

때론 바람벽에 붙기도 하고 때론 서류장우에 앉기도 하였다.

동부주임은 파리 한마리에 눈독을 들이며 잡지책으로 그놈을 때려잡지 못해 안타까와하였다.

《가보라구, 열방에 있는 번간사한테 가서 파견장을 받아가지구 래일 학교에 가서 수속을 하게.》

파리가 마침 사무책상우에 앉았다. 잡지책이 《딱!》 소리를 내었다. 그러나 파리도 교활한놈이여서 날쌔게 날아가내렸다. 동부주임은 또 실망하여 의자에 앉았다.

《이제부터는 일을 더 잘하면서, 다시는 파오를 범하지 말라구, 알겠나!》

이 뜻밖의 소식앞에서 그는 전기에 닿았을 때처럼 얼떨떨해지고말았다. 그는 이 조치가 국가정치생활에서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며 자신의 생활에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게 되는가를 다는 리행하지 못하고있었다. 지난 시기 그는 이런날이 오게 되리라고는 잡혀 상상조차 못하였었다. 그러나 그는 가슴속에서 행복감이 끊임없이 부풀어오르는것을 느꼈다. 기쁨은 마치 혈관속에 퍼지는 알콜처럼 그의 온몸에 확 퍼져 얼떨떨해진 그를 대번에 흥분속에 몰아넣었다. 그는 목구멍이 말라들었고 다음엔 온몸이 가볍게 떨렸으며 나중엔 눈물이 막을길 없이 솟구쳐올라 끝내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묵직한, 산골짜기의 메아리와도 같은 울음소리를 터치고야말았다. 이 정경은 엄엄하고 무표정하던 동부주임마저 감동시켜 급기야 그에게 손까지 내밀게 하였다. 두손으로 동부주임의 손을 감싸친 그는 이때에야 비로소 어렵풋하게나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로부터 그는 또다시 남색천으로 지은 제복을 입고 옆구리에 교과서를 끼고 손에 분필을 들고 교실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22년전의 그 아름다운 꿈을 다시 잇게 되었다.

농장의 종업원들은 그닥 잘 사는편이 못되어 적지 않은 어린이들이 헌옷을 입고 학교에 나왔다. 교실안에서는 땀냄새며 흙냄새, 건조한 햇빛냄새가 뒤범벅이 되어 풍겼다. 아이들은 허름한 책상을 앞에 놓고 앉아 천진관만한 두눈을 크게 뜨고 이상한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고있었다. 방금전까지 말을 방목하던 사람이 자기들의 선생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아이들은 그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 결국 그가 그 무슨 특출한 공헌을 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지어 자기가 하는 일이 사회주의를 위하여 복무하며 《네개현대화》를 위하여 복무하는 일이라고는 감히 생각도 못하였다. 그는 그런 일은 영웅들이나 할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다. 그는 다만 자기의 초소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직책을 다했을뿐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일했기때문에 그도 아들의 존경을 받았던것이다. 베이징으로 나오던 그날 아침, 그는 아이들이 학교로 오는 길에 늘어서서 그가 탄 마차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아마 그들도 그가 외국에 있는 아버지를 찾았다는 소문을 듣고 부자가 된 아버지를 따라 외국에 가려나보다 하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들은 저마끔 석별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물기어린 눈으로 그가 탄 마차가 군간교를 지나고 백양나무 숲을 지나 거치른 들판 저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묵묵히 바라워주는것이였다. ...

언젠가는 방목공들이 10여리나 떨어진곳에서 그를 보러 온적이 있었다. 그 늙은 방목공은 벌써 여든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오금이 성성했다. 그는 구들에 앉아 허령군의 《현대한어사전》을 들고 쓸어만지면서 말하였다.

《학문이 있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군! 나같은건 이렇게 두터운 책을 한평생 봐두 다 못보겠는걸!》

《이건 사전이외다. 모르는 글자를 찾아보는 책이란말이에요.》 《곽대포》가 그에게 말하였다.

《원, 그렇게두 잠잠이라구야!》

《하긴 그래. 한평생 까막눈으로 살다보니 영화를 봐두 제목두 모르면서 그저 그림책 보듯룩한 다니까.》

방목공들은 저마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 문화적 소양을 쌓아야 한다는것을 절실히 느끼고있었다.

《월해먹든 글을 알아야겠더군! 저번에 난 가족한테 약을 쓴다는것이 하마트면 외용약을 입에 넣어줄뻔했다니까!》 《곽대포》가 말하였다. 《<우동무>, (우파라는 뜻에서 이렇게 부름) 자넨

우리한테서 나온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다했지만 우리 애들을 자네한테 맡기려네...》

《암, 그렇구말구.》 늙은 방목공이 말하였다.

《자네가 내 손주녀석두 이 두툼한 책을 줄줄 읽을수 있게 가르쳐내야만 풀밭에서 함께 덩굴던 친구의 의리를 다하는걸로 돼...》

비록 유식하게 하는 말은 아니였지만 이러한 말들은 그가 하는 일의 의의를 형상적으로 말해주고 있었으며 그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더욱 명확히 가질수 있게 하였다. 그는 그들의 몸에서 풍기는 말땀내며 한껏 물기를 머금은 풀냄새며 거세찬 대자연의 숨결을 느낄수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도 낮익고 친숙한 느낌들만 가져다주었다.

그것은 아버지와 미쓰 송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그런 압박감과는 전혀 다른것이였다.

그는 방목공들의 눈에서, 학생들의 눈에서, 함께 일하는 동지들의 눈에서 자기의 가치를 보았다. 남들의 눈에서 자기의 가치를 보는것보다 더 고귀하고 더 행복한것이 어디 있겠는가?

4

오전에 그와 미쓰 송은 아버지를 따라 왕부정 거리에 놀러 나갔다. 그는 자기가 이제는 도시생활에 적응되지 않는다는것을 깨달았다. 이곳의 길들은 세멘트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있어 농촌길과 달리 밟으면 푹신푹신한 감을 주지 않았다. 거리에 씩씩이 오고가는 사람들은 낮도 코도 모르는 사람들인데다가 흥성거리긴 해도 쌀쌀하기 그지없었다. 게다가 사망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소음에 신경이 약해질대로 긴장해진 그는 인차 지쳐버렸다.

공예품상점에서 아버지는 6백원짜리 돈표 한장을 내고 정교한 공예품인 경덕진의 무늬박이자기 그릇 일식을 예약하였다. 그러나 평균은 도리어 여기서 2원 얼마짜리 김치단지 하나를 골라잡았다. 둘째에 황갈색 꽃무늬로 옛맛을 돌군 감쪽한 김치단지는 한나라시기의 묘에서 출토된 문물 같았다. 이 예쁘장한 가정용구는 서북지방의 작은 현성들에서는 구경도 못하는 물건이였다. 수지는 일찍부터 모양을 제대로 갖춘 김치단지가 하나 있었으면 하고 바랐었다. 수지는 껌하면 자기 고향의 김치단지 자랑을 했다. 지금 집에 있는것은 다른 사람이 섬서에서 안고 온것을 수지가 여러날 밤을 패면서 기워만든 신바닥 다섯컬레와 바꾸어 온 토기제품인데 벌써 바깥으로 시뻘뻘하게 소금기가 습새어나와 참으로 보기 흉하였다.

《허선생의 부인은 모름지기 무척 예쁠거예요.》 객실로 돌아오자 미쓰 송은 교태를 부리면서 그에게 웃으며 말하였다. 《허선생이 부인을 그렇게

게까지 사랑하니 질투심이 다 나는걸요!》

미쓰 송은 오늘 또 옷을 갈아입었었다. 붉은색과 검은색이 얼룩덜룩한 속적삼위에 연한 자색 모세타를 입고 밑에는 회색빛이 나는 얇은 라라지치마를 받쳐입었다. 가을 햇빛을 받아 그의 몸에서는 소형화향기가 더욱 짙게 풍겼다.

《혼인이란 언제나 일종의 조약과 의무와 같은 거지.》

아버지는 한쪽옆에서 한숨을 쉬면서 천천히 커피잔을 젓고있었다. 아마도 자기의 과거가 련상되는 모양이었다. 그는 생각깊은 어조로 다시 말을 이었다.

《안해와 정이 있건 없건 이 조약과 의무를 끝까지 지켜야지. 그렇지 않았다면 마음이 편치 못하구 고통속에서 모대기면서 후회하게 된단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너만이 아니라 네 처와 딸까지 다 데리고 갈 작정이다.》

《그럼, 허선생, 어서 선생의 그 로맨스나 이야기해주세요. 네?》미쓰 송은 다시 말을 이었다. 《선생의 련애사는 꼭 감동적일거예요. 저는 선생과 같은 미남자한테 따르는 녀자가 없었으리라고 믿어 지지 않아요.》

《나한테 무슨 련애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거북스럽게 빙긋이 웃었다. 《우린 결혼할 때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으니 무슨 로맨스 같은건 말할나위도 없지요!》

《아! 그래요?》

미쓰 송은 갑자기 과장기가 섞인 놀라움을 표시하였고 아버지는 다시한번 이해할수 없다는듯이 어깨를 으쓱하였다.

그는 자기가 수지와 결혼하게 된 과정을 그들에게 상세히 이야기해주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런 비정상적인 결혼방식의 배경에는 하나의 큰 재난이 깔려있었다. 이 재난은 민족의 치욕이었다. 그들에게 그것을 말해준다면 오히려 그가 마음속으로 신성한것이라고 여기는 그것마저 조소의 대상으로 될수도 있었다. 그는 주저하지 않을수 없어 생각에 잠기며 묵묵히 커피를 마셨다.

커피는 쓰면서도 달콤하였다. 그러나 이 달고 쓴맛은 갈라놓을수도 없다. 달고 쓴 맛이 섞여있기에 어렵듯 특이하게 사람들을 흥분시키며 황홀경으로 이끌어가는 향기로운 별미를 내는것이 아니겠는가.

아버지와 미쓰 송은 커피의 오묘한 맛을 가려낼줄은 알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인생의 복잡다단함을 다 이해할수 있겠는가? 그 동란의 년대엔 혼인도 생활의 다른 측면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정상적인 궤도에서 완전히 벗어나 맹목적인 우연성에 의하여 이루어지곤하였었다. 그들은 다만 우연성가운데서 황당한 일면만을 보아낼 것이며 그 우연성도 일종의 기이한 운명을 날게 할뿐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행복을 문득 사람

들에게 가져다줄수 있다는것을 체험해보지 못하였을것이다. 그들은 또한 어려운 환경속에서 뜻밖에 맞이한 행복일수록 더 진귀하다는것을 모를것이다. 그와 수자와의 기이한 결혼은 후날 그들이 함께 추억할 때마다 매번 처량하면서도 불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곤하였는데 이런 감정을 어느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것이다.

1972년봄 어느날 오후였다. 그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짐승들에게 물을 먹인 다음 말우리문을 잘 닫아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가 금시 채찍을 세워놓았을 때였다. 《팍대포》가 문안에 뛰어들며 떠들어대었다.

《여보게 <우동무>, 자네 장가들지 않겠나?》《팍대포》는 흥이 나서 말하였다. 《자네가 색시를 얻겠으면 입만 떼라구. 저녁에 자네한테 보내줄테니...》

《그럼 보내주게나.》

그는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그는 《팍대포》가 자기에게 통달하는줄로 알았었다.

《좋아! 자네두 사나이니까 한입으로 두소리야 안할테지. 그럼 준비하구있으라구. 녀자쪽 증명서는 다 있네. 자네의것은 내 방금 입자네 당서기한테 말해줬네. 당서기가 하는 말이 자네만 동의하면 제가 당장 증명서를 떼주겠다고 장담했네.》

됐어, 내 자네 대신 증명서를 떼가지구 집으로 가던길에 농장지휘부에 들려 정치처에 주겠네. 돌아올 때 곧 처녀를 데리고 올테니 자네 오늘밤엔 동방화촉의 밤을 맞게나!》

날이 어두워졌을 때였다. 그때까지 나무의자에 앉아 《해방군문제》를 들여다보던 그는 바깥에서 아이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를 들었다.

《<우파>색시가 온다! <우파>색시가 온다!》

뒤따라 문이 벌컥 열리더니 《팍대포》가 또 아까처럼 후닥닥 뛰어들었다.

《일이 제대로 됐네! 내 자네 술은 못마셔두 물이야 마실수 있겠지? 예, 혼썰이 났군! 오후에 말이 많도록 30리길을 뛰어다녔네그러.》

그는 손을 뻗쳐 뿔통안에서 물 한바가지를 떠서 꿀꺽꿀꺽 마시었다. 그리고는 소매로 입을 뻗문지르고나서 문밖을 향해 소리쳤다.

《동무! 왜 들어오지 않소? 어서 들어오라구. 어서! 이젠 이제 동무네 집이요. 들어와 인사나 하라구. 이 사람이 내가 말하던 <우동무>요 본래 이름은 허령균이구... 뭐나 다 좋은데 좀 가난한게 흠이랄지... 허지만 가난한걸 영광으로 생각해야지!》

이때에야 그는 문밖 아이들앞에 낯선 처녀가 서있는것을 보았다. 잔뜩 구겨진 회색옷을 입고 손에 자그마한 흰 보통이 하나를 든 처녀였다. 처녀는 정말 이곳에서 살 차비이거나 한듯이 먼지와 그윽음이 가득 낀 방안을 뺨담하게, 그러면서도 세심히 살펴보는것이였다.

《이… 이럼 됩니까!》 그는 깜짝 놀랐다. 《롱담을 해두 지나친 롱담을 하는군요!》

《왜 안된다구 그러나? 자네 똑똑히 놀라구.》
《곽대포》는 호주머니안에서 종이 한장을 꺼내 들고 《딱》 소리가 나게 구들가에 내리쳤다. 《결혼 증명서까지 떼왔네. 이진 법률이야. 법률이라는 걸 자네도 알테지? 난 정치처에다 자네가 나한테 부탁하고 방목하러 떠났기에 내가 대신해서 떼 간다구 말했네. 자네가 이제 와서 손을 털고 나갔다면 인사가 안되지. 들었나. <우동무?>》

《어떻게 이럴수… 이럴수가 있습니까?…》 그는 두손을 벌리고 연방 《곽대포》에게 물었다.

처녀가 들어왔다. 처녀는 방금 그가 앉아있던 나무결상에 앉았다. 두사람이 주고받는 말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라도 한듯이

《어떻게 이럴수 있는가? 임자네 량주의 일을 나한테 물으면 난 누구한테 물으라는건가?》《곽대포》는 《법률》을 구들 안쪽에 더 깊이 밀어놓으며 말하였다. 《됐네. 잘 살라구! 명년에 귀염둥이가 생기면 잊지 말고 나를 청해서 술 석잔을 대접하라구.》 그는 문개로 걸어나가더니 두손을 벌리고 병아리들을 쫓듯이 아이들을 쫓았다. 《이 녀석들 보긴 뭘 봐? 너희 아버지와 엄마가 잔치하는 걸 못봤어? 못봤으면 아버지,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가자, 가자, 가자!…》

《곽대포》는 손을 내저으면서 아이들을 물고갔다.

어슴푸레한 등불밑에서 그는 슬그머니 처녀의 모습을 훑쳐보았다. 인물은 그다지 밍지 않았다.

오목한 코언저리엔 두근깨가 다문다문 박히고 머리칼은 누르끼레한게 광택이라곤 조금도 없었다. 피곤이 몰릴대로 몰린 그의 얼굴은 초췌해보이기까지 했다. 이런 그의 모습을 일별해본 그는 문득 불쌍한 생각이 들어 고뿌에 물을 떠다가 깨우에 놓으면서 말하였다.

《마시우. 그렇게 먼길을 오느라구…》

처녀는 머리를 들고 진정이 어린 그의 눈길을 마주보더니 묵묵히 물 한고뿌를 다 마시었다. 그는 다소 원기를 회복한듯 곧 구들우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앉아 이불을 포개여놓았다. 그리고 나서 령균의 바지를 끌어당겨 해어진 무릎쪽을 자기의 허벅다리우에 퍼놓고 들고온 보통이를 끌러 네모난 남색천과 바느실을 꺼내더니 고개를 수긋하고 깎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바느질숨씨가 여간만 찬찬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바느질 동작에는 어딘지 모르게 억눌려온 노여움이 섞여있었다.

이 노여움은 그의 몸에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끝에서, 정리되고있는 물건에서 표현되는 것 같았다. 외모가 아련한 그가 방안을 거두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환해지고 운기가 돌았다. 그의 날랜 손가락이 이불과 담요, 의복우에 가닿자 마치 음향이 서로 다른 악기의 건반을 눌렀을

때처럼 방안에 잘 화음된 음악이 런던아 울리는 것이었다.

문득 그는 그날의 그 절파말 생각이 나서 마음 속에 짜릿한 흥분을 느꼈다. 그에게는 처녀가 낯설어 보이지 않았으며 다년간 그를 기다려온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여직껏 가져본 적이 없는 이 야릇한 느낌은 마침내 그를 꺼꾸러뜨려 그라 하여금 처녀옆에 가앉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는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는 자기가 정말 행복을 얻었는지 감히 믿을 수 없는데다가 이 요행수에 가까운 일이 그 어떤 새로운 불행을 가져다주지나 않겠는지 근심스러워 또다시 손바닥안의 어둠속에서 이 신기한 감정을 꼼꼼히 음미해 보려고 애썼다.

이때 처녀가 바느질손을 멈추었다. 처녀의 귀전엔 이 사람이야말로 한평생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각이 속삭여주는 것만 같았다. 처녀는 그가 조금도 낯설지 않은 듯 스스로없이 한쪽손을 그의 구부정한 잔등우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그리하여 두사람은 흰 마대를 깐 구들가에 앉아 날이 밝을 때까지 소곤소곤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수지는 본시 사천성사람이었다. 몇해동안 그 비옥하고 물산이 많은 고장이 떠들썩하는 바람에 시금풀도 못먹는 형편이 되어 굶주린 농민들은 부득불 외지로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처녀들은 비교적 쉽게 뜰 수 있었다. 외지에서 마음내키는 대로 대상을 찾아 출가해버리면 그만이었기 때문이다. 한마을에서 처녀하나가 외지에 나가 가정을 이루면 그가 고향의 언니, 동생별 되는 처녀를 죄다 끌어갔다. 이렇게 되어 술한 처녀들이 줄을 지어 그 가련한 작은 보통이 하나를 쫓겨 들고 정든 사천땅을 떠나 양평관을 빠져나와 진령을 넘어 셀수없이 많은 길고 짧은 차굴을 지나 섬지로, 감숙으로, 평해로, 녕하로, 신강으로 갔다. 집에서 로자를 가지고 떠난 처녀들은 차표를 사고 돈이 없는 처녀들은 한정거장 한정거장 몰래 도적차를 타고 가야만 하였다. 그들은 보통이안에다 기운 옷가지 몇벌과 손거울과 나무빗을 싸넣었을 뿐인데 이런 행장들에 의존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아름다운 청춘을 밀천으로 삼아 이 인생의 도박장에 운명을 내맡기는 것이었다. 여기서 이기면 그들은 행복해지고 지면 일생을 망쳤다.

령균이 살고있는 이 지구의 농장에서도 일찍부터 이런 서퍽짜리 혼인이 성행하고있었다. 결혼하지 않은 총각들과 홀애비들은 레장감때문에 이 고장 처녀들에게 장가들 형편이 못되면 사천땅에서 온 아낙네들을 찾아가 중매를 서달라고 하였다.

사천땅에서 온 이런 아낙네들은 술한 인사문서 쪽지를 가지고있기라도 한 듯 아무나 생각해내여 곧 오라는 편지 한통을 띄운다. 그러면 그의 부름을 받은 처녀가 와서 대상자와 결혼하게 되는

것이였다. 수지도 그렇게 불리워온 처녀중의 한 사람였다. 수지의 대상자는 7생산대의 프락포르 운전수총각이였다. 그런데 그가 대대의 증명서를 주머니에 넣고 고생스럽게 한 정거장 한정거장 기차를 옮겨타며 이 농장까지 와보니 그 젊은이는 사흘전에 차가 뒤집혀져 불우하게도 목숨을 잃고말았다. 그는 화장터에도 가보지 않았다. 가 볼 필요조차 없었다. 서로 아무 정도 주고 받은 것이 없었기때문이였다. 그는 속이 좋지 않아 동향아주머니네 집에도 가보지 않았다. 그 집도 남편이 불구의 몸이 돼버린데다가 결혼한 이듬해에 아이까지 낳아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7생산대의 말우리앞에 멍하니 앉아 해시게처럼 천천히 움직여가는 자기의 그림자를 보고있었다.

《파대포》가 점심참에 주전자를 들고 말우리로부터 운물 뜨러 오다가 그의 딱한 사정을 듣고 말뚝을 풀판에 버려둔채 그에게 살길을 열어주려 집집을 찾아다녔다. 7생산대에는 독신자가 세사람밖에 없었다. 그들은 제마끔 말우리앞에 와서 선을 보았으나 몸이 약하고 키가 작은 이 처녀가 마음에 찔리 없었다. 나중에는 《파대포》는 벌써 서른네댓살 난 령균에게 생각이 미치게 되였다.

그는 바로 이렇게 되어 수지와 결혼하게 된것이다. 이것이 그의 로맨스였다!

《<우동무>가 결혼을 했다!》

이것은 생산대의 큰 경사였다. 《혁명을 틀어잡고》 동분서주하던 사람들도 파쟁의 부대낌속에서 잠시 벗어나 어느 사람들과 함께 여직껏 그 어느 일파에도 속한적이 없고 누구에게도 손해를 준적이 없으며 줄곧 성실하게 《생산만을 다그쳐온》 이 《우파분자》에게 동정심을 표시하였다.

사람에게는 필경 인간성이라는것이 있기마련이다. 그들은 령균에게 안겨준 온정속에서 자기들도 남모르게 그 온정을 느꼈으며 《털끝만치도 손해를 보지 않은》 혁명속에서도 자기들이 아직 인간성을 깡그리 잃지 않고있다는것을 자각하게 되였다.

그들중 어떤 사람은 그에게 가마를 가져다주었고 어떤 사람은 몇근 잘되는 식량을 가져다주었으며 어떤 사람은 몇자 잘되는 천표를 가져다주었다. ... 한 젊은 수의사의 발기에 의하여 매 집에서 돈 50전씩 모아주어 그가 살림을 꾸리는 밑천으로 쓸수 있게 해주었다. 심지어 당지부회의에서도 문화대혁명이래 한번도 있어본적이 없는 통일이 이루어져 그에게 규정대로 3일간의 혼인휴가를 주자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되였다. 사람은 필경 아름다운 존재임이 틀림없다. 설사 암흑의 세월에 살고있을지라도!

그들은 마을사람들이 베풀어준 이런 동정심을 가슴뜨겁게 받아안고 자기들의 살림을 꾸리기 시

작하였다.

수지는 원래 락관적이며 근면한 녀성이였다. 그는 고향 소학교에서 두해밖에 공부하지 못하였기때문에 생활을 시적으로 감수할줄은 몰랐다. 그가 온 이튿날저녁에 이동영사대가 건조장에서 《1918년의 레닌》이라는 영화를 상영하였다. 이때로부터 와썰리의 한마디 대사가 그의 입에 오르게 되었다

《빵도 생기고, 우유도 생길거예요.》

그는 노상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곤하였다. 그가 웃을 때면 가느다란 눈썹밑에서 반짝이는 작은 눈이 초생달처럼 휘어들면서 가늘어졌고 게다가 랑볼에 작은 보조개까지 살짝 패우곤하여 남다른

매력이 있었다.

령균은 말을 방목하느라고 낮에는 집에 있지 않았다. 수지는 혼자서 한낮의 피약별을 받으며 흠을 이겨가지고 천여장의 토끼를 찍어내였다. 그리고나서 해별에 잘 말리워 손달구지로 여러번 끌어다가 집앞에 3면으로 울타리를 둘러쳤다. 온 나라 9백 60만평방키로메터의 땅가운데서 그는 18평방메터의 땅을 툭 떼내어 자기의 소유물로 만들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고향에서는 집집마다 문어구에 나무를 심어놓았어요. 문을 나서자 하늘이 보이는 집이 어디있겠어요.》

그리하여 그는 또 벌판에서 사발통만치 굵은 백양나무 두그루를 떼가지고 놀라운 힘으로 끌어와 프락 좌우켄에 심어놓았다. 프락이 번듯하게 꾸러지자 그는 가금을 기르기 시작했다. 그는 닭도 치고 오리나 게사니도 길렀으며 토끼도 길렀다. 나중엔 비둘기까지 여러쌍 길러 사람들로부터 《륙해공군 총사령관》이라는 별명까지 받았다.

국영농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집에서 돼지를 기르지 못하게 하였다. 그에게는 이 일처럼 맹랑하고 섭섭한 일이 없었다. 그는 배개를 베고 누워서 늘 령균에게 꿈에 보니 자기가 기르던 돼지가 벌써 퍼그나 컷더라고 말하곤하였다.

그들이 살고있는 이 외진 농장은 썩은 물이 피여있는 웅덩이와 같은 고장이여서 책임자가 정확한 정책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였고 그릇된 현상과의 투쟁도 잘하지 않아 비록 《자본주의의 꼬리를 자르는》것과 같은 압력이 있었으나 수지는 생활력이 강한 작은 풀포기처럼 돌들에서 자기의 푸른 줄기를 내뻗치고있었다.

그가 기르는 꼬마동물들은 요술사의 상자안에서처럼 번식을 매우 빨리 하였다. 《빵도 생기고 우유도 생길거예요.》라고 그들의 생활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그들의 로임은 비록 얼마 되지 않았지만 넉넉히 먹고 입을수 있었다.

수지는 사회발전법칙을 역전시켜 남들이 공산

주의로 넘어간다고 웨치고있을 때 자기는 집에서 상품경제를 자연경제로 되살려놓았다. 모든것이 수지의 손을 거쳐 생산되고있었다. 수지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닭, 오리, 계사니, 비둘기들도 그를 따라 집으로 돌아왔다. 딸 청청은 그의 잔등에 업혀오고 닭, 오리, 계사니들은 그의 발부리에 휘감겨오고 비둘기는 그의 어깨우에 올라앉아 왔다. 이어 곧 야궁에 장작불이 피고 가마에 물이 끓는속에서 《운수학(천하를 다스리는 법)》을 배운적도 없는 그였지만 천개의 손을 가진 관음보살처럼 당황해하거나 덤비지 않고 선후차를 가려 빈틈없이 일들을 처리해나갔다.

이 시금풀을 먹고자란 녀인은 그에게 여직껏 누려본적이 없는 가정의 온기만을 가져다준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생명의 뿌리를 이 땅에 더 깊이박게 해주었다. 그 뿌리가 섭취하는 영양은 다름아닌 그들자신의 로동이었다. 수지와 그의 결합은 이 땅에 대한 그의 감정을 더욱 굳건히 해주었으며 그로 하여금 로동을 기본으로 하는 생활방식의 단순성과 순결성과 정당성을 더욱 똑똑히 느낄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자기가 여러해 전에 그토록 바라던 그 즐거운 생활을 되찾게 된 것이었다.

동부주임이 그의 문제가 바로잡혔다는것을 선포하던 그날, 그가 파견장을 떼고 또 재정과로부터 정책의 규정에 따라 지불되는 보조금 5백원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그 전달을 수지에게 말해줄 때 수지의 얼굴에는 야릇한 빛이 어리었다. 그는 앞치마에 손을 깨끗이 문지르고는 빨갛거리는 새 돈을 한장한장 세여보는것이였다.

《여보 수지, 오늘부터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처지가 같아졌소!》 그는 집안에서 세수하면서 부엌칸에 있는 수지에게 흥분어린 목소리로 웨쳤다.

《여보, 수지, 당신은 왜 말이 없소? 거기서 뭘 하오?》 수지가 웃으면서 말하였다. 《난 똑바로 세지두 못하겠군요! 벌써 몇번째 세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요!》

《원 당신두 참... 그까짓 돈은 세서 뭘하우? 내가 정치적으로 다시 태어난걸 기뻐해야지...》

《왜 자주 정치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해요! 내 보기엔 당신이 당신대로 그냥 있는데! 이전엔 당신을 우파라고 하더니 반생이 지난 오늘은 또 당신을 잘못 처리했다구 하구. 잘못처리했다구 말을 하면서두 또 당신더러 다시는 파오를 범하지 말라고 하니 무슨 감투끈인지 어디알겠어요! 도대체 무슨 파오를 다시 범하지 말라는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어떻게 살구 오늘은 또 어떻게 살구있어요. 돈이 생겨서야 겨우 허리를 펴지 않았어요. 제발 저를 건드리지 말아요. 돈이나 다시 좀 잘 세여보게말예요.》

그렇다, 그보다 15살 어린 수지는 여직껏 그에게 남과 무슨 다른 점이 있다고 본적이 없었으며

그 순박한 견해를 영원히 간직해가게 될것이다. 무슨 우파요 우파가 아니요 하는 개념은 그의 작은 머리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가 좋은 사람이며 성실한 사람이라는것만 알면 그만이었다.

수지는 함께 일하는 녀인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청청이아버진 너무 어리무던해서 고생살이를 한 사람이라우. 엉뚱이를 차도 먼지만 풀썩 할 사람이니 승냥이가 뒤쫓아온대두 안타까울게 없지요. 이런 사람을 업신여기면 정말 대를 물려가면서 화를 입을거예요!》

그렇다, 수지는 돈을 몹시 귀해하였다. 평소에 푼돈도 쪼개 쓰지 못해 안타까와하는 그였다. 이 보잘것없는 5백원에도 그는 매우 만족하였다. 그의 손가락은 떨렸으며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어리었다. 그러나 그는 시아버지가 돈 많은 《외국자본가》라는것을 알았을 때 오히려 돈소리를 한마디도 입밖에 내지 않고 다만 그에게 차일 답알을 많이 가져다 아버지에게 대접하라고만 하였다.

수지는 일곱살 난 청청이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었다.

《돈은 제가 벌어서 써야 쓸 재미가 있구 마음도 편하단다. 내가 소금을 사온건 닭알을 팔아서 번 돈이구 고추를 산건 버가을해서 번 돈이구 너한테 책을 사다준건 마당질할 때 시간을 연장하여 번 돈이구...》

그에게는 그 무슨 추상적인 리론도 그 무슨 심원한 철리도 없었다. 그러나 이런 소박하면서도 명백한 리치에 맞는 말들은 이 집에서 제일 작은 성원, 청청이도 곧잘 알아듣는 것이었다. 즉 로동은 고귀한것이다. 로동에 의한 보수만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는것이다. 남을 등치거나 남의 힘을 빌어 얻은 돈과 재물은 일종의 치욕이다! 라는것을 수지는 노래할줄을 모른다. 청청이가 나서 한달되었을 때 그들 세식구는 현성으로 가는 트럭을 타고 은 현에 하나밖에 없는

사진관에 가서 가족사진 한장을 찍었다. 현성의 거리에는 얼음파자를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목청을 돌구어 《빙- 굴! 빙-굴!》(중국어말로 얼음파자를 빙굴이라고한다.) 하고 얼음파자를 사라고 웨치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빙-굴!》이라는 말은 수지의 자장으로 되었다. 그는 청청을 다독여 잠재우면서 서북사람들의 말투를 본따 조용히 노래부르곤하였다.

《빙-굴! 빙-굴!...》

그 단조롭고 유원한 꿈의 환상처럼 달콤한 노래소리는 비단 청청이만을 꿈나라로 이끌어갔을 뿐아니라 옆에서 책을 보고있는 그마저 소박한 행복감을 지니고 원시적인것에 가까운 순수한 미

의 세계에 빠저들게 하였다.

왕부정거리에도 얼음과자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얼음과자를 사라고 웨치지 않고 점방안에만 무표정하게 앉아있으니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는 그 꿈의 환상처럼 달콤한 자장가를 되새겨보았고 《빵도 생기고 우유도 생길거예요.》라는 낙관적인 정신을 담고있는 그 보조개를 그려보았다.

아니. 그는 여기에서 멍청히 있을수 없었다. 그는 돌아가고만싶었다. 거기에는 그가 환난을 겪을때 도와준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그의 도움을 바라고있다. 거기에는 그의 땀방울이 스민 땅이 있으며 그 땀방울은 지금 가을걷이를 하고 난 벌판에서 눈부신 빛을 뿌리고있을것이다. 거기에는 한생을 같이하기로 한 그의 안해와 딸이 있고 거기에는 그의 모든것이 있으며 거기에는 그의 생명의 뿌리가 있다!

5

그는 끝내 돌아왔다. 끝내 이 낮익은 작은 현상으로 돌아왔다. 정거장앞에는 온 현에 하나밖에 없는 아스팔트길이 뻗어있다. 그우에는 여전히 누런 먼지가 두툼하게 깔려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상점과 은행, 우편국 문앞으로 휘몰아쳐왔다. 길 건너편의 그 타면기는 그가 떠난후 한번도 밟은적이 없다는듯 여전히 단조로운 음향을 쿵쿵 울리고있었다.

정거장 문앞에는 순두부국을 파는 사람, 기름빵을 파는 사람, 수박씨를 파는 농민들이 빼곡이 들어앉았고 길 좌우쪽에는 이리저리 기울어져가는 토벽집들이 늘어섰는데 어떤 집 문우에서는 한 옛날부터 내려온듯한 꽃무늬 도리를 볼수 있었다. 새로 짓는 극장은 여전히 열기설기 묶은 발대속에 서있었는데 술한 건설자들이 아직도 그 주변에서 바빠 돌아치고있었다.

그러나 차에서 내린 그는 락하산을 타고 땅에 내린것만 같았다. 그의 발은 또 진짜 땅을 짚었던것이다.

그는 이 땅의 모든것, 지어 그의 부족점까지 사랑하고있었다. 그것은 그가 자기의 생활을, 지난날의 고통까지도 포괄되어있는 자기의 생활을 사랑하고있는것과도 같이...

황혼무렵, 그가 탄 마차는 원래 그가 살던 생산대옆을 지나고있었다. 기울어져가는 해빛이 엷비듬히 비치면서 마을과 마을안에 사는 사람들을 희미한 장미빛으로 물들였다. 수지가 심은 두그루의 백양나무는 토벽집 지붕우에 높이 솟아 고요히, 까딱 움직이지 않고 서있었는데 그 모습은 흡사 집으로 돌아오는 그를 온 신경을 가다듬고 지켜보는것 같았다.

말들이 돌아오고있었다. 큰길을 건너가던 말도 그를 알아본듯 길 좌우쪽에 멍하니 서서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고있었다. 마차가 멀리 가

자 말들은 그제야 고개를 돌리고 느릿느릿 자기의 우리를 향해 걸음을 옮기는것이였다.

그의 마음속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이 솟구쳐올랐다. 그는 떠나기전에 아버지과 주고받은 말들을 되새겨보고있었던것이다.

그날저녁 그들 부자는 쏘파에 마주 앉아있었다. 비단잠옷을 입은 아버지는 허리를 구부정하고앉아 속이 타는듯 애국은 담배만 피우고있었다.

《이렇게 빨리 돌아가겠단말이냐?》 아버지가 그에게 묻는 말이였다.

《네, 학교에 가서 중간시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말하였다.

《이번에 와서 너를 보니 정말 기쁘다.》

아버지는 흥분을 가라앉히느라고 무진 애를 쓰고있었지만 아래입술은 가볍게 떨렸다. 《너는 아주 돼먹었구나. 이젠 아마 너에게 굳건한 신념이 있기때문일게다. 그것도 나쁘진 않다. 사람이 추구하는게 구경은 신념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나도 그걸 추구해왔다. 하지만 종교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줄수 없었다.》여기까지 말한 아버지는 더 말을 잇고싶지 않은듯 손을 흔들고 나서 하제를 단대로 돌려버렸다. 《작년에 나는 빠리에서 영문판 <모파쌍선집>을 읽은 일이 있는데 그속에는 한 국회의원이 젊었을 때 본 아들과 다시 만나는 이야기가 써어진 작품도 있었다. 그 아들은 후에 머저리가 되더구나. 나는 그걸 보고 온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후부터 나는 늘 네가 가련한 물골을 하고 내앞에 서있는것을 보는것만 같았다. 지금 네가 이렇게 잘사는 모습을 보니 나도 마음이 놓인다. 뜻밖에도 너는 확실히 내가 전혀 생각조차도 못했던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 ...》

어떤 사람으로 변했다는것인지 아버지는 끝내 알맞는 개념을 생각해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눈에서 저으기 안심하는 빛을 읽을수 있었다. 그는 자기들 부자가 모두 이번의 상봉과 리별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있으며 저마끔 자기에게 필요한것들을 얻게 되었다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아버지는 량심에 위안을 얻었다. 그는 이 관건적인 대목에서 자기의 반생을 돌이켜보았으며 그로부터 다소나마 인생의 의의를 깨닫게 되었다.

저녁해가 서산너머로 자취를 감추면서 굴뚝 해살을 뻗쳐 산정우에 저녁노을을 끄게 펼쳤다. 그 해살은 노을속에서 다시 굴절되어 산언덕의 들칸과 산밑 전야며 마을들에 사뻏히 내려앉아 차츰 부드러운 땅거미로 변해가고있었다. 학교가 점점 가까와지고 먼발치에서도 그는 마치 누렇게 황이든 대완풀밭 한복판의 맑은 호수와도 같은 학교운동장을 알아볼수 있었다. 저녁바람이 불어오

자 그의 가슴에 차오른 부드러운 정서도 차츰 일렁거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한줄기 난류가 되어 그의 온몸을 감돌았다. 그는 아버지가 그에게 굳건한 신념이 있다고 말하였지만 지금의 그의 정신상태를 다 이해하고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 어떤 이성적인 인식도 감성에 기초하지 않은것이라면 그것은 공허한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또 어떤 때엔 감정이 리념보다 더 중요한것이다. 그가 이 20여년동안 인생을 체험하면서 얻은 가장 고귀한것은 다름아닌 노동자의 감정이다. 여기까지 생각한 그의 눈엔 물기가 어리었다. 그는 자기자신에 대해 감동하였다. 그렇게도 간

고한 길을 그는 결코 헛되이 걷지 않았던것이다. 그는 마침내 학교를 보았다. 그의 집문앞에는 몇몇 사람이 모여서서, 큰길로 오는 마차를 바라보고있었다. 수지가 두른 흰앞치마는 부드럽고 창망한 저녁어스름속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별빛과도 같았다. 사람들은 갈수록 많이 모여들었다. 이윽고 그를 알아본 그들은 모두 큰길쪽으로 달려나왔다. 빨간 옷을 입은 딸애가 맨 앞장에 섰다. 그애는 마치 튕겨난 불덩이처럼 나는듯이 그에게로 덮쳐들고있었다. 달리면 달릴수록 그애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점점 가까이, 점점 가까이...

달이 뜨네

정영호

달이 뜨네

싱그러운 해풍에 씻기여

굽실오는 파도에 씻기여

크고 말쑥한 둥근달이

바다위에 솟네

한밤이 기울어도

휘황한 불야경의 바다

들끓으며 내달으며

잠들줄 모르는 바다

그 황홀함에 취해

갈길을 잊었느냐

가물막이언제우에 추억만의 불빛

금물결 은물결로 어리어

하도 부시여

네 빛살도 머뭇거리느냐

정다운 고향의 벚들

달밝은 동구밖까지 따라나서며

뜨겁게 손 흔들어주던

그 밤의 간절한 당부

이 밤에 다시 안고왔느냐

파도사나운 날바다를 막아

갑문언제 세워가는

그 모습이 보고싶어

그 모습을 새겨두고싶어

등글어 웃는 네 모습은

기쁨을 주고 새힘을 주며

이 마음에도 솟아

수령님 모시고

준공의 꽃보라 꽃바다로 설레일

그날의 환희로움을 안고

이 밤을 함께 지새우자고

이 밤을 함께 빛내이자고

네 마음 나를 안았는가

네 마음 너를 안았는가

아! 달이 뜨네

크고 말쑥한 둥근달이

가물막이언제우에 솟네

이 내 삶의 걸음걸음을

티없이 비추어보는

달아 너는 이 마음의 거울

달아 너는 불타는 이 마음의 맹세로 솟았구나!

한평생을 바쳐

최영화

벗을 들어 노래를 부르노라
태양의 노래를!
나는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
조선에 태어난 시인
나는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
충성으로 가슴 불태우노라

내 심장의 피를
끓는 쇠물과 같이
그토록 뜨겁게 함도
맺히는 새벽의 이슬방울같이
그토록 맑게 함도
티없는 순결한 마음으로
한생을 다해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이노라

인류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
미래의 태양이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아 부르고 부르고 부르다
한목숨 다하면
내 다시 태어나서라도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를 영원한 노패여!

조선은 태양의 나라!
가없이 푸른 하늘에
온 누리를 비치며
위대한 태양이 눈부시고
그 빛발로 끝없이 찬란한
미래의 태양이 빛나는 나라!

그러기에 이 땅에서는
흐르는 강물도 더 반짝이고
설레는 숲들도 더 푸르고
피는 꽃들도 더 아름답고
어데를 가나 밝음이 넘쳐
먼먼 미래까지도
공산주의봄동산도 오늘에 꽃피여라

우리의 이 자랑도
그 빛발을 안고
인류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대
주체의 새시대로 빛을 뿌리여라

력사여, 말하라, 언제 있었던가
인류의 머리우에 세월의 락엽이 지고 또 지고
세기들이 흘러 수천수만년...
한 하늘에
위대한 태양과 더불어
미래의 태양까지도 모신
이런 나라가 언제 있었던가
이런 인민이 언제 있었던가
이런 시대가 언제 있었던가

나는 길을 걸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때로 야자수 실레는 남방의 먼 땅우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후계자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 행복을
조선의 행복을 가슴뿌듯이 느끼노라!

그래서 나의 가슴에는
터치지 않고서는 순간도 살수 없는
태양의 노래!
끝없는 고마움에
한없는 영광에
우리 인민이 목이 메여 부르는
온 인류가 마음뜨거이 부르는
위대한 수령님의 노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노래!
언제나 이처럼 넘쳐나는것이 아니나

아! 나는 한생을
이 노래를 부르며 살고
나의 심장의 마지막 고동도
이 노래로 높이 뛰게 하리라!

위대한 영상

리맥

우러르면
언제나 미소 어린신 그 모습
나를 따뜻이 끌어보시여라
밤에도 낮에도
때없이 우리를 때면

내겐 생각되여라
내 이름을
그이께선 이미
기억해두신적 오래고
내 마음속 생각도
그이께선 벌써
다 꿰뚫어보고계신듯

인자하신 그 미소
영채도시는 그 눈길
그 무슨 말씀이 계실듯
그이 앞에선
허물없이 죄다 말씀드리고싶어라

효성을 다하지 못한 아들에게
사랑의 매를 드시며
주름잡힌 그 얼굴에
웃음부터 지어보이는
내 어머니앞에서처럼

백번을 깨우치고도
아직은 못다한 미숙한 일
레사로운 나날에조차
내 돌이켜보는
작은 뉘우침까지도

날에 날마다
우리모두의 생을 꽃피우시며
어머니의 그 사랑을 기율이시는
아.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언제면 그 언제면
내 전사된 도리를 다할것인가
맞고 보내시는
세월의 하많은 날에
슬픔이면 혼자 새기시고
기쁨이면 우리에게 주사는
아버이 마음

그 마음이시기에
깊은 밤 집집의 창문엔

안식의 정적이 깃들어도
그이의 창문가엔 불빛 밝아라

아, 우리 누리는
행복한 그 하루밤을 위하여
그이께서 새우시는
드바쁘신 밤은
백밤이런가 천밤이런가

이 땅우에 피어나는 모든것
삶도
운명도
미래도
그이의 사랑에서 시작되고
새로운 시대의
세기적인 기적도
그이의 믿음에서 이룩되여라

우러르면
미소 어린신 모습
빛을 뿜으시는 그 눈길
내 아이적에 꿈꾸던
천진한 공상도
다 이루어주실듯

내 오솔길을 모르고
삶의 길을 걸어가라
그이께선
내 가는 길에 비쳐주어라
값비싼 모든것
그것 없이는 살수 없는
빛과 따스함을

아직도
내 가는 앞길에
고난도 많으련만
그러나 두려울것 없어라
그 사랑
그 믿음 내 안고살기에

주체위업 완성하는
간고한 투쟁의 길우에
내 만약
격전끝에 쓰러진다 하여도
그이 품에 영원히 안겨있으리
자애로우신 그 미소
크나큰 사랑의 그 품에

새세대로동계급의 성격을 진실하게 그리자

리현순

우리 시대의 참다운 주인공의 전형틀을 창조하는 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새세대로동계급의 성격을 진실하게 그리는것이다.

새세대로동계급의 성격을 진실하게 그리는것은 로동계급대렬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문학에서 로동계급의 형상창조문제를 옳바로 풀어나가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로동계급대렬에서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해방후 새로 자라난 세대들이 로동계급대렬의 골간을 이루고있습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 역사적위업이며 이 과정에 세대교체가 일어나는것은 합법칙적이다. 오늘 우리 나라 로동계급대렬에서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세대들이 로동계급대렬의 골간을 이루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작가들앞에 오랜 로동계급과 함께 새세대로동계급의 형상을 창조할데 대한 절박한 과제를 제기하고있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작품은 새세대로동계급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여야 사회주의문학예술의 본성적요구로 되는 로동계급의 형상창조문제를 옳바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우리 문학의 로동계급적 성격을 확고히 고수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나갈수 있다.

새세대로동계급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특히 우리 문학이 긍정적주인공의 전형을 통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워내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 영예로운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구로 된다.

청년들은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며 앞날의 주인공들이다. 우리 혁명의 전도와 조선민족의 장래가 청년들에게 달려있다. 혁명의 전진과 더불어 이제는 자라나는 세대들이 혁명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는 오늘, 그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키우는것은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나서는 중대한 사업이다.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긍정적주인

공, 특히 새세대로동계급의 형상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새세대로동계급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함으로써만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힘있는 사상적무기로서의 자기의 승고한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새세대로동계급의 아름다운 성격적풍모를 진실하게 그리기 위하여서는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속에서 발휘되는 그들의 고유한 성격을 깊이있게 그려내는것이 중요하다.

청년들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적이며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정의와 진리를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용감하게 투쟁하는 생기발랄한 세대이며 끊임없이 전진하는 세대이다. 혈기왕성하고 창조적정열에 불타는 새세대로서의 고유한 특성을 이루는 진취성, 민감성, 대담성, 용감성 등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발현된다. 그러므로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속에서 발파되는 그들의 고유한 성격적특성을 파고들어 깊이있게 형상화하는것은 새세대로동계급의 성격을 진실하게 그리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로 된다.

중편소설 《병사의 고향》에서 태삼이의 형상은 새세대로동계급의 고유한 성격,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깊이있고 진실하게 그려낸 좋은 실례로 된다.

소설은 태삼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이 당의 부름을 받들고 달려온 새로운 초소,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의 하나인 탄광을 무대로 설정하고 거기에서 가지게 되는 인물들의 각이한 견해와 립장을 통하여 태삼의 고유한 성격적특질을 살려내고 있다.

《……………

물론 우리 탄광이 전날 탄광에 비할바없이 좋아진건 동무가 말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다른 부문에 비해 이 땅은 아직도 어렵고 힘든데야. 탄부도시 대신 아직은 물웅덩이속에 전경도가 서있고 기계대신 손으로 동발다리 구멍을 파는 막장도있어. 그때문에 바로 당이 우리 제대군인청년들을 여기로 부른거야.

……………

동무가 말하듯이 모든게 다 좋고 다 있다면 구태여 동무나 내가 여기로 꼭 오지 않아도 돼…》

《탄광도 당이 불러서 온 나의 일터고 내가 살 땅이 아닌가?

…난 당이 부르는 길에서 우리의 희망은 끝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네…》

탄광일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있는 덕훈에게 하는 태삼의 이 말은 그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집중적으로 드러내고있다.

탄광은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이기에 바로 자기가 서야 할 혁명초소는 그 어떤 다른곳이 아니라 탄광이라고 생각하는 태삼이의 사고방식은 탄광이 중요하다는것을 인정하면서도 자기자신이나 자식들이 탄광으로 가는것을 꺼리는 덕훈이의 약혼녀의 어머니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의 사상관점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그 어떤 개인적욕망이나 리해타산을 앞세우기 전에 당과 혁명의 요구를 먼저 생각할줄 알며 당의 뜻을 받들고 그 길에서 청춘을 꽃피워나가는 것을 마땅한 본분으로, 응당한 도리로 여기는 바로 이것이 참신한 새세대로동계급의 사고방식이며, 사업태도이며 생활신조인것이다.

소설은 탄광을 자기들이 서야 할 혁명초소로 간주한 이들, 태삼을 비롯한 제대군인전투원들이 탄광을 살기 좋은곳으로 꾸려나가는 투쟁을 통하여 새세대로동계급의 고유한 성격, 사상정신적풍모를 심화시켜 보여주고있다.

당면한 생산계획수행에만 눈이 어두워 종합굴진기의 도입을 달가와하지 않는 낡은 사상과 원칙적인 투쟁을 벌리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버림을 받아오던 종합굴진기의 도입을 위하여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지칠 줄 모르는 정력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는 제대군인소대전투원들의 모습에서, 종합굴진기의 도입을 위하여서라면 모자라는것은 보충하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라도 가능한 모든것을 현실적인것으로 전환시켜나가는 그들의 헌신적인 투쟁모습에서 우리는 새세대로동계급의 고유한 성격, 그들의 아름다운 풍모를 찾아볼수 있는것이다.

소설은 이처럼 가장 어렵고 힘든 초소엔 자기들이 서는것을 마땅한 본분으로, 응당한 도리로 여기고 당의 뜻을 받들어 충성의 꽃을 피워나가는 태삼을 비롯한 제대군인전투원들의 형상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새세대로동계급의 아름다운 성격적특질을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정치적으로 의의있게 그려내고있다.

새세대로동계급의 형상창조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혁명의 대를 믿음직하게 이어나가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그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옹계 밝혀내는것이다.

문학작품에서 새세대로동계급의 형상이 가지는 중요한 사상미학적의의는 바로 그 인물의 형상을 통하여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는 새세대로동계급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조국의 미래는 확고하게 담보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는데 있다. 새세대로동계급의 형상을 창조하면서 이것을 옹계 보여주지 못하고서는 새세대로서의 고유한 성격을 진실하게 그려낼수도, 그의 교양적 기능과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할수도없게 될것이다. 그 인물의 고상한 정치사상적풍모와 아름다운 내면세계를 통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새세대로동계급의 위치와 역할을 형상적으로 뚜렷이 보여주는것은 새세대로동계급의 형상창조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장편소설 《령마루》에서 강희철, 박금옥의 형상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의의있는 형상이라고 말할수 있다.

광산마을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쇠돌을 캐며 잔뼈가 굵어온 오랜 로동계급인 갱장 박상만의 딸인 압축기운전공 금옥이는 아버지가 태어나고 부모들의 땀과 눈물과 기쁨이 배여있는 광산마을을 꾸려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젊음을 유혹하는 도시생활을 동경하면서 희철이의 진정한 사랑을 외면한다. 이러한 금옥이는 3대혁명을 수행해나가는 막장의 보람찬 로동속에서 자기가 맡아선 이 광산초소가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손길에 닿아있고 청춘의 희망과 리상을 꽃피울수 있는 보람찬 초소라는것, 이 초소에 굳건히 서서 수령님의 고지와 당중앙의 의도를 꽃피워나가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긍지높은 일은 있을수 없다는것을 실지 생활을 통하여 체험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광산을 떠나 도시로 출가하려던 자기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 광산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가는 일군이 되리라 굳게 결심하고 종합적기계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선다.

작품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대를 이어 광산에서 아버지수령님과 당을 받들어 충성다해가리라 하는 굳은 각오로부터 출발하여 희철이와의 진정한 사랑을 약속하고 어렵고 힘든 일에서 앞장서나가는 금옥이의 형상을 통하여 청년들이 광산을 툥툭히 지켜서고있는 한 광산은 더욱 웅장하게 변모될것이라는 의의깊은 사상을 예술적으로 확인하여주고있다.

새세대로동계급의 형상을 진실하게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성장과정, 혁명화과정을 깊이

있게 보여주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나서자라난 사람이라고 하여 저절로 혁명사상을 가지는것도 아니며 로동계급의 아들딸이라고 하여 저절로 로동계급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로동계급의 고유한 사상정신적특질을 이루는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높은 혁명성, 조직성과 문화성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속에서 형성되고 공고화되게 된다.

새세대로동계급의 성장과정, 혁명화과정을 잘 그리는것은 세계관형성과정의 이와 같은 특성에 맞게 주체혁명위업의 참다운 계승자로서의 새세대로동계급의 성격을 진실하게 창조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새세대로동계급의 성장과정, 혁명화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주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의 로동생활과 투쟁을 단순한 생산활동으로가 아니라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기 위한 정치생활과정으로, 혁명화과정으로 깊이있게 형상화하는것이다.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은 물질적부를 창조하기 위한 생산활동일뿐아니라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혁명투쟁이며 동시에 자신을 혁명화하는 과정이다.

새세대로동계급은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할데 대한 당의 부름을 심장으로 받들고 가장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불타는 청춘, 피끓는 심장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는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을 통하여 조국땅 이르는곳마다에서 불멸의 위훈을 수놓아가고있으며 성장과정, 혁명화과정을 다그쳐나가고있다. 그러므로 로동생활을 혁명화과정으로 그리는것은 새세대로동계급의 혁명화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로동생활을 문학작품에 가장 옹바로 구현하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그 어떤 로동생활이나 투쟁과정을 그려도 그속해서 성장하는 인간이 나오고 전진하는 력사가 나오도록 그리는것은 인간학의 본성적요구이다.

로동생활을 단순한 생산활동으로가 아니라 정치생활과정으로 혁명화과정으로 그려야 한다는것은 바로 인간학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생산투쟁, 로력투쟁을 그림에 있어서도 생산공정을 그리는 데 치우칠것이 아니라 생산의 주인인 인간을 형상하는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이것은 그 어떤 로동생활을 그려도 그속에서 성장하는 인간의 모습, 혁명화 되어가는 새세대로동계급의 믿음직한 모습이 격동적인

생활로 안겨오도록 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작가들은 로동생활을 혁명화과정으로 깊이있게 그림으로써만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실천투쟁을 통하여 성장과정, 혁명화과정을 다그쳐나가고있는 새세대로동계급의 진실한 성격을 창조할수 있다.

중편소설 《불꽃》은 중학교를 갓 졸업하고 들끓는 건설장으로 달려나온 신기수의 형상을 통하여 로동속에서 가장 혁명적이며 신진적인 로동계급의 풍모를 갖추어나가는 새세대로동계급의 성장과정을 진실하게 그려내고있다.

다섯형제의 막내로서 가정의 온갖 권유도 마다하고 건설장으로 달려나온 그에게는 용접영웅이 되어 세상을 놀래우려는 청춘의 희망과 포부가 간직되어있다. 그렇지만 높은 기술과 숙련을 요구하는 특수용접은 손쉽게 되지 않는다. 그는 거듭되는 실패앞에서 주저앉기도 하고 공밥을 먹으면서 전기와 자재를 랑비하고있다는 량심상가책으로 하여 모대기기도 하면서 언젠가는 그 몇십배의 보상을 하리라하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꾸준하게 시련훈련, 감각훈련을 해나간다. 긴장한 훈련의 나날에 애쓰며 많이도 흘린 땀이 귀중한 디딤돌이 되어 그는 드디어 사연깊고 곡절많은 훈련과정을 끝마치고 당당한 특수용접공의 대렬에 들어서게 된다.

소설은 특수용접공대렬에 들어서기까지의 그의 투쟁과정과 함께 공사전반의 운명을 좌우하는 700미터 특수내열관용접을 훌륭히 수행해내는 과정에 대한 생동한 화폭을 통하여 그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용접이라도 능숙하게 해나가는 이른바 단방치기 용접공으로 자라나는 그의 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700미터 특수내열관용접은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것으로서 한번의 수정조차없이 단방에 합격시키지 못하면 공사기일을 반년이상이나 지연시키게되는 책임적이고 어려운 일이었다. 때문에 《개표리 3년에 황모되랴》는 생각으로 신기수의 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방진과장은 다른 건설사업소의 유능한 특수용접공들의 힘을 빌어 이 문제를 풀자고 한다. 방진과장이 유능한 특수용접공들을 찾아 출장길에 오른동안, 이제 방금 특수용접공대렬에 들어선데 지나지 않는 신기수는 강호를 비롯한 능력있는 용접공들과 함께 그 누구의 방조도 받음이 없이 자신의 힘으로 이 어려운 과업을 훌륭하게 수행한다.

소설은 그의 영웅적인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벽찬 현실속에서 성장하고 단련되어가는 새세대로동계급의 자랑찬 모습을 보여주고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떠메고나갈 새세대

로동계급의 혁명적풍모를 깊이있게 그려내고있다.

새세대로동계급의 성장과정, 혁명화과정을 진실하게 그려내자면 또한 조직과 집단의 역할을 옹게 보여주어야 한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누구나 강한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혁명적으로 단련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한 참된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다. 그러므로 새세대로동계급의 혁명화에서 이렇듯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조직과 집단의 역할을 옹게 보여주어야 그들의 혁명화과정을 진실하게 그릴수 있다.

장편소설 《로동가정》은 조직과 집단의 방조에 의하여 혁명화를 다그쳐나가는 새세대로동계급인 삼석이의 형상을 감명깊게 그려낸 생동한 모범으로 된다.

삼석이는 착암속에서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높은 기술을 소유하고있는 《유능한 기능공》이였고 축구에서 또한 《쇠돌림의 기계다리》로 소문난 이름있는 축구선수였다. 이러한 그는 아버지가 광구장이고 형님이 부문당비서라고 해서 자기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축구선수로 이름을 날려보겠다는 들뜬 기분으로 생활에 발을 튼튼히 붙이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 로동시간내에 착암조수 승호에게 착암기를 맡겨놓고 축구경기를 구경하는가 하면 아버지의 엄격한 통제를 응석으로 받아들이면서 공장전문학교에 하루이를 빠지는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그는 조직의 승인도 받지 않고 도에서 진행되는 축구선수선발경기대회에 참가하는데까지 이르게 된다.

작품은 삼석이의 이러한 결함을 고쳐주기 위한 사로청회의장면을 통하여 사람들의 사상개조에서 차지하는 조직과 집단의 역할을 응당한 높이에서 그려내고있다.

.....

사로청위원장은 청년들의 주의를 자기에게로 이끌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동계급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저절로 로동계급이 되는것이 아니고 젊은 시절에 총을 땀다고 하여 영원히 병사의 심장

으로 불타는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참뜻을 우리는 삼석동무의 행동에서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삼석동무는 로동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무장됐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광구장이고 형님이 부문당비서라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수 있습니까.》

삼석이는 깊숙이 고개를 수그리고 몸둘바를 몰라했다. 그것은 동무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있는지를 알수 있었기때문이었다.

삼석이는 광산사로청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사로청원들이 참가한 청년들의 모임에서 견습공 승호와 동생 순녀를 비롯한 청년들의 원칙적인 비판을 받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진정으로 느끼게 된다.

작품은 부정적현상에 대한 강한 비판정신을 통하여 청년들의 모임을 삼석이의 사상개조를 위한 더없이 좋은 계기로, 그가 도소재지에 려행을 떠나기 직전까지 자기 생활에서 매우 딱했던 순간들- 그모두를 행복한 추억으로 더듬어볼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준 혁명화의 훌륭한 계기로 깊이있게 그려내고있다.

특히 소설은 낡은것을 대담하게 버리고 새것을 위하여 혁명적으로 투쟁하는 세세대의 고유한 성격적특성에 맞게 삼석이의 개변과정을 진실하게 그려냄으로써 참신하고 혁명적인 새세대로동계급의 성격적풍모를 살려주고있다.

이와 같이 새세대로동계급의 성장과정, 혁명화과정을 깊이있게 형상화하는것은 그들의 성격을 진실하게 그리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새세대로동계급의 성격을 진실하게 그리기 위하여서는 이밖에도 그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상수단과 수법들을 적극 동원리용하는 문제, 약동하는 청춘들의 생활과 투쟁을 그대로 그려낼수 있는 생동하고 힘있는 어휘표현들을 찾아쓰는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문제들이 제기된다.

우리 작가들은 조국땅 이르는곳마다에서 영웅적위훈을 수놓아가고있는 새세대로동계급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성격과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탐구함으로써 청년들을 주체위업의 참다운 계승자로 키우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새세대로동계급의형상을 빛나게 창조해야 할것이다.

당의 해발아래

김종원

빛나는 예지로
먼먼 미래도 다 비치고
억만가닥 비치여
주체의 락원을 꽃피우는것은
우리 당의 해발이더라

인민들 가슴가슴엔
끌고루 따사롭고
걷는 길에 시련이 겹쌓이면
그 앞길 환히 띄워주는것은
우리 당의 해발이더라

아 당이여
내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당의 전사로
값높은 청춘 방선에서 꽃피워감도
그대 해발의 덕이거니

그대 사려깊은 해발
이 땅 그 어디나 속속들이 비쳐
평범한 전사도 금별의 이름으로 빛나고
한알의 종자를 안고 모대기던 연구사도
숨은 영웅으로, 박사로 태어난것 아닌가

그렇노라
그대의 해발은 사랑!
그대의 해발은 창조!
그대의 해발은 행복!
그대의 해발은 미래!

진정 한없이 숭고하고 은정어린
그 해발 비쳐서가 아니더냐
세상에서 가장 밝은 락원의 거리와 마을이 이 땅에
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 여기에 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 우리에게 있음은...

아 자동화의 기계소리 나날이 높아가고
웅장한 창조물의 추녀가 하늘에 들릴 때
3대혁명의 붉은 기발 휘날리며

기적을 펼쳐온 진군길에
다시 새로운 속도가 번개칠 때
경건히 우러르는 어머니당이여

만세를 드리노라 그대 성스러운 위업에
심장을 고이노라 그대 달려갈 앞길에
한없이 밝고 예지로운 해살로
인류의 가슴을 열고 래일을 열어주는
그대는 주체시대의 향도성
그대는 광대한 세계의 래일

오, 그 해발은 위대한 수령님의 기쁨
그 해발은 수령님 바라시는 그 눈부심
그 밝은 해발이 있어
내 한발자욱 헛디딤 없이 혁명의 길을 가고
만민이 누릴 리상의 삶도
내 그리도 지척에서 안아보는것이거니

그대 해발 못받으면
삶의 길은 캄캄하고
그대 해발 잃으면
내 심장의 뿔뿔은 고통도 멈추나니

영광이여라
궁지이여라
수억만 가슴이 우러러 부러워하는 해발
늘 곁에서 받으며 내 삶을 빛내가는
주체조국의 전사는
어머니당의 이 아들은

오, 당이여 내 백번을 태어나
천년을 사는 삶을 준대도
우리의 오늘이며 래일
두리의 전진이며 번영인
그대를 위해 한목숨 바치는
그 순간을 더 귀중히 여기리라
죽어서도 그 해발속에 있고
그 해발아래 내 생명 영원히 빛나고파!

해뜨는 아침에도 별돋는 저녁에도

김국용

해뜨는 아침에도
별돋는 저녁에도
그칠새없어라, 발자국소리,
마당가에 버드나무 푸르른
리당위원회를 찾아오는 그 발자국소리

때로는
생각에 잠겨 밝는
조용한 발자국소리
때로는
젖은 비옷을 터는
성급한 소리

이 문가에 들어서면
안개피는 이른아침
발머리에서 반겨주던
그 밝은 웃음으로
당비서는 맞아주더라

청제비 물차는 논판에서
씨레도 함께 치던
그 수수한 작업복차림새로
두엄을 헤치던 두툼한 손으로
반가이 이끌어 가까이 앉히고

언제나 호탕한 웃음으로
허물없는 이웃의 정을 주고
엄하게 꾸짖는 목소리에도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이 배인

농장의 당비서
그 마음, 그 웃음이 그리워오노라
상처를 입은 가슴엔 부드러운 손길이 되고

벽찬 꿈을 안고 보채는 마음속엔
빛나는 앞길 열어주는
당의 사랑이 뜨거워

첫아들을 본 젊은 아버지
깊은 밤 먼저 두드리는데도
불밝은 이 문
그러면 당비서의 즐거운 웃음속에
애기의 새 이름이 골라지고
그 미래는 푸른 하늘같이 열리고

마음에 그늘이 졌을 때
주저없이 찾는곳도 여기
그러면 맑고 따스한 정이
무겁던 그늘을 밀어내고
맘속엔 새별이 반짝이고

마음이 맑으니 꿈도 푸르고
마음도 꿈도 하나같으니
별은 언제나 황금빛
영원한 만풍이 물결쳐오고
아, 삶을 지켜주는 어머니 자장가가 여기 있고
희망을 꽃피워주는 다심한 손길 예 있어
꽃피는 봄날에도, 눈오는 겨울날에도
활짝 열려있는 이 문에선
향기 되어 흘러나라, 당의 사랑

한낮에도 한밤에도
이 문에 들어서는 사람들 그칠새없으니
떠나는 발자국소리도 언제나 힘차게 울려라
사람들의 삶도 알찬 이삭도
이 분을 거쳐 빛나고 영글어라

천금의 무게를 가지고 힘있게 울리는 대사

-예술영화 《언제나 한마음》과 《그날의 맹세》를 중심으로-

박연경

그날의 맹세 변치 말자고 심장은 고동치네
한생을 빛나게 살자고 이 길을 우리 가네
이 길에서 목숨은 버려도 맹세는 못버려
.....

강반에 얼어붙은 용선로를 꺼내기 위하여 이를 악물고 모지름을 쓰며 힘겨운 투쟁을 벌리는 정순이를 비롯한 락원의 10명 당원들의 심장의 노래.

이 노래와 함께 그들이 주고받는 대사들은 사람들을 끝없이 격동시키며 참된 삶의 길로 힘차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예술영화 《언제나 한마음》과 《그날의 맹세》가 이룩한 사상에술적성과는 영화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대사를 잘 형상한것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사는 뜻이 깊고 명백하고 알기 쉬워야 한다.》

대사를 뜻이 깊고 명백하고 알기 쉽게 쓸데 대한 원칙은 문학작품의 대사형상에서 지켜야 할 근본요구로 된다.

작가의 직접적인 설명을 허용하지 않으며 주로 등장인물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 형상을 강조하는 영화문학에서의 대사는 현실반영의 기본수단으로 된다.

극적묘사방식에 의하여 창작되는 영화문학은 대사를 통하여 사회력사적환경과 등장인물들의 호상관계와 그들의 직접적인 충돌을 보여줄뿐 아니라 작가가 강조하려는 사상적지향을 실현하며 극인물들의 사상과 감정, 심리를 표현하고 이야기 줄거리를 발전시킨다.

대사는 특히 성격창조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등장인물의 계급적처지와 성격적특징을 집약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그들의 성격을 개성화한다.

그러므로 극인물의 성격을 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사가 매개 극인물들의 성격적특징에 맞게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생활과 유착되고 행동이 뒤따를수 있는 행동적인 언어로 되어야 한다.

대사는 등장인물의 성격발전에 따라 그에 적응

하게 썩여져야 하는 동시에 등장인물의 매개 말마디는 그 인물의 개성적특징과 작품에 반영된 생활발전의 논리에 적응되어야 한다.

대사는 영화의 형상창조에서뿐만 아니라 창작된 작품을 가지고 진행하게 되는 광범한 독자와 관중, 인민대중에 대한 정치사상교양과 언어문화교양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하기에 오늘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80년대 속도》창조를 위한 벽찬 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혁명적양상을 일으키고있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영화의 주인공들의 대사를 마디마다 심장으로 외우며 그들처럼 살며 투쟁할 결의를 마음속깊이 다지는것이다.

예술영화 《언제나 한마음》(1,2부)은 대사형상의 기본요구를 창작실천에 옮겨 구현하여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적경지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간결하고 성격적인 대사들은 심오한 사상정치적내용을 담고있는것으로 특징지어진다.

대사형상의 깊이는 그의 사상정치적내용의 심오성과 관련되어있다.

대사는 어디까지나 거기에 시대의 본질과 력사적진심, 시대의 절박한 사회정치적문제성이 체현되어있을 때에만 예리하면서도 뜻이 깊은것으로 될수 있다.

《사람이 살아가자면 마음의 기둥이 있어야 하오.》

이 대사는 주인공 정순이의 남편 근삼이가 원쑤들의 총탄에 맞아 숨지는 최후의 순간에 남기고간 말이다.

이 대사에는 참으로 깊은 뜻과 귀중한 생활의 진리로 충만된 심오한 사상정치적내용이 담겨져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장군님만 받들어모시고 살아가라는 남편의 유언을 오직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전쟁시기나 전후시기나 할것없이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당의 로선과 방침을 옹호관철해나가는 정순이를 비롯한 락원의 10명당원들의

불굴의 의지가 명백하고 알기 쉬운 말에서 힘있게 울리고있다.

짙막한 이 한마디의 대사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신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해답을 준것으로 하여 것처럼 무게를 가진 명대사로 되었다.

이 대사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당과 수령에게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할 때 반드시 승리와 영광, 행복이 있으며 삶의 참다운 보람이 있다는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역사적교훈과 생활과 투쟁의 진리가 담겨져있다.

근삼이의 이 대사는 또한 근삼이 자신의 개성적 특성을 부각한것과 함께 작품에 반영된 생활발전의 논리에 적응되어있으며 작품의 주제사상적지향을 집중시킨 대사라는데서도 형상적의의가 크다.

정순이가 것처럼 모진 슬픔과 고통을 강의한 의지로 이겨나가는것은 남편이 숨지는 순간에 남긴 뜻을 이어가야겠다는 도덕적률리로서만이 아니라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것을 마음의 기둥으로 철석같은 신념으로 삼았기때문이다.

정순이가 간직한 마음의 기둥은 장군님께서 계시고 당이 있는 한 자기들의 고통과 불행은 다 순간의것이고 이 순간만 이겨내면 다시 행복할수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의 기둥, 드물지 않는 마음의 기둥이었다.

마음의 기둥- 혁명적신념은 정순이의 가슴에만 자리잡은것이 아니라 락원의 로동계급의 가슴들에도 세워지면서 혁명을 위하여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는 확고부동한것으로 되었으며 그것은 조국땅 지심깊이 뿌리를 내렸다.

이 대사에는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간직했던 혁명적신념이 배여있으며 반세기가 넘는 시련에 찬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생활체험을 거쳐 심장에 새겨지고 세대를 이어 더욱 즐기차게, 더욱 억세게 이어지면서 조선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심장속에 뿌리내린 혁명적신념이 그대로 차넘친다.

이 대사는 위대한 수령을 모신 인민의 힘은 필승불패라는 작품의 사상적알맹이를 직접 담담하고있는바 그렇듯 심원한 사회정치적문제성과 심각한 사회혁명의 진리를 담고있는 예지에 이 대사가 명대사로 되는 미학적근거가 있다.

이것은 대사에 심오한 사상적내용이 있고 귀중한 생활의 진리가 담겨있을 때 얼마나 큰 감화력

을 가지는가를 잘 보여준다.

예술영화 《언제나 한마음》 (1,2부)의 대사들은 또한 인간들의 사상과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고있으며 생동한 개성적언어로 씌여졌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대사가 인간들의 사상감정을 정확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설득력있게 안겨주는것으로 되려면 주어진 정황과 성격발전의 논리에 맞아야 하며 극인물의 체취가 풍기는 체험적인 말로써 생활 그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것으로 되어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에서도 인물의 대사는 성격에 맞아야 하며 구체적인 생활정형에 어울려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대사가 인간들의 사상과 감정을 진실하게 보여주려면 극인물의 준비정도, 그의 성격적특질에 맞게, 생활정형에 어울리게 씌여져야 한다.

영화에는 양수기문제를 가지고 락원의 로동계급과 의논해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주인공 정순이가 자기들이 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장면이 감명깊게 펼쳐진다.

양수기를 생산할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벽돌 한장, 나사못 하나 성한것이 없는 폐허속에서 무슨 수로 대형양수기를 만들어낼것인가.

하지만 정순이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서슴없이 나선다. 그 무슨 묘책이 있었것도 아니고 타산이 있어서 그런것은 더욱 아니였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이 문제를 풀고 그이의 다함없는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한마음에서였다.

무슨 타산이 있어서 양수기생산을 할수 있다고 하는가고 결코드는 종파놈에게 정순은 대답한다.

《저도 특별히 타산해본건 없습니다. ... 해방후 복구건설할 때나 전쟁시기 수류탄을 만들 때두 형편은 지금하구 같았지만 우리 당에서 하라는대로 하니 다 댔습니다.》

비록 길지 않으나 이 한마디 말속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정순이의 끝없는 충성심과 당을 따라 나아가는 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필승의 신념이 담겨져있다.

모든것이 파괴된 폐허우에 맨손으로 서있는 형편에서 대형양수기를 만든다는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몰라서 선뜻 나선것은 결코 아

니다.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기적을 불러내야 할 아름다운 과제였다. 그러나 그것을 만들어내야 당의 로선과 방침을 관철할수 있다는것만은 확고히 알고있었다.

해방을 맞아 장군님 품속에 안겨서야 제 이름을 석자를 배웠고 당원으로 자라났으며 난생처음으로 사람이 사는 보람도 알았고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 정순이, 그래서 남편을 잃고도 눈물없이 살아가는 정순이었다, 하기에 그의 말은 락원의 당원들의 가슴속에 산악처럼 자리잡은 신조이기도하였다.

이처럼 대사는 확고하고 선결한 사상감정을 긴 설명이나 사설적인 말로써가 아니라 생활정형에 어울리는 생동하고 개성적인 언어로 잘 형상하였다.

영화의 대사들은 또한 소박하고 아름다운 생활적인 말로 다듬어졌다는데서도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명대사는 풍부한 생활체험과 깊은 사색에 기초해서만 나올수 있다.

명대사로 되기 위해서는 대사가 생활적인 진실을 담고있어야 하며 아름다우면서도 간결하고 민족적정서가 짙은 형상적인 언어로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한결음이 열결음이 되구 열결음이 백결음, 천결음이 되지요 뭐. 그래서 양수기가 나오구 이 별판에 물이 철철 넘치게 되면 그땐 고생한 보람이 있겠지요.》

이것은 주인공 정순이가 용선로를 실은 회차를 피멍이 든 어깨를 들이대고 밀면서 신심이 없어하는 농민들을 진심으로 일깨워주며 하는 말이다.

참으로 대사는 뜻이 깊고 심각한 내용을 평이하고 간결한 생활적인 언어로 나타냄으로써 표현의 질을 높이고있으며 그 사실주의적성격을 뚜렷이 하고있다.

이 대사는 어떤 난관과 시련이 앞을 가로막아도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하자고 결심한 일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 까지 용감하게 싸워나가는 주인공의 견결한 자세와 완강한 투지를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이 대사의 특징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한 사람은 그 어떤 모진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도 실망과 비관을 모르고 용감하게 뚫고나가며 혁명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회혁명의 진리를 점층법의 문제론적수법으로 된 비유적이며 생활적인 말로 참신하게 밝혀준데 있다.

이 대사는 뜻폭이 점차 넓어지게 단어들을 배열하면서 말하려는 내용에 초점을 집중시키고있으며 말의 격조를 높이고있다. 그리하여 수리화가 완성된 기쁨진 협동벌을 눈앞에 그려보게 하며 나아가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당의 독창적인 경제건설로선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생활적인 말로 확증하며 작품에서 혁명적량만성과 민족적정취를 돈구는데 형상적으로 기여하고있다.

영화는 또한 시대와 사회의 특징에 맞게 전형화된 대사를 창조하고있는데서도 특색을 보이고있다.

시대와 사회의 특징에 맞는 진실한 대사를 창조하는것은 생활을 역사적구체성에서 진실하게 보여줄데 대한 사실주의창작의 기본요구의 하나이다. 따라서 극인물의 대사를 통하여 시대의 요구와 지향, 숨결과 정서를 감득할수 있게 하는것은 영화의 대사형상에서 나서는 응당한 요구로 된다.

정순이가 공장에 내왔던 선반기를 아버지가 도로 가져간것으로 하여 고민하는 영혜에게 사람이 의리를 몰라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장군님의 크나큰 은덕에 의리로 보답해야 한다고 따듯이 일깨워주는 대사는 그러한 실례로 된다.

《사람이 의리를 몰라서는 절대로 안된다. 나두 험한 세상에 정식이 하나 데리구 해매다가 해방을 맞아 장군님 품속에 안겨서야 제 이름 석자를 배웠구 당원이 돼서 처음으로 사람이 사는 보람도 알았다. 행복이 뭔지두 알구... 그래서 남편을 잃구두 눈물없이 살아간다. 자나깨나 천대받던 이 봄을 당원으루 키워주신 그 은덕에 의리루 보답해야겠다는 한가지 생각으루 모진 교통두 슬픔두 다 이겨가며 이렇게 살아간다.》

이 대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영원히 잊지 않고 자나깨나 그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일념을 안고사는 주인공의 억척같은 신념과 고결한 의리가 시적으로 응결되어있다.

정순이는 실생활의 체험을 통하여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품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고 목숨보다 귀중한것이 수령님의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혁명적의리라는것을 심장으로 체득한것이 다.

그러기에 정순의 대사는 성격발전의 논리에 적응한 진실한 대사로 된것이며 또한 정순이의 이 말은 우리 인민모두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대변한것으로 된다.

이 대사가 시대와 사회의 특징을 반영했다고 말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수천수만의 정순이들-진짜배기 혁명가들은 정순이와 같은 끝없이 숭고하고 고결한 혁명적의리를 간직하였기에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을 잊지 않고 그 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자나깨나 마음쓰며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고있다.

예술영화 《언제나 한마음》과 《그날의 맹세》는 표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언어사용의 여러가지 수법들 즉 문체론적표현수법을 적중하게 써서 작품의 품격을 높이고있다.

이 영화에서는 여러가지 표현수법가운데서도 특히 은유법을 잘 살려쓰고있는 특징을 찾아볼수 있다.

작품에서 대사형상의 질을 훨씬 높일수 있는 요인의 하나가 은유법을 비롯한 표현수법을 잘 다듬어쓴것과 관련된다.

원래 은유법은 예술문제를 비롯한 언어형상의 기교가 전면에 나서는 글에서 보다 널리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은유법의 표현적효과는 어떤 사상을 지그시 웅심깊게 표현하는 수법의 하나이다. 은유법은 언어형상 실천에서 사상을 직선적으로 딱딱하게 드러내지 않고 은근하게 밑바닥에 깔아주면서 사상을 뜻이 길게 표현하는데서 매우 효과적이다.

이 수법은 어떤 사상을 직접 말하지 않고 숨겨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것으로 하여 잘못 썼을 때에는 표현을 애매하고 까다롭게 할수 있으나 굴절기와 말마디에 잘 어울리게 썼을 때에는 추상적이고 복잡한 사상을 생활과 가까운 구체적이고 생동한 사실에 비김으로써 말하려는 사상을 쉽게 표현할수 있다.

때목감을 구하러갔다가 강가에서 철공소집 딸의 사진을 두고 정식이와 근삼이들이 주고받는 말은 극히 인상적이다.

《로동계급은 못돼요. 부러지면 뽀얀 눈물이나 흘릴 온실의 꽃같은 처년데요뮈.》라고 말하는 정식이에게 근삼이가 한수 더 뜬다.

《온실의 꽃이 싫으면 들판에 옮겨심으면 될게 아닌가. 사랑한다면야 뭐가 두려워서 주저하겠나?

로동계급두 만들구 국수두 먹읍세! 하하...》

이들이 주고받는 말에서 《온실의 꽃》이라는 은유적표현을 복잡하고 뜻깊은 사상을 극히 간결하고 생동하게 나타내고있다

특히 이 《온실의 꽃》은 작품에서 발전하는 생활의 논리를 타고나가다가 《들판의 꽃》과 대조를 이루면서 정식이와 영혜의 인간관계를 맞물리고있으며 영혜의 성격발전과정을 특색있게 그려내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당의독창적인 사상교양방침에 따라 지금 온 나라에서는 영화학습과 실효투쟁이 전래없는 폭과 깊이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으며 근로자들의 사업과 생활에서는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고있다.

근로자들속에서 명대사학습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영화의 사상주제적내용과 주인공들의 모범을 파악시키기 위한 학습이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는 현실은 문학창작에서 대사형상의 질을 포함하여 높은 사상에술적경지에 이른 좋은 작품을 써낼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화면에 펼쳐지는 진실하고 생동한 조형적형상과 함께 두고두고 심장으로 외우며 주인공의 고결한 사상정신세계를 따라배우는데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는 명대사를 쓰기 위하여 큰 힘을 넣어야 할것이다.

당은 내 삶의 어머니

김정호

어떻게 부르면 어머니란 말
오늘은 우리 당 우러러 부르네
이 몸은 따뜻이 안아 값높은 생을 준
우리 당은 영원히 내 삶의 어머니

세상에 태어나 첫걸음 익힐 때
운명의 밝은 길 열어준 당이어

영광의 대오속에 전위로 세워준
우리 당은 영원히 내 삶의 어머니

혁명의 의지를 지키여나갈
불타는 이 신념 드팀 있으랴
당이어 그대의 위업 받드는 한길에
피땀은 이 삼장 바쳐 초석이 되리

시초

인민의 태양이 솟아오른 고향에서

문동식

만경대 초가집

누런 집이여
흙을 이겨 바른 벽...
우리 자란 집과 다름없는
너무도 수수하고 소박한 초가집

내 선뜻 걸음 못떼여라
찌그러진 독, 때고뎌 물동이...
력사의 모든 가난이
여기에 다 깃들어있어

저 때어서 회여진 물동이
샘물로 시원히 목을 추기시고
우리 수령님 어린시절 달려가셨으리
만경봉씨름터로 군함바위로
어머님께서 닦으시던
찌그러진 저 독을 함께 닦으시며
쓰러진 나라를 일으키실 큰 뜻을
가슴속에 억세게 키우셨으리

저 흙벽에
성애가 불리는 밤이면
추위에 떨고있을 겨레들의 모습을
마음속에 안으시고
얼마나 피로운 밤 지새우셨으랴

실물레 소리를 들으셔도
도리깨를 드시여도

인민이 당하는 고통과 설음을
한품에 다 안으시고 자라신 수령님
가난과 수모가 지퍼주는 분노의 불길을
혁명의 해불로 안으셨나니
먹구름 태우실 항일전의 미래에로
나래쳐간 그이의 푸른 꿈이여

압제의 세파는 기둥뿌리 흔들어도
그 꿈이 피여날 조국의 앞날
그 꿈이 안아올 새세계의 지붕만을
머리우에 이고 산 만경대의 초가집

찬서리 내리여도
비바람 사나와도
그 꿈, 그 미래만을 믿어, 굳게 믿어
혁명일가는, 우리 인민은
멀고도 험한 길을 헤쳐왔어라
아,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따르는
인민의 신념에 떠받들려
오늘도 숭엄히 솟아있는 력사의 집
세월의 풍파를 이겨낸 집이여

내 오늘 예서 바라보니
저 지붕이며
벽이며, 농쟁기며...
인민의 행복한 락원의 모습되어
누리에 찬란히 빛을 뿌리도다

이른새벽 고향집으로

새벽에도
이른새벽 찾아가면
고마운분들을
만날듯싶어

새날에도
새벽에 찾아온 집이건만
문은 활짝 열리고 비여있구나
모두들 방금 떠나가신듯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시려
김형직선생님
력사의 새벽길을
떠나가신 집

열네살 어리신
우리 수령님
빼앗긴 조국을 기어이 찾으리라
이역의 광야로 떠나가신 집

짓밟혀 피눈물짓는
이 나라 녀인들을 안아 일으키시며
눈바람 사나운 혁명의 길로
어머님께서 떠나가시고

누리에 붙는
풀이 되시여
삼촌과 동생도
떠나가시고

눈비속을 뚫고
폭풍속을 헤쳐
준령을 넘으시며
만리 또 만리

눈비에 젖어
마를새 없으시던
그 어깨들에 떠받들려
그토록 바라시던 인민의 새봄이
이 땅우에 만발하게 꽃피었건만

아, 찾아올적마다
나라 위해 인민 위해
집을 비어두시고
떠나가신 혁명의 한길우에서
오늘도 인민들과 함께 계시는분들

그토록 고마운
일가분들 모습을
나날이 이 땅에 솟아나고솟아나는
행복한 낙원의 저 모습에서
내 가슴뜨겁게 안아보나니

위대한 인민의 태양이 빛나는
자주의 강국 내 조국은
어제도 오늘도 먼 앞날도
그분들의 어깨우에 떠받들려
공산주의새세계로 솟아나고있어라

동립선창에서

불어오는 미풍에
물결은 설레고
번쩍이는 수면우에
꽃배들이 달리고..
배길우에 일어서는
물이랑우에
오늘도 들려오는 그날의 노소리
김형직선생님 저으시던 노소리

썰물에 달려가는 배를 보시고
우리 조선은 이 배와 같다고
거센 물결 거슬러 노 저으시며
독립의 기슭으로 부르시던 선생님

바라보면
선생님의 그날의 숨결
저 물결소리 되어
내 가슴에 흐르는듯

세찬 파도 일어도
비바람 사나와도
력사의 새벽길을 헤쳐가시던
선생님의 그 눈빛 물구슬에 빛나는듯

아 흘러가는 물결처럼
세월은 흘렀어도
가당을 혁명의 끝은 아직 멀어
선생님은 오늘도 노저어오시나니

저리도 화려한 대동강 꽃배를
위대한 수령님 키를 잡으신
조국의 모습으로 소중히 안아보며
내 불러보는 그날의 매생이

은물결우에는 노래가 실리고
강반에는 아름다운 꽃향기 넘쳐도
흘러간 수난의 력사를 실고서
김형직선생님은 노저어오시네
조국의 귀중함을 깨우쳐주시네

하나의 언덕

화창한 봄빛 안고
찾아오는 꽃물결
끝없이 흐르는
만경대의 언덕길

노래하며 넘어오고
웃으며 넘어가는
행복의 얼굴들을 바라보느라니
가슴에 사무치는 력사의 그날이여

나라잃고
권리잃고
존엄은 짓밟혀
노예의 멍에속에 신음하는 인민들을
열네살 어린신 가슴에 안으시고

할아버님
할머님 바래움속에
두루마기자락을 눈보라에 날리시며
기약할수 없는 혁명의 먼길을
떠나가신 우리 수령님

아, 수령님
떠나신 걸음걸음
얼마나 험난한 길 헤치셨던가
항일전의 철의 대오를 이끄시고
엄혹한 강설속에
비발치는 총탄속에

인민의 권리
인민의 존엄을 찾아 안으시고
수령님께서서는 돌아오셨나니

아, 만경대의 언덕길
내 오늘 예서 바라보니
우리 수령님 한평생 넘어오신
존엄하고 시련에 찬 천만봉우리들
이 하나의 언덕으로 솟아올랐구나

한번 서면
한생애 찾고찾아도
못찾을 빛나는 삶의 길이
인생의 멀고먼 마지막 기슭까지
탄탄대로처럼 곧바로 뻗어

대양과 대륙 넘어
찾아오는 사람들도
여기서 예측과 굴욕을 모르는
인간의 참된 존엄을 받아안고
지구의 곳곳으로 떠나가나니

아, 만경대의 언덕길
이는 주체의 태양 **김일성**동지
수난의 천만산악 다 넘으시여
자주의 새세계에로 가는
인류에게 안겨주신
단 하나의 희망찬 언덕길이어라

은인들

안용근

전쟁이 일어나 세번째로 맞는 이해 여름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류다른 감흥과 희열을 안겨주는 계절이었다. 여느해보다 비가 맞춤히 내렸다가거나 감자풍년이 들었다거나 옥수수이삭이 일찍 피었기때문만이 아니었다.

3년간의 가렬치열한 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비상한 사변》이 이 여름안에 있을것 같음을 사람들은 예감으로가 아니라 현실로, 가슴으로가 아니라 심장으로 느끼고있었기때문이었다.

포성과 함께 들려오는 승리의 소식도, 편지마다에 띄여지는 랑만적인 글줄도 모두 그렇게 생 각케하였다.

벌써 어떤 집에서는 불타고 허물어진 집을 번듯하게 세울 재목을 준비해두기까지 하였다.

전쟁의 승리가 바야흐로 다가오는 이날도 전선을 가까이한 옥별마을은 이른아침부터 전선원호 사업으로 들썩했다.

탄약을 달구지에 싣는 패들, 방아간을 들락날락하며 부산스레 이고들고다니는 아낙네들, 무엇이 탄다고 왁작하며 불붙는 장작을 밖에다 탁탁 털어 불씨를 날리는 로인들... 모두들 신바람이 났다.

떡을 빚는데서는 아까부터 아낙네들이 모여앉아 익살을 부리며 시끄스르고있었다.

무슨 이야기가 그리도 많고 다사한지 나중에는 못하는 소리가 없었다.

이번에는 감장치마에 흰옥당목저고리를 산뜻하게 차려입은데다 떡김에 쏘여 여느때없이 발가우리 예빠진 명심이가 화제에 올랐다.

《애 명심아, 너 어떡할 작정이니. 전쟁도 끝나가는데 국수라도 먹일라나?》

똥똥보 삼돌어머니가 불쑥 화살을 먹였다.

《어마나?》

눈같이 하얀 절편에 떡살로 《승리》라는 글자를 곱게 찍어가던 명심은 까만 김이 있는 불을 활짝 불히며 얼른 두눈을 살퐁이 내리깔았다. 그러는 그의 귀밑이 단풍처럼 빨갛게 불타다못해 귀뿌리까지 퍼져갔다. 생각같아서는 입이 건 삼돌어머니의 떡판같은 잔등을 종주먹으로 마구 때려주고싶었지만 사람들이 많은데다 손에 킁거름이 질편하고보니 그럴수도 없다.

《애, 시치미 떼지 말라. 너의 어머니가 레장감을 꺼내놓고 다리미질을 하기에 여념이 없다는걸은 동네가 다 안다.》

누구인가 한마디 또 끼여들었다.

《참, 너의 어머니가 아까 탄약수송때문에 왔던 군관아저씨한테서 알았다면서 그러는데 윤호 그

사람이 이 앞산에 왔다더라.》

《은 이런 경사라구야, 애 명심아, 단단히 준비해야 될가부다. 혹시 오늘 만날지 알간.》

입가진 녀인들이 저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바람에 명심은 그자리에 더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어머니도 참 한심하지. 무슨 레장감을 벌써 다린담...)

명심이는 능금알처럼 붉어진 두볼을 치마폭으로 싸천채 잉그르르 밖으로 나왔다.

쫓기다싶이 걸음을 옮기는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의식하지 못한채 한가지 생각만 곱씹었다.

(그이가 정말 이 앞고지에 왔을가? 정말일까?...거짓말일까?... 글썽...)

종종걸음을 치던 처녀의 걸음이 차츰 떠졌다.

새침하던 그의 얼굴이 부드럽게 퍼지고 그윽한 눈에는 런던의 정이 한가득 실리었다.

어디선가 처녀들이 부르는 부드럽고 맑은 노래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그렇게 알길 없던 정든님 소식
집에 들린 군대동무 전해주었네

.....

그 노래소리는 방아간쪽에서 나고있었다.

윤호가 못건디게 그리웠다.

정든님을 그리게 하는 노래소리가 울려서만이 아니었다. 입심센 아낙네들의 익살을 받아서만도 아니었다.

승리가 멀지 않았다는 예감이 오늘따라 윤호에 대한 그리움을 더해주었던것이다.

윤호와 명심이는 한고향에서 어린시절부터 함께 자란 사이였다. 윤호가 백지주놈의 집에서 머슴을 살 때 명심이도 어린 나이에 그놈의 집에서 고달픈 종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구박도 함께 받고 천대도 같이 받았다.

어느해부터인가 윤호가 해오는 작정이단속에서 빨간 딸기가 아니면 말랑말랑한 머루다매가 나오기 시작했다. 무심히 받아안을수 없는 그것으로 하여 명심은 매번 이슬방울을 떨구고야말았다. 그도 배가 얼마나 고프고 힘인들 얼마나 들겠는가.

그때부터 윤호가 오르는 산악오솔길 풀덤불속에는 아침이슬에 축축히 젖은 꿩기밥보자가가 놓이군하였다. 명심이가 윤호를 생각하여 자기의 저녁밥을 남몰래 갖다 숨겨놓은것이였다.

해방전해 여름 어느날, 백지주놈은 입맛이 싹 없어졌다고 하면서 명심이더러 송이버섯을 자그

만치 한말가량 따오라고 분부를 내렸다.

거역할수 없는 령이었다.

명심은 소나무 우거진 깊은 산을 헤매이기 시작했다.

어디까지 왔는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다.

날이 어둑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열댓개가량 되는 송이버섯을 싸안고 마을을 향해 돌아섰다.

대문밖에서부터 지주놈의 불호령이 떨어질것을 생각하면 좀더 산속을 헤매고싶었지만 컴컴해지는 수림이 당장은 더 무서웠다.

그가 산봉우리를 넘어서는데 무엇인가 앞에서 우물우물거리는것이 보였다.

자세히 여겨보니 커다란 곰이 앉아 무엇을 찹찹 먹고있었다. 명심은 버섯보자기를 발치에 떨어뜨리며 악! 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에 곰이 벌떡 일어났다.

명심이쪽을 노려보는 곰의 눈은 차갑게 번뜩이고 검은색 털은 뽀뽀이 일어났다. 곰이 놀랐던것이다.

돌아선 명심은 기겁하여 몇걸음 뛰다가 혼줄이 빠져 《사람 살려요!》 하며 연거퍼 웅쳤다. 그러건말건 곰은 미옥스레 뒤쫓다가 버섯보자기를 보자 그자리에서 형체도 없이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리고는 또 비호같이 다 쫓아왔다.

깊은 산속으로 달음박질하는 명심은 이제 곰이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절망적인 생각으로 몸부림쳤다. 이제는 별수없이 곰한테 자기의 목숨도 버섯보자기처럼 갈기갈기 찢기울 판이었다.

앞에 물웅덩이 같은것이 나타났다.

씩씩거리는 곰의 거친 숨소리가 귀전에 울릴때 명심은 그 웅덩이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그런데 이때 돌연 남자의 격한 소리가 울렸다.

《명심이 골짜기로... 마을로 뛰라구!》

그 다음은 곰이 무엇에 맞았는지 웅!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잡관목을 왈살스럽게 부러뜨리며 곰이 어데론가 달려가는것이 알려졌다.

명심이가 어망결에 돌아다보니 곰이 웬 남자를 목표로 정신없이 쫓아가고있었다.

처녀는 돌변한 사태에 그만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러다 처참한 광경을 보지 않으려는듯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었다.

그러던 명심은 정신이 펄쩍 들어 손가락잡으로 앞을 내다보았다. 곰도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이따금 산너머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올뿐이었다.

곰을 따돌린 고마운 사람은 분명 마을과 가까운 산턱으로 곰을 달고 달려갔을것이다.

걱정스러웠다. 그 고마운 은인은 누구인가!

무지한 곰이 무슨 횡포한짓인들 못하랴.

명심은 얼굴을 가리웠던 손을 얼른 내리고 소리는 곳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큼직큼직하게 난 곰의 발자욱이 눈에 띄우자 오금이 저려 제대로 달음박질이 되지 않았다.

얼마 안가서 명심은 나무를 그득 쟁겨실은 지게가 모로 자빠진것을 보았다.

윤희의것이 아닌가?

그 주위엔 빨간것이 땅우에 되는데로 흩어져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헤쳐진 나무단속에서 쏟아진 무르익은 새빨간 산딸기였다. 산딸기를 찢던 넓다란 피나무잎사귀는 바람에 물려 명심의 발밑으로 구울러왔다.

순간 명심이는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온몸이 찢터해와 그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윤희다. 바로 그이야. 나를 위하여 윤희가...

《고마운 사람, 나의 은인!》

명심은 땅을 그리안올듯 두팔을 벌려 흩어진 산딸기를 와락 그리안았다. 그것은 산딸기만이 아니었다. 죽음의 경각에 목숨으로 위험을 막아나선 윤희의 마음과도 같은것이였다.

명심은 한웅큼 움켜잡은 산딸기를 가슴앞에 꼭 대고 정신없이 곰의 발자욱을 되짚으며 산아래로 달려갔다. 가시덤불에 얼굴이 찢히고 질신이 벗겨졌어도 몰랐다. 오직 윤희에 대한 근심밖에 없었다.

앞에 곰이 또다시 나타난대도 더는 겁날것 같지않았다. 그저 윤희만 무사했으면...

명심이가 소나무숲을 빠져나와 산비탈에 내려서는데 앞에서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윤희, 이 사람이 곰을 다 잡다니. 이크! 황소만한놈의 곰을 잡았구만 영.》

《좌우간 장수요. 곰을 보면 피하기 일쑤데 곰에게 낫을 던지다니... 영 이사람아.》

귀에 익은 마을사람들이 저마끔 한마디씩 하는 말을 어슴푸레 가려들으며 명심은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윤희가 살았다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그에 대한 고마움에 불품없이 된 처녀의 가슴이 느닷없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가, 윤희가 살았구나...)

명심이는 무심결에 봉긋한 앞가슴에 맞춰고있던 두손을 살며시 펴보았다.

빨간 산딸기가 눈앞에서 방긋 웃고있었다.

방울방울 명심의 맑은 눈물이 산딸기우에 똑똑 떨어져내렸다.

눈물에 씻기운 산딸기는 저력노을을 받아 더욱 빨강게 불타는듯하였다.

흐느낌에 쌍까풀진 알팍한 눈두덩이가 별정계 부은 명심이는 돌연 자기의 가슴속에 찾아드는

그무엇을 발견하였다.

봄아가씨마냥 아장아장 심장속 갈피에 참아드는 그것, 그것이 무엇일까? 처녀는 눈물이 아롱진 얼굴을 살짝 붉히며 방그레 웃음지었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고마운 조국의 혜택을 마음껏 받아안으며 수태를 머금은 이쁜 처녀로 자라났을 때에야 명심은 그것이 무엇이였는가를 새삼스레 깨닫게 되었다.

그것이 사랑의 싹이였고 그 싹이 나날이 자라나고있다는것을 알았을 때 처녀는 자기들의 사랑이 남의 눈에 뜨이는것을 몹시도 두려워했다.

버들방천 우거진 개천에서 명심이 혼자 빨래를 할라치면 영낙없이 나타나는 윤호를 보고도, 분명받은 땅에서 첫해농사를 잘 지어 산 명심이네 송아지에게 달아줄 소방울을 윤호가 장마당에서 사온 날 저녁에도...

그런데 낫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더니 어떻게 그런 내막까지 온 동네가 다 알게 되있는지...

얼마후 그들은 남부럽없이 프르르하게 약혼식까지 치렀다.

그러나 그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한달전 뜻밖에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은 그들의 사랑하는 고향마을에도, 아름다운 꿈속에도 여지없이 덮쳐들었다. 윤호는 총을 메고 조국을 지키러 전선으로 떠나갔다.

벌써 윤호가 군대에 나간지도 8년이 돼오고 전쟁도 3년간 계속되고있었다.

전쟁이 끝난 다음 성례를 이루어 부모들을 기쁘게 하자는 사연과 함께 잘 싸워달라는 부탁을 담은 윤호의 편지가 한두장 왔을뿐 오늘까지 한번도 만나지 못한 그들이었다.

명심은 자기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절절한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하루도 쉼없이 소방울소리 울리며 전선을 넘나들었다. 그때마다 온 산야에 울려퍼지는 누렁이의 귀에 익은 방울소리를 듣고 윤호가 고지에서 마구 달려내려올것만 같아 가슴부터 울렁거렸었다.

그렇듯 온넋으로 기다려온 윤호였다.

그런데 그 윤호가 지금 이 앞고지에 와있다고 하지 않는가.

어쩌면 오늘 만날수 있을것 같기도 했다.

갑자기 《음-메-》 하는 소영각소리가 들려왔다. 명심은 와뜰 놀라 소리나는쪽을 쳐다보았다. 동구길앞산턱에 매놓은 누렁이가 멀리서도 자기를 알아보았는지 꼬리를 젓고있었다.

(어마나,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

정신이 또렷해진 명심은 동구길에 나선 자기를 발견하였다.

(아니 그럼 내가 윤호동무를 찾아가는게 안야?... 저기가 어디라고... 남들은 싸우고있겠는

데... 아이, 창피스러워...)

명심은 자기의 그 마음을 누가 엿보는듯하며 얼굴을 활짝 붉히며 저고리웃고름을 얼른 도두룩한 입술에 갖다대었다. 그리고는 팽글 돌아서서 마을앞길을 두리번 살폈다. 요행 길에서는 어미를 따라나선 병아리들이 괜히 저들끼리 다툼질하기에 여념이 없을뿐이였다.

싱그러운 바람이 그의 이마전의 머리카락을 날리며 지나갔다.

귀밀을 간지럽히는 부드러운 그 바람은 마치 《처녀야, 아무도 없으니 어서 맘놓고 님생각들 하려무나. 우리도 기뻐서 그런단다.》 하고 여쭙는것 같았다. 그래도 괜히 가슴이 널뛰듯하고 숨이 가빠났다.

《음메-》 황소의 영각소리가 또 들려왔다.

(아, 우리 누렁이가!...)

명심은 누렁이가 있는 산턱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누렁이를 끌고 고지로 갈 때도 된듯 싶었다. (누렁이야 오늘은 방울소리를 크게 울려야 한다.)

명심은 마음아 부풀어올라 회초리감을 하나 골라쥐었다.

앵- 이때 난데없이 들리는 비행기폭음에 명심은 머리를 들었다.

낮추 뜬 적비행기의 소편대가 마을을 향해 기수를 꺾고있었다.

그중 한대가 소와 사람을 발견했는지 면바로 달려들며 불꽃을 날렸다.

(어마나! 소가...)

명심은 산턱을 향해 치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귀전으로 기총탄알이 뿔뿔 스쳐지나고 소이란 사처에서 터지며 눈알에서 섬광을 일으켰다.

곳곳에서 산림이 불타올랐다.

놀란 소가 덴겁을 하며 고삐를 끊고 산속으로 울리뛰기 시작했다. 명심은 가쁜숨을 톹으며 소를 그냥 따랐다. 그러나 원체 놀란 소는 임자를 거들떠보지 않고 산을 넘어 헹헹 달아났다.

그러는 사이 불길은 우우 소리를 지르며 산위로 퍼져갔다.

소방울소리가 점점 멀어져갔다.

명심은 단김과 연기에 숨이 하늘에 닿아 그 이상 달릴 기운이 없었다.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두면 소는 영낙없이 타죽고말것이었다.

아닌게아니라 명심이가 필사적으로 자그마한 산봉우리에 오르니 맞은쪽에서도 연기와 불길이 치솟아오르고있었다.

명심이라도 소도 더는 헤여날 구멍이 없었다. 그래도 명심의 발길은 소를 찾아 산아래로 향해졌다. 얼마쯤 내려가니 황소가 되받아 올라오며 애

처롭게 음메-에 하고 영각을 터치였다. 그 소리는 못짐승들이 죽음을 앞두고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울음과도 같은 것이었다.

명심이 그 소고삐를 잡았을 때에는 그도 매케한 연기에 취하여 정신이 흐리흐리해져갔다.

불길은 맹수의 허끝처럼 널름거리며 사방에서 빠지직빠지직 다가들었다.

뿌지직 탁탁 하는 소리... 우르르 김불이 순간에 타없어지는 소리... 그 소리에 어울리지 않는 말울음소리...

(아 숨이야, 왜 이리 답답한가 누렁이야, 너라도 살아 소방울소리 크게 울리며 그이를 찾아 전선엘 가려무나...)

명심은 소고삐를 짊 움켜잡았으나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말았다.

×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오후의 해가 발끝에 와서 아물아물거리고있었다.

명심은 정신이 차츰 맑아지자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던 그는 와뜰 놀라 상반신을 일으켰다. 불씨가 튀고 검붉은 연기가 타래치던 산속이 아니라 자기는 아늑한 자기 집 옷방에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어떻게 여기 왔을까? 과연 내가 살아있단 말인가?명심은 자기 손등을 꼬집어보았다. 아프고 쓰러났다.

(아니 그럼 누가 나를 구원해주었구나! 그런데 소는 어떻게 됐을까?)

몹시 궁금해났다.

문득 정신이 흐리흐리해질때 때아닌 장소에 말울음소리가 들려오던것이 기억에 되살아났다. 아마 그때 누군가 말을 타고 따라와 자기를 구원해준것이 분명하였다.

(그게 누굴까?)

군인인것만은 확실했다. 명심은 그 은인을 알고싶었다.

(그가 소도 구했을까... 정말 소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 누렁이가... 누렁이 없이야 어떻게 운호를 만난담.)

명심은 일어나 앉으려 했다. 그런데 온몸이 뜨끔뜨끔 하고 빈혈이 오며 뜻대로 몸이 움직여지지않았다.

사이문이 열리며 할아버지가 물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정신이 든 모양이구나. 정말 다행다. 그런데 왜 일어나느냐?》

할아버지는 채머리를 흔들며 손녀에게로 다가가 질책했다.

《인젠 일없어요. 그런데 우리 누렁이는 어떻게 됐어요?》

명심은 할아버지에게서 물그릇을 받으며 소부터 걱정했다.

《누렁이는 외양간에서 새김질을 하고있다.》

《네?! 아니, 누가 구원했어요? 저랑 소랑 구원한분이 누구예요? 네? 할아버지.》

명심은 할아버지의 거울친 손을 두손으로 잡아 흔들며 다우쳐물었다.

그러는 그의 눈빛이 강렬히 불탔다.

《은 그런 고마운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우린 네가 불타는 산속에 있다는것을 때늦게 알았지만 활활 타는 불속이라 미쳐 손을 쓰지 못하고있었다. 온통 불길이 널름거리니 어떻게 들어갈 재간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때 전선으로 말을 타고 달리던 한 중국인민지원군어린이 글썽 여사한 사정을 알고 그 불속으로 말을 몰아 달리지 않았겠니.》

할아버지는 채머리를 덜덜 떠는데 목소리까지 떨었다.

《아니, 그럼 지원군동무가 저랑 누렁이랑 구원했나요?》

《암, 구원해주다마다. 친혈육보다 더한이 더라...불길에 휩싸인 말이 앞발을 쳐들고 못들어갔다고 양탈을 부리자 그 어른은 칼등으로 채찍을 먹여가며 불사신처럼 불속으로 뚫고 들어갔다.》

명심은 화염에 휩싸인 산정으로 말을 몰아 달리는 지원군동무의 모습이 너무도 눈에 방불히 안겨와 가슴이 쩡해왔다.

(은인... 나의 은인... 누렁이까지 구원해주었던 말이지.)

할아버지는 담배를 부스르뜨려 대통에 담고 부시를 췌다. 불씨가 번쩍번쩍 일었으나 쑥에 불이 인츰 달리지 않았다. 몇번 그렇게 쳐서야 룡알만한쑥에 연기가 모록모록 피어났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대통에 담고 몇번 빼금빼금 빨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가슴아픈 일이 생겼구나. 산을 넘어간 그 어른이 한참만에 널 업고나왔는데 글썽 말이 없지 않았니...》

산불이 사그라진후 내가 쓰러졌던 자리에 가보았는데 군용말은 까맣게 타서 그자리에 쓰러져있고 우리 소는 보이질 않더구나. 아마 어데 가서 말처럼 타죽었겠지...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있는데 음메-하는 소울음소리가 들려오질 않겠니. 그소리는 좀 떨어진 물웅덩이에서 울리고있었던다.

우리는 처음엔 소가 령물이여서 제혼자 물웅덩이를 찾아간줄 알았다. 그런데 소를 끌어내어 보니 아, 글썽 소한테 폭 젖은 군대모포가 씌워져있질않겠니?

그때에야 우리는 지원군어린이 그 불속에서 너

를 먼저 살리자고 웅덩이에 소를 우선 밀어넣고 자기의 모포를 물에 적서 썩워주었다는것을 때늦게야 알았다.

그러는 사이 말은 불길에 휩싸여 길길이 뛰다가... 그 모포만 덮어주어도 자기 말은 죽이지 않는건데...》

할아버지는 담배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손녀를 측은히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물기가 번뜩였다.

《잊지 말아라, 너와 누렁이가 어떻게 구원되었는가를 말이다. 말은 모두 하기 쉽네라. 하지만 이번에 겪어보니 그 어른은 네 할아버지보다도 나은분이였다. 잊지 말고 이 은혜를 꼭 갚아야한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명심은 눈물을 씻으며 기대어린 눈길로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할아버지는 대답대신 한숨안 후 내쉬였다.

《그럼 할아버지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글쎄 난들 어떻게 알겠니. 대주지 않는걸. 내가 로망을 했지. 그 사람이 화상이 심한 몸인데도 무슨 급한 일이 있어 꼭 가야 한다고 하길래 마침 지나는 마차가 있더라니 태워서 보냈구나.》

《할아버지도 참... 은인도 모르구 어떻게 은혜를 갚는단말이에요.》

명심은 총알처럼 할아버지한테 내쏘았다.

하많은 지원군들속에서 이제 어디 가서 그를 찾는단말인가.

이래저래 명심은 속이 뒤틀렸다.

《어머닌 어데 갔어요?》

명심의 말투는 곱지 못했다. 할아버지한테 못다한 분풀이를 어머니한테라도 하고싶은 감을 주는 손녀의 물음이었다.

《네 에민 사둔택에 갔다.》

《거긴 왜요?》

《화상에 오소리기름이 좋다고 하면서 사냥에 능한 사둔이 오소리를 잡은것이 없나 해서 간가 부다.》

《오소릴요?!》

명심은 눈이 등그래지며 놀랐다.

《좀 있으면 올게다. 어서 이걸 먹어라. 꿀물이 다.》

할아버지는 꿀물그릇을 손녀앞에 밀어놓았다.

명심이 이 꿀물 한사발을 다 비우고 입언저리를 닦는것을 보고서야 할아버지는 마음이 좀 놓이는지 흡족한 기색을 지으며 하려던 이야기를 마저 꺼냈다.

《애 명심아, 자고로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 한다는 말이 있느리라. 그사람들이 우리를 도와 이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는데 너도 채심해서 살아

가느라면 언제 한번은 은혜를 갚을 날이 있을게 다.》

할아버지는 의미심장히 말하며 호주머니에서 무엇을 꺼내어 명심이 앞에 내놓았다.

명심은 호기심어린 눈길로 그 물건에 눈을 주었다. 타다남은 천조박과 무슨 나무뿌리 같은것이였다.

《이건 뭐나요?》명심은 물건을 앞으로 끌어당겨 자세히 보았다. 얼마나 그슬리고 탔는지 한참이나 뜯어보고서야 명심은 그것이 자주색공단천으로 만든 담배쌈지와 물주리라는것을 알아보았다. 한쪽모서리만 남은 쌈지는 어찌나 바느질을 알뜰히 하고 섬세하게 수를 놓았는지 녀성의 지성어린 손길을 대번에 느끼게 하였다. 자세히 보니 거기엔 들국화꽃이 수놓아져있었다.

《네가 쓰러졌던 자리에서 주은거다. 모름지기 그 지원군어른이 애용하던것임이 틀림없구나.》

로인은 채수염을 쓰다듬으며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눈길로 허공을 쳐다보았다.

명심은 그 물건들을 자기가 쓰러졌던 자리에서 얻었다는 말에 자리를 차고 일어나 할아버지의 손에서 그 물건을 덥석 잡아채였다.

(친지들의 뜨거운 마음이 아로새겨진 담배쌈지, 아마 고향처녀가 떠나는 그의 손에 쥐여준것이리라. 그런데 이렇게 타버렸으니 그 군인은 얼마나 안타까웠으랴.)

명심은 마치나 자기 생명의 은인을 찾기라도 한듯 밝은 미소를 띠우고 물건들을 물에 비비며 기뻐했다. 할아버지는 느슨한 미소를 짓고 손녀를 바라보기만 하고있었다.

《할아버지, 우리 이것과 똑같이 물주리도 만들고 쌈지도 만들자요. 그래서 저를 구원한 그 지원군동무한테 갚다주자요. 네?》

《그래그래 그러자꾸나. 나도 생각이 있다. 난 벌써 물주리감을 구해왔다. 묘하게 생긴 생당썩 물주리를 다듬는중이다. 쌈지는 네가 만들려무나.》

《아이 고마와라. 할아버진 의뭉하셔!》

명심은 상처의 아픔도 잊고 농작을 열어제끼고 천조박을 찾았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천조박은 보이지 않았다. 자주색공단천은 언젠가 어머니가 레장감으로 장만해둔 이불감박에 없었다.

명심은 레장감을 풀어헤쳤다. 자주색, 남색, 분홍색... 옷감, 이불감들이 나왔다.

분여받은 땅에서 땅이 꺼지게 농사를 지어 해마다 어머니가 장만해둔 비단들이였다. 명심은 자주색공단이불감을 꺼내어 끄당겨놓고 부드러운 비단천에 가위를 가져다대였다. 그러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였다. 명심은 눈을 꼭 감고 손끝에 힘을 주었다.

이어 쪽하는 천재는 소리가 방안의 공기를 찢었다.

저녁녘이 되어서야 그들은 서로 자기가 맡은 일을 끝낼수 있었다.

L자로 꺾어진 물주리앞부분에 기관총탄피를 잘라 박아넣고 가는 철사로 구멍을 뚫은 생당썩물주리에는 다심한 촛늬은이의 손땀이 배어졌구 들국화를 수놓은 가늉을 따라 꼼꼼한 바느질로 감쳐놓은 자주색공단천쌈지에는 아릿다운 처녀의 성의가 다분히 담겨져있었다.

명심은 자기 일을 끝내자 또 마음이 놓이지 않아 할아버지가 다해놓은 룡대가리 갈기도 하고 어느 고대벽화의 문양갈기도 한 생당썩물주리 앞부분부터 속새풀로 닥달질하기 시작했다. 생당썩물주리는 파르스름하게 윤기를 내었다.

명심의 마늘고안장에 애기땀방울이 뽀족뽀족 돌아났다.

《그런데 할아버지, 이걸 어떻게 은인한테 전할수있을까요? 우리가 찾아가도 자기네 부대엔 그런사람이 없다고 딱 자르면 어떡해요?》

명심은 일손을 멈추며 걱정스러운 눈길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러게말이다. 내래 지금 그걸 생각하는 중이다.》

로인은 침울히 말하며 생각에 골똥했다. 그러다 무릎을 철썩 갈겼다.

《애야, 이걸 지원군부대에 인편으로 보내자구나. 이 타다남은 물주리와 쌈지도 함께 보내면 그 어른은 들장날거란말이다. 어때?》

《아이참... 그런데... 할수 없지요 뭐.》

명심은 자기 손으로 직접 안겨주지 못하는 아쉬운 생각이 없지 않았으나 다른 방법이 없어 동의하고말았다.

그들이 이렇게 락착을 보고있을 때 문소리가 나더니 어머니가 들어섰다.

어머니의 어깨는 축 처져있었다. 대번에 빈손으로 돌아왔다는것이 알렸다.

《왜 없다더냐?》

《네, 사둔택이 이 란리통에 오소리가 다 뭔가 하면서 화약내에 오소리고 토끼새끼고 다 달아났다고 하질 않겠어요. 그래도 행어나해서...》

《사둔택의 말이 맞지. 이 란리통에 어데 가서 오소릴 구한단말이나... 근데 애에민 없으면 제격와서 한탕이라도 전선엘 갈노릇이지... 지원군어른의 신세를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못쓰니라.》

할아버지의 말은 조용하나 엄하게 울렸다. 어머니는 머리수건을 벗어천채 흐르는 땀을 씻지도 못하고 몸을 움츠러뜨리였다.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는데 문밖에서 주인 찾은 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는 헛기침을 뉘번 하며 문을 훌 열었

다.

《누구슈. 어서 들어오시오.》

밖에는 지원군 전사 한명이 서있었다. 키가 후리후리하고 눈이 어글어글 빛나는 그 사람은 전투가방에 권총을 차고있었다.

보매 누구의 연락병 같았다.

《저 이택이 아침에 부상당한 그 처녀의 집인가요?》

《네 그렇수다. 어서 들어오슈우. 지원군대어른!》

로인은 맨발바람으로 퇴마루에 나섰다.

명심은 지원군이라는 소리에 심장이 후두둑 뛰여 들먹이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는 그들의 대화에 온 신경을 썼다.

혹시 저 사람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 불쑥 든것이다.

《저의 중대장동지가 보내서 왔습니다. 이걸 이집에 전해주고 오라고 했습니다.》

《... ?》

지원군병사는 종이에 쓴 병을 로인앞에 내놓았다.

《오소리기름입니다.》

《오소리기름이라니?!》

어머니도 명심이도 놀라 문밖에 나섰다.

《그저 이걸 갖다주면 안다고 했어요. 그럼 전가겠습니다.》

《아니 아니 이런 법이 있나. 이보게 군대어른.》

로인은 맨발바람으로 맨방에 내려서며 중국지원군전사를 퇴마루에로 끌었다.

《이렇게 밀도골도 없이 <오투수다!> 하고 가면 어쩔셈인가. 자상히 이야기를 좀 하라구 자상히, 자네 중대장이 우리 손녀를 구원했나?》

명심은 마른침을 꿀꺽 넘겼다.

《아 아닙니다. 그런건 절대 말하면 안된다고 했어요.》

로인은 그만 얼굴을 실그러뜨렸다.

《음... 그런데 이 오소리기름은 어데서 지원군전사는 시물시물 웃기만 했다. 되게 침을 맞은 모양이었다.》

그러던 그는 로인의 지긋은 눈길을 피할수 없었던지 불쑥 한마디 했다.

《우리가 있는 은폐부로 글썽 오소리란놈이 어정어정 기여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중대가 포위진을 쳤지요.》

《아니 은폐부안에서 포위진은 웬 포위진인가?》

《네? 네-그래서 년똥 잡았지요.》

지원군전사는 어깨를 으쓱해보였다.

그것이 다였다.

《허허 참 사람두...》

할아버지는 더이상 아무것도 알수 없다는것을 알았다.

바위가 부서져 가루가 되고 그것이 다시 천조박 만조박이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는 최전선고지에서 화약냄새에 질색인 오소리가 은폐부안에 어정어정기여들리 만무하다. 후방에 있는 사둔댁의 눈에도 뜨이지 않던 오소리가 저절로 은폐부에 나타날리없었다.

로인은 지원군어른들이 전투여가에 산을 몇개 쯤 《포위소멸》했을것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습벽이었다.

이러는데 지원군전사가 가겠다고 부둥부둥 일어섰다.

온 집안이 할수없이 따라나섰다.

명심은 자기를 구원해주고 귀중한 약까지 구해보낸 그 사람을 후에라도 꼭 알려달라고 채삼채삼 부탁하며 몇발자국 따라섰다.

그러다가 주어보내야 할 물건을 두고 나왔다는 생각이 들자 부랴부랴 돌아섰다.

성의껏 만든 물건을 가슴에 끼안고 다시 뛰어가는 명심은 집에 찾아온 지원군전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

아군의 선제포사격이 적의 방어시설들과 참호들을 답새기며 적진을 들부시고있었다. 며칠째 준비해오던 형제산습격전투가 드디어 시작된것이다.

세네겹으로 둘러친 철조망이며 지뢰원들, 반땅크화점들과 깊숙한 참호들, 하모니카처럼 승승히 뚫린 화점들을 방패마냥 허리에 두르고 창공에 우뚝 솟아 거만기를 부리던 형제산은 중풍을 만난듯 부르르 떨며 화염을 토했다.

쉬-궁 쉬-궁 회획... 포탄들이 물방으로 날아가 터질 때마다 《방패》들이 천조각만조각이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고 검붉은 포연이 산을 통채로 집어삼키고있었다.

명심이네가 포탄과 탄약을 이고지고 고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총포성이 고지정점에서 울리고 있었다.

붉고 푸른 신호탄이 연신 대풍을 가르고 시뻘건불줄기들이 눈앞에서 언뜻언뜻 지나갔다.

이윽하여 총소리가 산너머에서 쿵튀듯 들려왔다.

명심이는 창황한 가운데서도 형제산고지를 아군이 가르타고 앉았으나 급파당한 적 중원부대의 발악적인 반돌격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있다는것을 알았다.

명심이네가 고지로 오르려는데 난데없는 박격포탄이 그들의 앞에 마구 떨어지기 시작했다. 적들이 쏘아대는 박격포탄이었다. 아마도 적들은

고지후면을 차단시킴으로써 일체 보급로를 끊어버리고 고지를 도로 타고왔을 심산인것 같았다.

명심은 움푹 패인 흙타기에 엎디어 눈앞에서 무시로 파멸하는 박격포탄을 원망스레 지켜보았다.

모두지 그속을 뚫고 고지에 오를것 같지 못했다.

명심은 까딱 움직이지 않고 귀청을 찢는듯한 폭음속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총소리에 귀를 도사렸다. 굵으락이으락 들려오던 총소리가 웬일인지 들리지 않았다.

아까보다 기세가 꺾 죽은것 같이 느껴졌다.

(탄약이 떨어지는구나!)

명심은 소스라쳐 놀라 틀어박았던 머리를 쳐들었다. 습격전투에 이어 힘겨운 방어전투를 벌리는 그들에게 탄약이 떨어질것은 뻔했다. 이것을 노려 적들이 이처럼 고지후면에 박격포탄을 퍼부으면서 외곽 공세를 취하는지도 몰랐다.

앞뒤에서 포탄이 날아와 연방 터졌다. 그러나 명심의 눈앞에는 번쩍이는 섬광이 아니라 이 불속에서 싸우고있을 군인들의 모습이 밝혀왔다. 그들은 탄약이 올라오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겠는가. 그속에 사랑하는 윤호도, 자기를 구원해준 지원군동무도 있을것만 같았다.

그 잇을수 없는 사람들이 적의 포사격앞에 망설이고있는 자기를 본다면 얼마나 허를 차며 뽕소하겠는가. 배은망덕한 너자라고.

아니 설사 그들이 이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다 고해도 이 고지를 지키고있는 군인모두에게 죄송스러웠다. 그들은 조국의 한치땅도 지켜싸우는 데...나는?

저기에는 지금 이 시각도 우리 나라 인민을 도와 미제를 치기위해 달려나온 지원군군인들도 있을것이다!

명심은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섰다.

폭풍에 어깨의 위장물들이 떨어져나갔다.

랑태머리는 땀기처럼 날리고 치마자락은 세차게 펄럭이었다. 때를 같이하여 불구름이 그의 전신을 휘감으며 지나갔다. 명심은 휘청거리는 몸을 가까스로 가누며 불사신처럼 우뚝 서서 옆으로 쏘린 탄약상자를 한번 추슬러올랐다.

그리고는 엎드려있는 마을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여러분! 고지에 탄약이 떨어져갑니다! 우리 인민군대와 지원군동무들이 피를 흘리고있습니다! 열백번 죽어도 우리는 고지에 기어올라야 합니다.

죽음을 겁내지 말고 어서 고지로 오십시오!》

이것은 그가 일생에 처음으로 사람들앞에서 웬진 말이였다.

명심은 작렬하는 포탄속으로 훨훨 타고르는 불

길을 뚫고 앞으로 내달렸다. 순간 삼단같은 불길 속으로 말을 몰아달려간 그 지원군동무의 모습이 눈앞에 얼른거렸다.

명심은 가파로운 산을 한치한치 쥐어뜯으며 뿔아올랐다. 벌써 그의 귀는 이 세상의 모든 소음을 가려들을수 없을 정도로 멍멍해졌다. 그저 위-잉 벌레우는것 같은 소리만이 들려왔다.

얼핏 뒤돌아보니 불비속을 뚫고 마을사람들이 고지로 오르는것이 보였다. 그들도 필사의 힘을 내고있었다.

명심이가 고지에 올랐을 때에는 산병전을 친 전사들이 끝날같은 총창을 꽂으며 육박전투를 준비하고있었다. 전호덕우에는 마지막 수류탄이 한 알씩 전사들앞에 놓여있을뿐이었다. 한쪽 룡선에서는 달려드는 적들에게 돌벼락을 안기고있었다.

그들이 중국인민지원군이라는것을 알아본 명심의 눈길은 빛났다. 그들이 건재해있는것이다.

명심은 온몸에 기운이 우썩 솟구침을 느끼며 나는듯이 전호로 달려갔다. 그의 몸은 전호에 뛰여든다기보다 굴러내리고있었다.

전투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렬쳐절해졌다.

적들이 새로운 예비대를 또 투입한것이다.

결사전을 앞둔 지원군지휘부에서는 마을사람들을 모두 고지에서 내려가라고 《명령》하였다. 할수없이 늙은 축들은 먼저 고지에서 내려가고 명심이와 몇명의 젊은이들만이 떼질하다싶이 하여 남았다. 그들은 부상자들을 처치하고 후송하는 일을 자진해 말아나섰다.

명심이는 부상자들을 지혈시키고 처치하기에 경황없이 돌아쳤다. 그가 부상자들을 봉대로 지혈시키고 처치하는 차례로 젊은이들은 담가로 환자들을 후송했다. 마지막 부상자를 후송하자 고지에 사민이라고는 명심이 혼자뿐이었다.

명심은 갑자기 전장이 조용해지는 느낌이 들어 흐르는 땀을 씻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또 한차례 돌격에서 여지없이 격파당한놈들은 산아래로 굴러가고 고지엔 잠시 폭풍전야의 정적이 깃들었다.

모두 총에 만탄창을 하며 총창을 꽂고 있었다.

수류탄을 여러개씩 몸에 찬 전사들이 위장물을 바람결에 날리며 보병삽날을 바위돌에 썩썩 갈기도하고 발흙을 파내기도 했다. 또 몇걸음앞엔 전호에 배를 붙이고 었던 나어린 전사가 자그마한 종이장에 무엇인가 자꾸 써내려가며 가혹한 전장에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게 벌썩벌썩 웃고있는 것이였다.

(아마. 편지를 쓰는게지, 누구에게 쓸까? 어머니에게, 고향처녀에게?...)

느닷없이 생각을 굴리던 그는 삽시에 들리는 호탕한 웃음소리에 머리를 돌렸다.

조금 떨어진 중기좌지에서 키가 크고 몸집이

뚱뚱한 지원군지휘관이 입에 물주리들 물고 허리에 한손을 붙인채 배포유한 기색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껄껄 웃고있었다.

무심히 그쪽에 눈을 주던 명심이의 눈이 솟처럼 타기 시작했다.

지원군지휘관의 입에 문 물주리가 이상하게 눈길을 끌었던것이다.

괜히 가슴이 널뛰듯했다. 자기네가 만든 물주리라기보다도 어쨌든 그와 비슷한 물주리를 물고 있다는 그자체만으로도 명심이에게는 흥분이 오는 일이었다. 그 사람은 눈을 찌프리고 물주리를 탐욕스레 빨아서는 담배연기를 하늘에 대고 후후 내불었다. 그러다가는 버릇처럼 바지흔술에 물주리를 비비곤하는데 그때마다 해빛에 물주리가 유리알처럼 반짝거리 유난히 빛을 뿌렸다.

(우리가 보낸 생당썩물주리를 받은 그 사람도 아마 저렇게 담배를 구수하게 태우며 닥달질을 하고있을지도 몰라...)

명심은 방그레 미소를 머금고 소녀처럼 그 모습을 재미있게 쳐다보았다.

이러고있는데 여기저기서 《인민군대가 온다!》는 목멘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뒤돌아다보니 인민군대들이 철갑모를 해빛에 번뜩이며 전호로 달려내려오는것이 보였다.

지원군들이 차지하고있는 형제산고지가 위협에 처하게 되자 린점을 차지하고있던 인민군대가 급히 지원하러 오는 모양, 그들의 구리빛 얼굴들에는 땀줄이 서고 옷들은 화락하니 젖어있었다.

바람처럼 달려온 인민군군인들은 대형을 허물며 지원군군인들사이에 총총히 들어가 박혔다.

《아니 이게 최태목이 아닌가!》

《영? 이게 누구요? 위중산이로구만. 또 만났군 그래... 함께 싸워보세나. 하하하...》

《흐흐흐...》

경황없는 정황속에서도 조종 두 나라 군인들은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서로 부둥켜안고 덩굴었다.

격전장에서 이렇게 만나기를 그 몇번이었던가. 서로 위해주고 걱정하며 위험을 막아나서군하는 두 나라 군인들이였다.

그들의 전투적인 상봉을 바라보며 감심되어있던 명심은 문득 들리는 낮익은 목소리에 귀가 번쩍 띄었다.

《왕동무! 푸른 신호탄 두발이 오르면 중대가 돌격으로부터 추격으로 넘어가 적을 포위섬멸하라는 지휘부의 지시를 가지고왔습니다.》

《수고했소. 윤호동무!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맙소.》

(아니 윤호동무가?!)

명심은 입을 딱 벌리며 윤호의 음성이 들려온

중기좌지쪽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좀전에 물주리로 담배를 피우던 지원
군지휘관과 인민군지휘관이 마주서서 이야기하
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인민군지휘관이 것처럼 그
립고 그리던 윤호동무가 아닌가!

분명 윤호였다.

해빛과 포연에 검실하게 탄 등실한 얼굴, 거뭇
한 눈썹밑에서 리지적으로 빛나는 눈, 인상적인
주먹코...

꿈결에도 나타나고 순간마다 힘을 주던 사랑하
는 사람의 모습을 명심이 헛갈려볼수 없었다.

《윤호동무!》

명심은 하마트면 소리치며 달려갈번했다.

그러나 목소리는 입안에서 삼알침으로 바뀌어
졌다.

턱밑까지 기여든 적들이 돼지먹마는듯한 소리
를 지르며 돌격해왔던것이다.

적들이 이리떼처럼 달려드는 판이라 명심은 윤
호를 불러보지도 못한채 시야해서 놓치고말았다.
지휘관들이 바람처럼 자기 위치에 가버릴것이
다.

아쉽기 짝이 없었으나 그가 이 고지에서 함께
싸우고있다는것으로 하여 마음은 무쇠기둥을 박
은것처럼 든든해왔다.

×

이윽고 돌격을 알리는 푸른 신호탄이 머리우에
서 곡선을 그리었다. 그러자 우람찬 만세의 함성
이 작렬하는 수류탄의 폭음을 누르며 산악을 뒤
흔들었다.

물목이 터지고 산이 무너져내리는것 같았다.

조중 두나라 군인들이 해빛에 일제히 총창을
번쩍이며 천만군마처럼 내달렸다.

적들의 먹마는듯한 비명소리, 사병들을 내모는
상육소리, 총대가 부러지는 소리, 인민군전사의
보병삽날이 반호를 그리는 번쩍거림...전장은
백병전을 이루었다.

혼비백산한 적들이 달리기 시작하더니 겨끝내
기로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이럴 때 두발의 신호탄이 또 올랐다.

도망치는 적들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말고 련
이어 공격으로 넘어가 포위섬멸하라는 신호였다.
전사들이 먼지를 말아올리며 추격의 발구름소리
를 높였다.

명심이는 전호에 홀로 남았다. 생각갈아서는
군인들과 함께 총창을 꺾나들고 달려나가고싶었
지만...

그러던 그가 비호같이 내달리기 시작했다. 앞
쪽에서 달려가던 한 군인이 쓰러지는것을 본것이
다.

(빨리 구원해야지. 아직 후송대가 올 때도 되

지않았는데...)

명심은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전혀 느끼지 못
하며 새초들이 들성들성한 산아래로 마구 달려
내려갔다.

그가 나지막한 언덕으로 치달아오르는데 부상
자를 업은 한 군대가 머리를 수긋한채 땀을 소낙
비처럼 쏟으며 마주 걸어오고있었다. 그도 몹시
부상을 당했는지 다리를 절면서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그들과의 거리가 새초들이 와실령대는 나지막
한 언덕을 사이에 두고 가까와졌을 때 포탄이 날
아오는 소리가 쎄-앵 하구 하구 울렸다.

명심은 어망결에 얼굴을 찌지며 움푹 패인 폭
탄. 구멍이에 었되었다. 순간 병긋하는 섬팡이 눈
앞에서 일어났다. 이어 팡! 하는 포성이 꼭막을
때리고 푸수수 흠뻑이 온몸에 들썩워졌다.

명심은 반나마 흠에 묻힌 몸을 뿔자 나는듯이
앞으로 달려갔다.

새초무지를 사이에 두고 마주오던 군인들이 격
정되었던것이다. 불안이 온몸에 엄습했다.

명심의 불안은 가슴을 저미는 현실로 눈앞에
나타났다.

포연이 가시여진 둔덕우에 두사람이 흠먼지를
뒤집어쓰고 한몸이 되어 움작 앓고있었다.

《동무, 동무, 정신차리랴요.》

명심은 달려가 부둥켜안았다. 밑에 깔리어있는
사람은 지원군지휘관이고 그를 덮쳐안은 사람은
인민군지휘관이 었다.

누가 업고온 사람이고 업히여온 사람인지 통
알수가 없었다.

명심은 순간 심장이 멈추어서는듯싶었다.

어깨에 피가 랑자하게 흐르고있는 인민군지휘
관은 그 모습이 윤호와 너무나도 같았기때문이었
다.

(아니, 그럴수 없어. 방금까지도...)

명심은 도리머리를 치면서도 황급히 그를 끌어
안았다.

《아니!!》

명심은 입을 딱 벌리며 두눈을 비볐다.

그는 틀림없이 윤호였다.

명심은 펄쩍 땅에 물러앉아 윤호의 두어깨를
부여잡고 절통하게 부르짖었다.

《윤호동무...》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그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던것이다.

하늘땅이 맞돌고 눈앞이 아찔해왔다.

명심은 후들후들하는 손으로 간신히 상처부위
를 지혈부터 시켰다. 겹겹한 봉대층을 뚫고 피는
그래도 슴배여나왔다. 명심이의 손등우에 눈물
이 락수물 떨어지듯했다.

(이런 모습을 보자고 내가 만나기를 이렇게 애

절하게 기다려왔던가.)

승리의 날을 눈앞에 두고...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자고 하더니...)

명심은 몸부림쳤다.

이때 아픔을 느꼈던지 윤호가 까실까실한 입술을 꾸들 움직이면서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내었다.

그러다가 슬며시 눈을 떴다.

순간 윤호는 명심을 알아보았는지 눈에 정기를 담았다.

윤호는 손으로 명심이쪽을 더듬었다.

명심은 그가 자기의 손을 찾고있다는것을 알았다.

명심은 그에게 자기의 손을 맡기고 쓰러지듯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윤호를 사랑하며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가를, 래일의 행복을 얼마나 꿈꾸었는가를 그에게 죄다 말하고싶었다. 그러나 목이 꼭 메여오르고 눈물만 고랑을 지었다.

윤호는 명심의 손을 맥없이 잡고 다른 손으로 그의 흐트러진 머리를 다정히 쓸어주며 애써 웃음을 지었다.

천만마디 말을 대신하는 그의 이 행동에 명심은 더욱 걱정을 터쳤다.

그러는 명심에게 윤호는 간신히 말을 이었다.

《동무를 고지에서 만나게 되니... 정말 반갑소...그러리라 믿었소. 명심이, 나의 부탁을 들어주오. ... 저 사람은... 지원군중대장이요. 생명이 위급하여 빨리 후송하려고 했는데 나까지 이렇게 되고보니... 부탁하오. 부상이 심하오. 내가 불속에서 업어내온 저 동무를 명심이가 꼭 살려야 하오... 이것이 나에 대한... 나에 대한 사랑으로 받아안겠소...》

윤호는 더 말을 잊지 못하고 스르르 눈을 감았다.

(뭐 ? 중대장, 지원군중대장?...)

명심은 가슴속 깊은곳에서 울려나오는 그의 말을 온 넋으로 듣다가 소스라쳐 놀라며 그런듯이 누워있는 지원군중대장을 바라보았다.

윤호의 일로 그에 대하여 까맣게 잊고있던 명심이였다. 명심은 그제야 윤호가 다리에 부상을 당하고도 그를 업고 한걸음 두걸음 여기까지 왔으며 포탄이 터지는 순간 온몸으로 막아 그를 구원했다는것을 알았다.

순간 명심은 자기를 위하여 불사신마냥 말을 몰아 불길속을 치쳐들어갔다면 그 지원군중대장이 떠올랐다.

흠칠 몸을 떨며 그는 쓰러진 지원군중대장을 안아일으켰다.

그런데 그 중대장의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눈에 익었다. 그러나 어디서 보았던지 생각나지 않았다. 상처는 심하였다. 더는 지체할수 없었다.

명심은 마음을 다잡고 그를 업으려고 잔등을 돌리며 그의 앞에 앉았다.

그런데 그의 눈길은 땅바닥에서 멎었다. 풀숲에서 반짝이는 물주리를 보았던것이다. 아마 그가 쓰러질 때 호주머니에서 떨어진 모양이었다.

명심은 덜치듯 그것을 쥐고 간신히 살펴보았다.

몹시도 눈에 익었다.

할아버지가 만들고 자기가 속새풀로 대우를 낸 생당쑥물주리가 아닌가?!

명심은 부상자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제야 이 사람이 산병전을 친 고지에서 물주리를 물고 담배를 피우다가 윤호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왕동무라는 그 지원군중대장임을 알아보았다.

(그럼 이 사람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말인가?!)

그의 생각을 확증하기라도 하듯 지원군중대장의 주머니에서 담배쌈지가 반쯤 나와있었다.

명심은 급히 그것을 꺼내 펼쳐들었다. 자주색 공단천으로 만든 쌈지에 들국화를 곱게 수놓은것이 유묘하게 눈에 띄었다.

분명 자기의 숨씨였다.

(아, 나의 은인 지원군중대장!...)

명심은 쿵쿵 뛰는 가슴을 누르며 이를 악물고 그를 껴안았다. 그를 꼭 구원해야 했다. 그러나 이 순간 눈길이 윤호에게로 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사랑하는 윤호도 그의 생명의 은인이 아닌가!

윤호는 그사이 얼굴이 창백하다못해 거뭇하게 되어갔다.

명심은 저도 모르게 윤호에게 다가가서 그의 가슴에 귀를 가져다대었다.

그러나 자기 심장의 맥박소리만이 쿵쿵 울릴뿐 그의 심장의 박동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애써 마음을 진정하며 다시 귀를 강구었다. 그러자 멀리 지심속에서 들려오는듯한 심장의 박동이 간간히 들려왔다.

(조금만 참으세요. 윤호동무, 조금만... 제가 이제 업고가겠어요.)

명심은 무작정 윤호를 둘러업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발목은 자석에 붙은듯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옆에는 지원군중대장이, 불속에서 자기를 구원해준 잊지 못할 그 생명의 은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누워있지 않는가.

그의 귀전에는 할아버지의 거쿨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잊지 말아라.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 하느니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어떻게 두 은인일 함께 구원할 방도는 없을가? 나에겐 왜 장수같은 힘이 없을가... 안타까웠다.

명심은 두사람을 엿바꾸어가며 나를가 하는 생

각도 해보았다.

그러나 이내 도리머리를 쳤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연장되어 종래에 빠진 왕중대장이 위험에 처하게 될것이다.

이때 명심이는 윤호의 창백해진 입술이 재빨리 움직이는것을 보았다.

《빨리, 지원군...》

윤호의 입술은 더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명심의 귀전에는 윤호의 말마디가 봄우뢰마냥 울려왔다.

《...내가 불속에서 업어내온 저 동무를 명심이가 꼭 살려야 하오. 이것이 나에 대한... 나에 대한 동무의 사랑인줄...》

명심은 결연한 빛을 띠우고 중국인민지원군중대장을 가까스로 둘러업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것은 연연한 처녀의 몸으로 받아내기 실로 벅찬 장대한 사람을 업었기 때문만이 아니었으리라. 그렇게도 보고싶고 만나고싶던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가는, 그것도 꺼져가는 귀중한 생명을 남기고가는 마음은 또 얼마나 무거웠으랴...

명심은 머리를 돌려 곧추 앞을 쏘아보았다.

그리고는 한걸음 윤호에게서 물러났다.

입술을 으스러지게 앙다물고 비틀비틀 걸음을 옮기며 명심이는 속삭이었다.

《아 윤호동무, 안심하세요. ... 당신이 못다한 일을 제가 꼭 해내고 돌아오겠어요. 꼭 기다려주세요. 인차...》

처녀는 걸으며 어깨를 떨었다. 짹짹한것이 입으로 흘러들었다.

(윤호동무, 승리의 날이 멀지 않았지요. 우리가 것처럼 기다리던 날이, 우린 새집도 짓고...) 한줄금 맞바람이 새초우를 핏으며 불어치자 그의 웃고름이 퍼덕퍼덕 날렸다.

한걸음 또 한걸음... 사랑하는 윤호를 멀리 뒤에 남긴채...

허둥지둥 불굴음을 옮기던 그는 오솔길옆 푸른 수풀속에 점점이 널린 붉은 점들을 보았다.

무르익은 산딸기, 오늘 따라 피빛으로 불타는 산딸기는 덤불에서 빠끔히 명심이를 올려다보며 부르는듯, 쥐면 방금 터질듯...

(아, 아 산딸기!...)

윤호의 나무단속에서 철따라 나오던 산딸기... 첫사랑의 싹을 움틔워주던 새빨간 산딸기-아! 얼마나 많은 꿈들을 되새겨주는가... 너는 오늘도 윤호의 마음처럼 붉게붉게 타는가.

가장 귀중한 지원군동무를 위하여 사랑도 청춘도 고스란히 바치는 그 마음처럼...

명심은 혼자말로 끝없이 속삭이었다.

《명심아, 장하구나.》

명심은 들려오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와 절령이는 소방울소리, 동무들의 부름소리를 듣고 있어

지듯 달렸다.

흰수염을 흘날리는 할아버지와 함께 담가를 뻗 마을 젊은이들이 마을쪽에서 달려오고있었다. 부상병후송을 끝내고 런이어 달려오는 그들이었다.

명심이는 천길나락으로 떨어지는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며 그자리에 폭 꼬꾸라졌다.

《빨리 지원군동무를, 저 고지에. 윤호...》

×

그때로부터 며칠후 명심이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와 함께 군의소로 가고있었다. 윤호와 왕상봉이 사단군의소에 입원한후 유능한 외과군의들의 수술을 받고 정신을 차렸다는 기쁜 소식을 받았던것이다. 그래서 부랴부랴 떠나는 길이였다.

갓 빨아 풀을 먹인 흰 두루마기를 입고 매끈한 지팡이를 든 할아버지는 채수염을 바람에 날리며 기고만장하여 걸고 어머니는 보자기를 씌운 함지를 목이 움썽 들어가게 이고 힘든 기색도 없이 팔을 훨훨 내젓고있다.

꽃보자기를 둘둘 만것을 가슴에 안고 얼굴에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총총걸음을 놓던 명심은 그들의 한결 젊어진 모습을 보면서 방그레 웃음을 피여올렸다.

세사람이 군의소가 보이는 언덕우에 오르자 할아버지는 생각난듯 명심이를 돌아보았다.

《애 명심아, 그 사람의것을 잊지 않았느냐?》

지원군중대장 왕상봉이를 후송할 때 건사해준 물주리와 쌈지를 두고 하는 말이였다.

《할아버지도 참, 그걸 잊다니요. 이렇게 꽃보자기에 싼걸요.》

명심은 꽃보자기를 내보이였다.

《암 그래야지... 난 요즘 물주리와 쌈지를 두고 생각되는것이 많다. 담배물주리와 담배쌈지가 서로 떨어져서는 안될 물건이라면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은 뗄래야 뗄수 없는 친형제이고 피로써 맺어진 이웃사촌간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구나.》

할아버지는 자못 심중한 기색을 지으며 명심이를 바라보았다.

《아아 참 할아버진 새삼스럽게 또 그 말씀하시네.》

《싸움에서 이기고 산천경계를 바라보노라니 이 늙은게 생각이 깊어져서 그런다.》

(할아버지, 알겠어요. 말씀의 뜻을 이 명심이는 꼭 새겨두겠어요.)

그들은 언덕을 내리기 시작했다.

걸기 맞춤한 내리막길이었다.

잊지 못할 생명의 은인들끼리 만나게 될 군의소는 언덕아래 시내물이 도돌도돌 흐르는 그 건너편에 있었다.

나팔소리

송명근

금방 백두산을 내렸는가

밀림속을 빠져

삼지연기슭에 발걸음 높이 나서는

조국진군의 긴 대오앞엔

아, 항일유격대의 나팔수!

다시 한번 병사혁띠를 조이며

다가선다 대기넘비 군상앞에

거창한 나래인양

하늘에 솟구쳐오른 나팔수의 백포자락

나의 군복 어깨우에 펄럭이고

뜨거운 입김이 내 불을 스치는가

태고연한 밀림이 폭풍을 안은듯 설레인다

만리대공이 찢렁 갈라지는듯

오, 나팔소리

병사의 피를 끓이는 돌격나팔소리!

저 메아리따라

봄빛푸른 안도 밀림을 떠난 대오

광복의 려명을

서슬푸른 총창에 비껴들고

그립던 조국땅에 함성높이 닿았으니

가닿을 끝은 어디나

울려라, 나팔소리

불뽕는 저 기관총의 뜨거운 총신을

이 어깨로 받치게 해다오

불날린 저 작탄

이제는 내가 받아안고 내닫게 해다오

저 메아리 들으며

산발을 치달아오른 항일투사들의 발자욱이

사령부의 안녕을 지켜

삶의 절정에 찍혀졌듯이

저 메아리 들으며

담가우에서도 소스라쳐 깨어난 투사

뜨거운 눈길이 먼저 사령부귀틀집을 찾았듯이

저 메아리속에

내 마음도 걸음도 맞추고싶어

내 번호를 소리쳐부르며

저 돌격선에 들어서나니

항일대전의 날에

내 태어나지 못했어도

나아가리, 언제나 너의 메아리속에

쓰러져도 영광인 너의 메아리속에

백두산을 내리는 저 대오에

나를 세우는 나팔소리-

원썩의 아성을 단숨에 들부실

폭풍같은 백두의 숨결로 간직하나니

내 삶의 그 어느 순간도

불타리라, 너의 메아리속에

내달으리라, 수령님 보위하는 저 돌격선에

울려라 대를 이어 세월을 넘어

오, 돌격나팔소리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멈추지 않는 백두의 구령소리여!

방직일가

윤명숙

해쓷는 아침
출근길에 나선 아바이
어느때없이 즐거웠네
직포공이 되어 첫 출근하는
말손녀와 함께 옮기는 걸음이

또 하나 새 방직공이 태어났다고
공훈열관리공아바이 웃음이 벅글
술한 사람들과 인사도 즐거웠네
머느리와 어깨 나란히
퇴근길에 마주오는 마누라를 바라보며
아바이 하는 말
-애가 오늘 첫 출근하오

그렇지 않아도 반가왔네
대를 이어 방직공으로 사는 가정
마누라도 기뻐서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가고

어제는 이 길에서
제대군인 만이를 맞이하더니
어느덧 다 자란 아들과 함께
새로 들어서는 손자들을
이 길에 세우며 걸음을 옮길 때마다
더욱더 가슴속에 깊어지는 생각

아바이 가슴속엔 누데기도 못걸치고
불길앞에서 숨진
아버지의 그 사를 잡고
소년열관리공으로 걸어가던
쓰라린 추억이 서린 그 길이 아니었던가

방직기계를 등짐으로 나르며
불길속을 뚫고 헤치며 수십리
높이 올리던 직기소리 심장속에 간직한 아바이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 이틀만에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
보이라의 첫불길을 지퍼드리지 못한 그 안타까움
마사진 보이라의 싸늘한 벽체를 잡고

몸부림치던
아 그날부터가 아니었던가

어버이수령님 아바이의 터친 손을 잡으시고
방직공장을 대를 이어 지켜가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걸어주시던
사랑의 구내길에 오늘은 자식들과 손자들을
모두 걷게 하는 길이어

정방기의 가락에 마음을 감아
실토리를 3배나 올려주는 머느리에게 질세라
영웅의 어머니와 딸이
순회길 함께 달리며
짜내는 비단의 흐름
시계의 초침으로 재여보는 방직일가

세월과 함께
이어지고 꽃피는 사랑의 이 길에서만
방직일가가 누리는 행복이여
그래서 귀밑머리 희여가도
치녀들처럼 머리수건을 날리며
당을 받드는 마음 비단으로만 흐르고

언제나
이런 아침을 맞아 세월은 가고
날마다 더해지는 어버이 그 사랑을
수놓아갈 불타는 마음들이
새라새 마음으로 맞이하는
아침은 좋아

방직일가의 기쁨이
비단꽃으로 만발하고
방직일가의 행복이
꽃물결로 넘쳐나는
창조적로동의 기쁨과 노래로 하여
끝없이 달음쳐오는 그 미래는
그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가

아침마다
엇갈리며 헤어지며

한 구내길에
방직일가의 출근길과 퇴근길은
서로 달라도
하나의 맥박
하나의 숨결속에 고동치며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따르는
하나의 이 길밖엔 몰라라
방직공의 대가 이어지는
하나의 이 길밖엔...

락원의 목소리

김휘조

고진강 찬바람
재가루 흩날리는 구내길로
걸음걸음
동강난 송풍기를 메고 걸으며
락원의 열명당원들 한 말이 있다
언제나 마음의 기둥이 있어야 한다고

타오르는 주형장의 화로불결에
한장, 또 한장
불에 끄는 벽돌을 쌓으며
천만마디 말 다 모아 한 말이 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마을의 기둥이 있어야 한다고

정녕 무엇이 있었던가
불더미로 내려앉은 지붕아래
아무것도 없었더라, 살결같이 쓰다듬던 용선로도
꿈 많은 눈에 담아보던 쇠물의 붉은 빛도
한조각 철판도...

봄 아지랑이같이 피어나던
그 소원마저 피눈물에 얼룩진
가슴속엔 다만 하나 마음의 기둥
희망도 생명도 수령님께 맡기고
일편단심 그이를 따를 마음의 기둥

그 마음 구내의 철길에 이으며
마치소리 멀리 메아리를 울리던 날이며
눈보라 찬바람 더운 입김으로 녹이며
한치한치 용선로를 끌어오던 날이며
그 마음 어려 락원의 쇠물빛은
그렇게도 붉게 탔던가

아, 그날의 쇠물빛이
아름다운 노을로 비긴 거리
내 지금
변퍽이는 대리석건물들을 바라본다
한장한장 불에 끄는 벽돌을 쌓을 때
그들은 이렇듯 큰 집들을 짓고있었구나
걸음걸음 흩날리는 재무지를 헤치며
이렇듯 눈부신 길을 열어가고있었구나

부드러운 봄바람은 내 옷자락을 흔든다
그들의 꺼지지 않는 숨결인가
거리의 들끓는 음향이 나를 부른다
그들이 남긴 끝없는 행복의 노래인가

언제나 흔들림없던
그들의 마음의 기둥
그것은 수령님 따르는 길에
저 푸른 하늘도, 이 땅도 있다는
굳센 신념의 기둥
눈부시고 복된 오늘의 모든것이
받들려있었이었나니

해쏜는 아침에도
별뜨는 저녁에도
내 언제나 락원의 구내길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며

가장 빛나는 길
참된 삶의 한길에 나를 세워주며
아, 락원의 불같은 목소리
오늘도 들려온다-
가슴속엔 언제나 마음의 기둥
억센 신념의 기둥이 있어야 한다고

감격의 그날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중국인민해방군가무단 수행일지중에서-

정영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종친선은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 친선입니다. 조종친선은 앞으로 대를 이어가며 더욱 활짝 꽃피날것이며 두 나라의 강산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입니다.》

중국인민의 위대한 수령 모택동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함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밑에 중국인민지원군용사들이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선전선에 달려나와 우리 인민과 한전호숙에서 어깨걸고 싸우던 그때로부터 30여년세월이 흘렀다.

세월은 흘러 강산은 변했지만 피로써 맺어진

조종친선은 변함없이 대를 이어가며 더 높은 단계로 강화발전되고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중국방문은 조종 두 나라 인민과 군대들 사이에 피로써 맺어진 전통적인 친선단결의 공고성과 불패성을 뜨겁게 확증한 역사적인 사변이었다.

오늘 우리는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일을 맞으며 지난 5월에 우리 나라를 방문했던 중국인민해방군가무단의 우리 나라 체류기간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적은 수행일지를 펼쳐들고 감격의 나날을 뜨겁게 더듬어보게 된다.

잠들수 없는 밤

수도의 즐비한 고층건물들이 별무리 흐르는 밤하늘에 지붕을 묻고 단잠을 자는 이 밤,

릉라도를 감돌아 흐르는 대동강을 끼고 아늑한 숲속에 자리잡은 중국인민해방군가무단 숙소에서는 자정이 넘도록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친선의 예술사절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기 위하여 자기 조국을 떠나는 시각부터 품고있던 념원이 이날 저녁 만수대에술극장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중국인민해방군가무단의 공연을 친히 보아주시고 높이 평가해주시였으며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지휘성원들과 주요배우들을 만나주시였다.

언제나 조종 두 나라 인민들과 군대들 사이의 친선관계를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가무단공연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는 중국노래 《중조인민은 한집안식구와 같네》의 노래가 울려 퍼졌을 때 처음부터 박수를 뜨겁게 쳐주시였다.

장백산 산정엔 실구름 나뭇기고

압록강기슭엔 꽃들이 만발하네

산천은 노래하고 중조인민은 한가정이니

우리의 친선의 노래여

이 세상 끝까지 울려 퍼지라

평양-베이징의 하늘가에 칠색령롱한 무지개다리가 비낀듯 우리 나라 기발과 중국기발이 찬연히 드리워진 아래에서 두 나라 인민들과 군대들의 의상을 곱게 입은 무용가들이 친선단결의 춤을 추는 감동적인 장면을 바라보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공연이 끝나자 무대우에 가무단 전체 성원들이 나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을 우러러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였다.

그것은 그대로 항일혁명투쟁시기로부터 대를 이어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되는 조종친선의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는 숭고한 화폭이었다.

격동과 흥분을 안고 숙소로 돌아온 해방군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은 동무들을 만나 《주석께서 잡으셨던 그 손을 만져보자》 《주석께 꽃다발을 올리며 뭐라고 말씀드렸는가》고 하면서 좀처럼 진정을 하지 못하였다.

밤이 깊어가도 그들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자기 조국에 있는 부모들과 처자에게 편지들을 쓰기에 여념이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은 양흥기(남성중을

독창가수), 화초(무용배우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의 아들역), 진뢰(녀성고음독창가수), 왕하(무용배우 《금산의 북소리》의 주인공역)… 등은 침대에 누웠지만 좀체로 잠을 이룰수 없다고 하면서 오늘의 이 영광을 대를 두고 전하겠다고 흥분된 어조로 말하였다.

그러면서 왕하는 건장하신 위대한 주석을 만나 뵈울 때 나는 얼마나 행복하였는지 모른다.

경애하는 주석의 건강은 조선인민의 행복이며 중국인민의 행복이라고 뜨겁게 이야기하였다.

공연직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 꽃뭉음을 드린 무용배우 맹미는 상기된 얼굴로 일기를 쓰고있었다.

뜻깊은 오늘의 사연을 적고난 그는 자랑스럽게 우리에게 일기장을 보여주는것이였다.

-6월 7일…

오늘은 정말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이신 **김일성** 주석께서 우리의 공연을 보아주시였다.

이것은 우리 가무단 전체 동지들이 오래동안 품고있던 념원이였다.

우리 동무들은 오늘 경애하는 주석께 가장 좋은 작품을 가지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공연해드림으로써 **김일성** 주석에 대한 중국인민의 뜨거운 경의를 표시하겠다고 결의다졌다.

나는 **김일성** 주석께 꽃다발을 드릴 영광을 받아안은 순간 매우 격동되었으며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

저녁 8시,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께서 관람석으로 나오실 때 나는 부풀어오르는 마음을 안고 주석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꽃뭉음을 드리였다.

주석께서는 만면에 미소를 지으시며 나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그 순간에 나는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고 심장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인사를 올리였다.

나의 심장은 이루 형언할수 없는 행복으로 높뛰였다.

………

일기를 쓰는 이 시각에도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신 **김일성** 주석의 영상이 자꾸만 눈앞에 어려와 흥분을 좀체로 가라앉힐수 없다.

한평생을 두고 잊을수 없는 오늘의 이 영광을 나의 부모님과 나의 전우들에게 어서 빨리 전하고싶다. …

일기장의 이 소중한 글발을 보여주면서 무용배우 맹미는 이것은 위대한 주석께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드리고 접견을 받은 해방군예술단 전체 예술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하였다.

방금 망울을 터친 꽃처럼 곱게 벌린 작은 입술과 웃음이 넘쳐 반짝거리는 그의 머루알같은 눈빛에는 가장 행복한 순간의 희열이 넘쳐있었다.

밤이슬이 정원수의 나무잎에 떨어지면서 흐트러놓는 그윽한 정적은 오히려 갑절로 짙어간듯싶었다. 나의 사색의 심연은 끝없이 깊어만갔다.

잠들수 없는 밤, 력사의 밤은 이렇게 흘러갔다.

주은래 총리의 동상앞에서

6월 X일 이른아침에 중국의 상해시와 뿔어진 천선도시 함흥에 도착한 중국인민해방군가무단 예술인들의 가슴은 마냥 설레였다.

역두에서부터 숙소에까지 늘어선 수만명을 헤아리는 환영군중의 꽃바다…

조종천선의 열화와 같은 감정의 분출인양 하늘 높이 울려퍼지는 환호성, 감동적인 모든 화폭들이 중국예술인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새겨졌던것이다.

더우기 숙소에 도착하여 아침식사가 끝나자 주은래동지의 동상을 방문한다는 기쁜 소식은 그들의 가슴을 더욱 울렁거리게 하였다.

언제나 중국인민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주은래

동지!

우리 인민들 역시 위대한 수령님의 가장 친근한 전우였던 주은래동지를 추억하면 조종천선의 깊은 뿌리를 생각하게 되고 그 길우에 바쳐진 그의 불멸할 공헌을 가슴뿌듯이 느끼게 된다.

돌이켜보면 1958년 2월 1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서서는 주은래동지와 함께 동해의 찬바람에 옷자락을 날리시며 흥남 비료련합기업을 찾아주시였다.

바로 력사의 그 자욱을 남기신 공장구내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배려로 세워진 주은래동지의 동상은 영원불멸할 조종천선의 불패성과 공고성을 뚜렷이 확증하듯 거연히

서있다.

중국인민해방군가무단이 공장에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수천명의 연합기업소 노동자들은 두 나라 기발과 꽃뭉음을 들고 이른아침부터 환영연도에 나와있었다.

어제까지 찌뿌둥하게 흐렸던 하늘도 친선의 예술사절을 맞이한 기쁨으로 맑게 개이고 《80년대 속도》창조를 위한 주체조국의 거센 숨결인양 공장의 굴뚝에선 창조의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이곳 로동계급들의 뜨거운 환영에 답례를 보내면서 스승의 동상앞에 이른 가무단 예술인들은 정중하게 대렬을 짓고섰다.

너성배우들이 화환을 드린 다음 목상곡이 장중하게 울리는 가운데 전체 일행은 동상을 향하여례의를 표하였다.

...대렬속에서 흐느낌소리가 들렸다.

깊은 애도의 뜻을 안고 동상의 주위를 돌아 발걸음을 옮기는 땅우에 해방군 예술인들의 뜨거운 눈물이 점점이 뿌려졌다.

너성독창가수 조옥진 (우리 나라 노래 《아무도 몰라》의 선창자)은 동상의 기념비에 새겨진 글발을 수첩에 옮기며 종내 오열을 터뜨렸다.

.....

즐거운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모주석의 뜻을 받들고
조종친선을 귀중히 여겼나니
항일의 혈전만리 함께 헤쳤고

미제를 타승하는 한전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 주은래동지

아 압록강의 맑은 흐름과 같이
백두산의 푸른 소나무와 같이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해도
조종인민의 친선단결은 영원하리라

가무단의 책임일군은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총리는 중국인민의 가장 친근한 스승인 동시에 **김일성**주석과 조선인민의 가장 친근한 전우이다.

주총리는 중조친선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

오늘 우리가 주총리의 동상을 방문하게 된것은 중조친선과 단결을 대를 두고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앞으로 우리는 고귀한 그 뜻을 받들어 중조친선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하늘의 머리우에 끝없이 푸르고 동해의 물결도
오늘의 감격을 안고 설레이는가!

마음속에 영생하는 스승의 동상앞에 점점이 뿌려진 애도의 눈물은 조종친선의 만발한 화원에
더욱 풍만한 향취를 터치며 떨기떨기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리라.

그의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

중국인민해방군가무단이 금강산지구에서 공연활동을 벌리고있던 어느날이었다.

그들이 전연고지를 참관하고 공연하기 위하여 숙소를 떠난것은 오전 10시경이었다.

온갖 새들의 지저귀이 한껏 젖어든 연록색숲이 바야흐로 질어가는 6월의 금강절경일 관망하며 차를 타고 달리는 우리의 가슴은 끝없이 부풀어 오르기만 하였다.

망망한 바다우에 봉긋봉긋 치솟은 잔섬과도 같이 짙은 운무속에 비죽비죽 예각을 이루며 내민 메부리들... 참으로 장관이었다.

떠날 때부터 차안에서 깊은 명상에 잠겨있던 귀밑머리 희승희승한 가무단의 한 책임일군은 연연히 뻗은 전적지들을 바라보며 저오기 흥분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에게는 지금 동해바다의 백사장을 거슬러 들어오는 솔바람소리도, 최쪽에 남모르게 피어난 들꽃도 그지없이 정다웁게만 여겨졌다.

《벌써 30여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직업적인 관습에서 수첩을 펼쳐들고 그의 다음말을 기다렸다.

가슴속에 잊지 못할 추억들이 소용돌이치는 듯... 그는 한동안 눈을 지그시 감고있었다.

그때 수행한 우리의 한 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감회깊은 이야기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0여년전에 나는 모주석의 높은 뜻을 받들고 중국인민지원군의 어느 한 야전군 문공단 단장으로 조선전선에 나와 바로 여기 강원도일대에서 공연활동을 벌린적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 오늘은 그 후대들을 데리고 이렇게 옛 싸움터를 찾게 되었으니 생각할수록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나라 춤 《사과뽕년》에 나오는 무용배우 려령의 실례를 들었다.

50년대엔 그의 어머니 애화(당시 무용배우, 현재 강서성가무단 안무가)와 함께 불비 쏟아지는 조선전선에 나왔었는데 오늘 80년대엔 그의 딸 려령을 데리고 조선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항일혁명의 피어난 투쟁속에서 맺어지고 공고해진 중조친선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날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 옛 전적지에서 공연하게 된 려령은 세차게 굽이치는 감격의 파도속에 휩싸였다.

공연이 시작되자 우리 나라 의상을 입고 분장실에 조용히 앉아있는 려령의 눈앞에는 조선방문의 길을 떠나기에 앞서 어머니로부터 보내여온 편지의 글발들이 되새겨졌다.

.....

조선전쟁시기 중국인민지원군 전투원들과 문공단 배우들을 자기의 친아들딸처럼 극진히 아끼고 사랑해주며 따듯이 돌봐주던 조선의 어머니들에게 나의 인사를 전하대오.

형제적 조선인민과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나의 뜨거운 감정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고...

피로써 맺어진 중조친선을 위한 길에 너의 고귀한 땀이 스며든다고 생각하니 어머니는 더없이 기쁘다. ...

어머니의 부락을 안고 그때의 어머니처럼 공연 활동을 벌리는 딸의 심정,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려령은 조선의 전우들을 위해 춤을 추는 자기의 마음은 지금 전화의 날 어머니의 마음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로부터 80년대로 이어진 조중친선의 정은 이렇게도 변함이 없는것이다.

진실한 토대우에서 굳건히 이어지고있는 조중친선!

그것은 영원불멸할것이다.

장배배의 돌생일날

해방군예술인들이 분계선 도시 개성을 방문하기 위하여 자동차로 길을 떠난것은 지난 5월 25일 이었다.

이날은 바로 가무단의 녀성독창가수 정계란동무의 맏아들 장배배의 첫돌이 되는 날이었다.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첫 아기의 돌생일날, 그것도 맏아들의 돌생일날은 매우 기쁘고 뜻깊은 날이다.

그날에 귀여운 아기에게 입힐옷은 어떤것으로 준비하며 사진은 어떻게 찍어줄것인가. 첫돌을 축하하러 온 이웃들과 친척들은 어떻게 맞이할것인가 등등을 생각하며 좀처럼 진정을 못하는것이 첫아이의 돌잔치를 맞는 젊은 어머니들의 심정이다.

이런진대 멀리 조국에 첫돌을 맞는 어린 아들을 두고 외국공연의 길에 오른 어머니의 가슴속에 어찌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하지 않으랴!

그러나 이날 배배의 어머니 정계란동무는 평양을 떠나 지방순회공연의 길에 오르면서도 이런 내색을 조금도 비치지 않았다.

우리 일행이 개성으로 가던 도중 어느 한 정각에서 잠시 머무르며 휴식을 하고있을 때였다.

이 시각에도 정계란동무는 자기가 부르는 우리

나라 노래 《만경화》에 담겨진 깊은 사상과 감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형상하여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을 기쁘게 할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인민배우 최삼숙이가 부른 《만경화》의 록음테이프를 틀어놓고 한소절 한소절 정력적으로 연습을 하였다.

그러나 개성에 도착하여 우리는 어느 한 배우로부터 정계란동무의 아들이 오늘 첫돌이 되는 날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순간 우리의 가슴은 뜨거웠다.

그도 그럴것이 전날밤에도 지방공연에 나가기 위하여 무대를 옮기는 전투를 벌렸는데 이런 내색은 조금도 없이 남삼동무들과 같이 그 누구보다도 땀을 많이 흘리며 일하였기때문이다.

개성에서는 이날 저녁 중국인민해방군가무단을 환영하는 연회가 있었다.

연회석상에서 우리의 한 일군은 이런 뜻깊은 사연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오늘 이 연회는 정계란동무의 맏아들의 돌잔치로도 된다고 하면서 그에게 한뼘기의 꽃과 함께 축배를 부어주었다.

그러자 정계란동무는 순간 정색해지다가 뜨겁게 인사를 표시하고 자기는 중조친선의 길우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첫돌생일을 맞는것을 더없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여 연회참가자들을 크게 감당시켰다.

자기의 첫돌생일날 사랑하는 어머니를 조종천 선의 길우에 보낸 귀여운 중국어린이가 장배배!

이제 세월이 흘러 그가 어른이 된 다음 오늘의

어머니의 숭고한 정신적품모를 헤아릴 때 조종 천나라 인민과 군대들 사이의 친선단결이 얼마나 더 뜨겁고 공고한것으로 대가 이어질것인가를 생각하는 우리의 가슴속엔 후더운것이 조수처럼 끓어올랐다.

보초를 우리가 서겠소

번쩍스런 바다날씨는 아침부터 음산하였다. 먹장같은 검은 구름이 뿌옇한 하늘에 울썸년스런 얼룩을 지어놓았다.

어제 함흥시경기장 야외가설무대에서 공연할때는 뜨거운 열풍이 몰아쳐 가무단예술인들앞에 난관을 조성하더니 오늘은 갑자기 바다에서 비구름과 찬바람을 몰아왔다.

이런 날씨에 바다기슭의 야외무대에서 공연한다는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허나 뿌리 깊은 락락장송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에 잇닿은 깊은 물은 왕가물에도 마르지 않는 법이다.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해방군예술인들은 드림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서 몸소 두차례나 다녀가신 바다가 초소의 어느 한 구분대를 방문하기 위하여 길을 떠났다.

그들이 구분대에 도착하였을 때는 파도소리가 더욱 높았다.

떼구름처럼 연줄연줄 기슭으로 밀려온 파도는 바다가녁의 바위에 부딪쳐 광광 울부짖으며 금시 바위를 삼켜버릴듯이 흰갈기를 날리었다.

가무단의 책임일군은 이곳 구분대 군인들의 전투적인 훈련모습을 보고나서 월미도의 영웅전사들을 방불케 한다고 하였다.

무용배우 리건안, 삼소봉, 하금, 주기를 비롯한 모든 배우들이 우리도 월미도의 영웅들을 따라배우는 심정으로 공연을 전투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돌바위기슭에 소박하게 쳐놓은 천막안으로 들어가 출연준비에 서둘렀다.

바로 이때 포진지에서 근무를 서고있는 두명의 병사들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고있던 손진재, 라유희, 주문기동무들이 우리를 찾아와 이렇게 제기하는것이였다.

우리가 저 동무들을 대신하여 보초근무를 서고 저 동무들을 구경시키는것이 어떤가? 만약 우리가 근무를 설 때 정황이 발생하면 육탄이 되어서라도 초소를 믿음직하게 지키겠다고.

이런 제기를 받는 순간 우리의 가슴에는 그들

에 대한 뜨거운 신뢰의 감정이 급류처럼 소용돌이쳤다.

알고보니 그들은 공연에 출연하지 않는 무대조성원들이였다.

우리 어찌 혁명적전우들사이의 우정이라는 단순한 말만으로 그 깊은 뜻을 다 표현했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준엄하고 간고한 혁명투쟁의 나날에 피로써 도와주고 고무하여준 계급적형제들의 뜨거운 신뢰의 정이 가슴마다 차넘치지 않고서는 이런 제기를 할수 없다.

공연이 시작되어 독창가수 정계란동무의 차례가 되었을 때였다.

우리 나라 소개자는 예술영화 《월미도》의 주제가 《나는 알았네》의 노래제목을 소개하면서 이 노래는 정계란동무가 원산에서 공연을 하던 다음날에 해군구분대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밤동안에 곡과 가사에 대한 연습을 완성하여 그곳구분대군인들앞에서 불러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하였다.

그러자 군인들은 무대우에 나온 정계란동무에게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독창가수는 뜨겁게 승화된 심장에서 울려나오는 노래를 목청껏 불러 몇번씩이나 무대에 다시 나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바다기슭을 뒹굴며 거품꽃을 다복다복 피워놓는 파도는 그대로 환영의 꽃보라로 형제적예술인들의 전투적인 공연을 축하하는듯싶었다.

이날 중국예술인들은 모래불이나 다름없는 야외무대에서도 무용 《자랑찬 전사》,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금산의 북소리》 등 여러 무용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고급무용동작들로 편결된 작품내용들을 훌륭히 형상하였다.

해방군가무단의 우리 나라 체류기간의 하루하루는 이처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민과 인민군군인들을 위한 나날이었으며 조종 두 나라인민과 군대들사이의 친선과 단결을 위한 자랑스러운 나날이였다.

상 봉

중국인민해방군 예술인들이 조중친선 택암협동 농장을 방문하였을 때 일이다.

이날 농장의 회관에서는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의 고결한 사상감정으로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감격적인 상봉이 벌어졌다.

그것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중국인민지원군들속에 《도라지처녀》로 널리 알려졌던 석길영어머니와 중국예술인들과의 뜻깊은 상봉이었다.

석길영어머니로 말하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지원군부상병들을 후송하는 담가대대원으로서뿐 아니라 그들의 친누나로 동생으로서의 성의를 다한 어머니이다.

어느날 그는 입맛을 잃고있는 지원군환자들을 위해 도라지를 캐러 산에 올라갔다.

그날따라 적들은 연산지대에 함포사격까지 더욱 집요하게 들이대며 발광하였다.

그러나 자기 고향과 조국을 멀리 뒤에 두고 우리 나라의 산과 들에 청춘의 고귀한 피를 뿌려가는 의로운 전사들을 친혈육처럼 위하는 석길영어머니의 불타는 마음을 꺾버릴수는 없었다.

포탄이 주위에서 작렬할 때마다 그의 눈앞엔 푸른 섬광이 번쩍이고 양갈진 파편들이 치마자락을 사정없이 물어뜯었다. 허나 그는 누워있는 지원군동무들을 생각하며 한뿌리의 도라지라도 더 캐려고 있는 힘을 다하여 벼랑을 뚫아오르곤하였다.

그런데 도라지 한바구니가 거의 찰무렵 가증스런 적의 포탄이 그로부터 아주 가까운 거리에 날아와 터졌다.

《앗!》

순간 처녀는 다리에 심한 충격을 받으며 그자리에 쓰러졌다.

애오라지 지원군환자들의 병이 빨리 나아지라 한뿌리 두뿌리 깨닫은 도라지바구니가 흘러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석길영어머니는 자신의 부상당한 다리는 미처 의식하지도 못한채 피흐르는 다리를 끌며 기여가 바구니를 안고서 의식을 잃고말았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지원군동무들은 석길영어머니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앞을 다투어 팔을 내대며 그에게 수혈을 해줄것을 요구했다.

《나의 피를 석길영동무에게 넣어주세요!》

《나의 피를 먼저 뽑으시오!》

.....

석길영어머니의 뜨거운 손길을 통하여 고향의 다심한 어머니와 누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불소나기속에서도 언제나 병곳이 웃음을 짓던 지원군전사들...

그들은 석길영어머니를 자기들의 야전병원에

입원시키고 온갖 성의를 다하여 치료해주었다.

이런 잊지 못할 사연을 간직하고있는 석길영어머니는 이날 중국인민해방군가무단이 린근마을에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30리길을 달려왔던것이다.

해방군예술인들의 공연이 끝났을 때 석길영어머니는 의족을 한 불편한 몸으로 꽃뭉음을 들고 무대로 향했다.

하지만 달려가는 마음처럼 의족을 한 발은 안타깝게도 말을 잘 듣지 않았다.

무대우에 빨리 오르려고 애쓰는 석길영어머니, 어느새 이 사실을 알고 무대에서 뛰어내려가 어머니를 부축하여 올라오는 중국인민해방군 예술인들.

순간 무대우에는 크나큰 격정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어머니!》, 《어머니!》

자기들이 받아안았던 꽃뭉음을 석길영어머니에게 모두 안겨주며 그를 부둥켜안고 돌아가는 해방군예술인들의 눈가에는 맑은 이슬이 번쩍이었다. 그들의 두눈엔 지극히 아름다운것을 보고 느끼는 감정의 분출인양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면서서 모든것이 흐릿하게 보였다.

이날 자기 아버지가 지난 전쟁시기에 지원군으로 조선전선에 나와 상감령전투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 부상당하였다는 가무단의 소개자 한월교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석길영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영화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의 참관을 통하여 잘 알고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를 만나보니 상감령전투에서 나의 아버지가 부상을 당하였을 때 어머니와 같은 조선의 친근한 어머니의 따뜻한 간호를 받으며 몸을 인차 회복하였다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지원군의 후대로서 나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중조친선을 위한 길에 자기의 고귀한 피를 바친 어머니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석길영어머니는 한월교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였다.

30년전에 한전호속에서 싸우던 중국인민지원군동무들을 보는것 같다.

그 후대들을 만나니 더욱 감격스럽다.

대를 이어가며 조중친선을 꽃피우도록 나의 자식들을 키우겠다.

참으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아름답게 수놓아지는 조중친선의 감동적인 화폭이고 가슴뜨거운 이야기다.

잣죽에 깃든 이야기

중국인민해방군가무단이 분계선 도시 개성에서 공연활동을 벌리고있던 어느날 아침이었다.

숙소에서는 손님들에게 잣죽을 대접하였다.

예로부터 잣죽은 사람들의 원기를 돋구어주고 몸을 보하는데 아주 좋은 음식으로 전해오고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 숙소의 일군들의 각근한 보살핌의 손길을 헤아리면서도 이 잣죽에 그 어떤 사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앞서는걸 어쩔수 없었다.

우리의 예감은 틀림이 없었다.

그날아침 손님들에게 잣죽을 대접하게 된 사연을 알게 된 우리는 가무단의 한 일군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나고 이 땅에 전후복구건설의 노래소리 메아리치던 어느해 봄이었다.

개성지구 장풍군일대에 주둔하고있던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은 원쑤들의 폭격에 불타버린 조선의 산과 들에 잣나무들을 한그루 한그루 정성들여 심었다.

피흘려 지킨 땅이기에 그 땅우에 피여날 락원의 봄동산을 뜨겁게 그려보며…

참으로 우리 인민의 힘겨운 투쟁을 피로써 도와주고도 참혹하게 타버린 조선의 산과 들을 보는것이 가슴아파 잣나무를 심은 지원군용사들의 숭고한 뜻이 어려서인가.

《함미원조보가위국》의 가치를 높이 추켜들고 그들이 조선전선에 참전하던 날 조선의 일목일초를 귀중히 여기라고 하신 모주석의 고매한 그 정신이 어려서인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해마다 푸르려 설레이는 잣나무숲…

그날의 그 사연 뜨겁게 속삭여주는듯 푸르청청한 아지마다에 잣열매가 주렁질 때면 이곳 인민들은 더더욱 지원군용사들이 그리워지고 잊지 못할 전화의 날 한전호숙에서 싸우던 그때를 감회깊이 회상하군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장풍군일대의 인민들은 그 잣나무숲에서 따들인 잣을 언제나 잘 간직해두었다가 요긴한 때 쓰곤 하는것이다.

그런데 중국인민해방군 가무단이 개성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잣을 숙소에 보내여왔고 숙소의 일군들은 숭고한 뜻이 어린 그 잣으로 죽을 쑤었던것이다.

미풍량속이라는 말로써는 도저히 설명할수 없는 이 이야기에는 혈육과 같이 뜨겁고 진실한 우리 두 나라 인민과 군대들 사이의 친선의 감정이 맥맥히 흐르고있는것이다. …

뜻깊은 사연이 담긴 잣죽에 깃든 이야기를 듣고 난 가무단의 그 일군은 잣나무숲이 사시장철 푸르려 무성하듯이 피로써 맺어진 중조친선은 영원할것이라고 뜨겁게 이야기하였다.

남녘땅이 바라보이는 고지에서

분계선 철조망이 림진강을 열기설기 질려간 전연고지에 중국인민해방군가무단이 찾아온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식을 들은 이곳 초병들은 온밤 명절분위기에 휩싸여 친선의 예술사절을 맞이할 준비에 서둘렀다.

그들은 동녘이 훤히 떠오자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국인민지원군용사들이 수십대의 적 땅크를 맞받아 영웅적으로 싸워 끝까지 고수한 고지의 들꽃을 꺾어다 향기 그윽한 꽃묶음을 만들었다.

《함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밑에 조선의 나무하나 조약돌 하나도 것처럼 귀중히 여기며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던 지원군용사들의 고결한 넋이 어찌 고지의 들꽃은 그리고 빨갛게 피었는가…

떨기떨기 아름답게 피여난 들꽃의 향기는 고지를 끝까지 지켜 싸우다 희생된 지원군렬사들의

후더운 숨결처럼 초병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젖어들었다.

이런 뜻깊은 꽃묶음을 받아든 중국인민해방군 예술인들의 눈시울은 뜨거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난 가무단의 무용배우 오남평의 가슴속엔 격정의 물결이 일렁이었다.

지난 전쟁시기 모택동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어느 한 야전군단의 지휘성원으로 조선전선에 달려나와 싸우던 아버지의 위훈이 깃든 땅에 아름답게 피여난 들꽃을 가슴에 안았으니 어찌 설레이는 마음을 진정할수 있었으랴!

이곳 구분대의 감시소에 올라온 그는 50년대 아버지가 쌍안경으로 적의 진지를 바라보며 작전을 구상하던 그 숭엄한 자세로 오래동안 쌍안경으로 거만하게 웅크리고있는 미제놈들의 진지를 증오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이날 남녘땅을 바라보며 가무단의 한 일군은 여기는 바로 조선의 전연진지일뿐만이나라 중국

의 천연진지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검은 구름이 뭉게뭉게 떠도는 남녘의 하늘가로 해방군예술인들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는 울려갔다.

특히 독창가수 오배문동무의 독창 《조선은 하나다》는 이곳 초소군인들의 심장을 뜨겁게 하였다.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는 미제국주의침략자들과 전두환역도에 대한 치솟는 증오를 안고 이 노래를 부른 오배문동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고향은 중국의 하문이다…

하문은 이 고지에서 남녘땅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대만이 가까이 보이는곳에 있다.

나는 오늘 이곳 초병들앞에서 미제침략자들로 하여 갈라져있는 조선의 남녘땅과 중국의 대만을 생각하며 《조선은 하나다》를 불렀다.

조선과 중국은 반드시 하나로 통일된 나라들이 되어야 한다.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는 이 고지에서 피흘려 싸운 선렬들처럼 언제나 조선전우들과 함께 어깨걸고 싸우겠다.

공연이 끝나고 해방군가무단이 고지를 떠날 때 석별의 정 금할길 없어 서로 뜨겁게 포옹하며 두나라 군대들이 다진 결의는 하나였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공동의 위업수행에서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한전호속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나누자고…

떠나는 마음 보내는 마음

이날아침 수도에서 얼마 멀지 않은 교외의 한 비행장은 우리 나라 방문일정을 성과적으로 끝나치고 귀국하는 중국인민해방군가무단을 환송하기 위하여 나온 수천명의 시민들과 예술인들, 인민군군인들로 꽃바다를 이루었다.

《안녕히 계시라!》

《안녕히 가시라!》

석별의 정 가슴마다에 뜨겁게 피어올라 그들의 얼굴마다엔 이슬이 줄지어 내렸다.

친혈육을 두고 떠나는 심정인가 친혈육을 머나먼 길에 떠나보내는 심정인가.

서로 피로써 도와주고 고무해주는 계급적형제들의 리별이기에 이처럼 뜨거운 걱정은 파도처럼 솟구치는것이 아닌가.

떠나는 사람들은 평양의 뜨거운 마음을 안고가기에, 보내는 사람들은 베이징의 뜨거운 마음을 안았기에 서로 포옹하고 속삭이는 말은 길지 않았어도 친선의 년대기에 또하나의 영원불멸할 기념비를 새겨놓는것이 아니나!

돌이켜보면 30여년전 불비 쏟아지는 전호속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나누던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보낼 때 우리 얼마나 서운하였던가!

벽돌 한장 성한것 없는 재더미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후복구건설을 해야 했던 그 시절…

기총탄과 파편자욱이 승승한 렬차로 조국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보내야 했으니…

그것이 못내 가슴에 걸려 아직도 내려가지 않는것이 우리 인민의 심정이다.

하기에 그들의 후대들을 떠나보내는 이 시각. 우리의 성의를 다하여도 어텐가 부족한것과 같고 마음은 자꾸만 허전해지는것을 어쩔수 없다.

《안녕히 계시라!》

《안녕히 가시라!》

떠나는 마음. 보내는 마음… 마음은 뜨겁게 하나로 합쳐져 친선의 무지개다리는 저 하늘가에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나니,

안녕히 가시라, 영원히 잊을수 없는 형제들이여.

그대들의 선렬들의 피가 스며있는 이 땅우에 떨기떨기 만발하게 피워놓은 친선의 화원은 이 세상만방에 더욱 짙은 향기를 뿜어올릴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뜨거운 배려를 안고 베이징행 특별비행기는 기세찬 동음을 울리며 리륙하였다.

비행기는 아득히 멀리 사라졌어도 그들의 노래소리는 귀가에 쟁쟁하고 두고간 그들의 마음은 우리의 가슴속에 뜨겁게 뜨겁게 안겨온다.

연연 수천리길엔 뿌려진 조종친선의 이야기는 사회주의건설장과 천리방선에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거니…

피로써 맺어진 전통적인 조종친선은 압록강의 흐름과도 같이 영원하리라.

아 들

황승명

내 집 따뜻한 아래목에서
눈을 떴구나
소용돌이치는 압록강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어선 아이야

입술을 대이니
《마마》를 부르며
반기는 얼굴에
홍조가 어린다

말씨가 다르다고
낮설어 말아다오
안아주면 좋으랴
품어주면 좋으랴
어머니처럼

아직은 철부지여서
다는 모를수 있으리
어찌하여 나이도 이름도 모르는
너의 소생에

우리가 울고 웃는지

마당가에서 뛰노는
내 아들과 무엇이 다르랴
불타는 거리에서 엄마를 부를 때
나를 품에 안아주던
지원군병사를 못잊는 이 마음

시련의 고개길에서
전투의 불길속에서
마음도 뜨락도
우리는 하나로 이어놓은 사이

중국을 위하는 우리의 마음
누구나 박재근이란다
조선을 위하는 중국의 마음
누구나 라성교란다

아, 중국의 아이야
나의 아들이...

압록강반에 서서

로승모

두 나라의 정을 담아시고 흐르느냐
두 나라의 의리를 노래하며 흐르느냐
철썩이는 물결소리
압록의 기슭을 나는 걷는다

배고동소리 정겹게 울려오고
형제의 나라 전우들을 그리워하는 마음...
조선의 옛병사가
물결너머 그 이름들을 불러본다

두 기슭의 아름다운 물그림자도
불속에서 합쳐지며 떨어질줄 모르는가
준엄한 시절 우리 서로 그러보던
전승의 밤거리 그 불빛이
저렇게 별처럼 흐르는 장강!

미제의 줄폭탄이 강심에 터질 때
피를 나눈 조선을 도와주자고
노도를 헤가르며 건너온 그대들
형제들을 맞은 기슭도 예가 아니냐

오, 물소리도 송엄히 노래하는가
아버이수령님
형제들과 어깨걸고 일제를 치시려
건너가신 장강력사의 지점도 있거니

두 나라의 정이 시작되고
형제의 의리가 뜨겁게 불타던곳
이 강이 흘러 서로 못잊고
이 강이 굽이쳐 더더욱 미더워지는구나

부르며 대답하며 울리는 메아리
건설의 숨결 높은 장강이여
그 기슭을 지켜보고 그대들 즐거우리

오, 영원할 형제의 정을 담아
변치않을 두 나라의 믿음을 지녀
네 흐름은 몇만리
네 흐름은 몇십만리
끝없는 기슭을 나는 걷는다

우리 당비서

박희구

푸른 산기슭
창밖은 선광장에 가도
불빛 흐르는 갱도길을 걸어도
그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어라

광부들과 다름없이
수수한 작업복차림으로
간데라불빛을 앞세우고
마주 걸어오는 사람

바람이 흐르는 배관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그 불빛
배관공 친구인줄 알고
어깨를 툭 쳤더니
소탈하게 웃는
그가 바로 우리 당비서더라

착암기를 잡고
그와 나란히 암벽을 밀어가면
주고받는 말
친형제처럼 다정하고
갱식당에 들리면
구미마저 헤아려주는 그 심정
어머니처럼 살뜰하여라

막장의 한끝에
우리 있어도
알수 있어라
어깨너머 비치오는
그 불빛을 보아도
그 발자국소리만 들어도

아, 천길땅속에 묻힌 광석도
광부들의 가슴속에서 먼저 보며
우리 품은 생각과 결심도
마음의 보석처럼
자욱자욱 빛내여주는 우리 당비서

채광장의 광석무지우에 모여앉으면
그도 우리 세포의 당원인듯

막장이 끓어야
선광장이 만부하를 걸고
온 나라가 끓는다고
가슴가슴 뜨겁게 올려주는 그 목소리

석수가 터져나올 때
남먼저 뛰어들어 몸을 내대던
그 심장의 불길로
불을 뿜으며 발파소리 높이
지심천리 돌격하는 막장
노래속에 웃음속에 쏟아지는 석탄폭포
땅우로 번쩍이며 흘러간다

거세찬 그 흐름
끝없는 충성의 격류우에
뜨거운 눈길을 얹으며
그 불빛을 실으며
안전모밑에 조용히 물결치는 미소

굴길마다
막장마다
당의 숨결과 활력을 뜨거이 부어주며
아, 들끓는 온 광산울
당중앙과 하나의 피줄로 뒤희게 하는
우리 당비서

어버이수령님 우러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들 우러러
기쁨드리는
막장의 마음
탄부의 영예
온 조국땅우엔 나래치게 하거니

태양을 따르는
충성의 궤도우에
지하의 별무리 이끌어세워주는
우리 당비서의 그 마음 그 불빛
아, 《군당책임비서》 차석빈의 모습으로
언제나 우리 앞을 걸어가고있어라!

해빛넘치는 이길에

장호건

아침마다
정든 집 층계를 내려
늘 걷는 출근길이건만
어찌하여 내 마음
이리도 부풀어오르는것인가
푸른 잎 설레이는 가로수
키높이 자란 이 길에
내 로동의 첫자욱이 어려있고
하늘가에 열린 창가
저 층높은 거리의 집들에도
내 흘린 땀이 깃들어선가

이 길을 걸으며
애뜻한 사랑의 속삭임보다
흘리는 땀이 더 소중함을 알았노라
천만사람 일하러 가는 이 길에
비울수 없는 한자리를 차지한것이
더없는 행복임을 가슴에 새겼노라

끝없이 피어나는 꿈을 안고
내 발자국 가장 많이 찍힌곳도 이 길이고
어머니조국을 섬기며
언제나 바쁜걸음 옮긴곳도 이 길이니
이 길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은 무엇이었으랴

정녕 이 출근길이 없었더라면
내 보람찬 로동일들을 거쳐
당원증을 수여받던 구역당회의실
목메여 흐느끼던 그 걱정도
자고깨면 더하여지는 생활의 환희도
내겐 없었으리라

그러기에
달빛 파도에 부서지는 바다가
휴양소의 포근한 침대우에서조차
대 못견디게 그리워
마음속으로 걷고 또 걸어보지 않았던가

이 길이 있어
별무리 웃는 저녁마다
어린것들 기다리는 불밝은 내 집에
환한 얼굴로 선뜻 들어설수 있는

그 높은 의무와 책임감을 다할수 있고

이 길이 있어
내 아침마다 만나는
저 웃음많은 방직공처녀들과도
저 머리흰 학자와도 배우와도
다정히 눈인사를 나누며
더 큰 위훈을 속다짐할수 있나니

조국의 력사에
또 하나 주춧돌로 피여질 이 하루
한번 지나면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이기에
이 아침 출근길은
걸을수록 생각도 깊어지는
내 삶의 귀중한 한구간

비가 내린들 어떠랴
눈이 내린들 어떠랴
날에 날마다 더 아름다와지고
더 풍성해지는
내 사는 내 거리의 새 모습에 가슴설레며
늘 초행길을 걷는것만 같거니

우리 수령님
한평생 인민 위해 이어가시는
그 사랑의 새벽길에서 시작되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그 락원의 상상봉으로
빛나게 눈부시게 뻗어오른 길이어!

나에게 그 무엇을 준대도
이 길을 내놓지 않으리
화려한 주단길이 내 앞에 펼쳐져도
이 길을 저버리지 않으리
이 길에 나의 량심, 나의 리상,
당을 따르는 나의 신념이 비껴왔기에...

아, 수령님의 뜻을 이 땅우에 꽃피우며
천만의 발걸음이
대하처럼 굽이치는 출근길
내 천년의 미래, 만년의 행복을 안고
걸어가리, 영원히
당의 해빛 눈부신 이 길을 따라!

발을 맞추자

신리섭

나는 며칠전에 생활체험을 위해 이곳
간석지건설자들을 찾아 대연도에 건너왔다.

앞에는 갈매기가 날아에는 수평선이, 뒤에는
떠나온 물이 까마득히 보이는 10여리 지평선이
펼쳐진 이 섬등성이에 나는 처녀돌격대원
김혜선동무와 나란히 앉았다.

내가 이 간석지에 와서 처음 만났던 한 일군은
이렇게 말했다.

《저 대연도에 건너가보십시오. 거기 동무들이
하루에 제방을 70미터까지
내밀고있답니다. ...돌격대원 김혜선동무를
만나보면 좋은 이야기를 들을수 있을것입니다.》

나는 간석지생활을 어느정도 료해하는 과정에
제방을 하루에 70미터씩 막는다는것은 참으로
《80년대속도》 창조의 빛나는 결실이라는것을
알았다. 내가 알고싶은것은 바로 그 비결이었다.

혜선동무는 까만 속눈썹을 살쾅이 내리깔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속도에 대해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남들처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있었어요. 더구나
속도와 나에 대해서는 더 말할것도 없고요.》

이때 맞은편 소연도에서 지심을 뒤흔들며
발파소리가 일어났다. 불그스레한 흙먼지가
타래쳐올랐다. 발파의 여운이 서서히 찾아들자
건설장은 또다시 끓어번지기 시작했다.
굴착기들이 세찬 동음을 울리며 《자주》
호차동차에 흙밥을 실어준다. 파도를 가르며
아득히 뻗어간 제방우로 자동차들이 렬을 지어
달리기 시작한다. 불도젤들이 용을 쓰며 돌을
밀어 굴착기밥을 마련해준다. 저기 제방의
한끝에는 《모두다 <80년대속도>창조예로!》라고
붉은색바탕에 흰 유화구로 쓴 힘찬
횡단구호가건설자들을 창조의 위훈으로
부르고있다.

《우리 소대장은 저의 오빠랍니다.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전원회의결정을 받들고
여기로 왔답니다. 자동화된 정든 일터와
사랑하는 부모들의 품을 떠나올 때 우리한테는
소박하면서도 큰 포부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버이수령님께서 구상하시는 간석지건설장에서
당중앙이 제시한 <80년대속도>창조의 선구자가
되자는것이였어요. 선구자라는 칭호는
빛나는것이였지만 그 값진, 영예에 도달하기에는
어려운 고비도 넘겨야 하는가봐요. 지내고보면
그 비결이란 명백한것인데도 말이에요.》

그는 아득히 뻗어간 제방에 생각많은 눈길을
보내며 잠시 말을 끊었다.

물이 켜 《욕심나는 땅》, 수천정보의 간석지가
한낮의 해별에 기름진 몸뚱이를 펼치고 한가로이
누워있다. 종도요새들이 먹이를 찾아 무리를
지어 그우를 날아예고있다. 이제 2~3년후이면
바다도 록지도 아닌 저 땅에 황금벼나락이
물결칠 생각을 하니 가슴은 한량없이
부풀어오르기만 한다.

혜선동무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혹시
그가 말한 비결이란게 내가 그토록 모색해오는
《80년대속도》 창조의 비결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말없는 기대속에서 나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지난해 봄 어느날이였다.

《소대 모였!》

아침식사를 하고 전투장으로 나가기 위하여
소대장의 기백에 넘친 구령소리가 울리자 마치도
비상소집구령을 받은 정규화된 군인들처럼
돌격대원들은 작업준비를 갖추고 호실앞에
4렬중대로 모여섰다. 소대장은 인원점검을 했다.
한명이 빠졌다. 그가 누구인가를 알아보기전에
저쪽 녀자호실에서 김혜선동무가 달려나왔다.

소대장은 그가 대오에 들어서려고 하자
멈춰세웠다. 그는 혜선이가 3분이나
늦어졌기때문에 소대가 중대가, 온 사업소가
3분이나 늦어졌다고 돌격대원의 자격이 없다고
무자비하게 추궁했다. 소대장은 그가 자기의
녀동생이라는것도, 또 그가 늦어진 리유에
대하여도 구태여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실로
소대의 움직임과 개인의 발걸음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보지 않는 칼날같은 지휘관이였다.

대오앞에서, 자기가 가장 믿고 따르는
오빠한테서 이런 가차없는 욕을 먹은 혜선은
눈물이 솟구치는것을 이를 사려물며 참았다.
그는 오빠에게 원망이 갔다.

시간적개념으로 볼 때 3분이란 너무나 짧고
극히 작은 수자에 불과한것이다.

그날 저녁, 식사도 끝나고 소대작업총화도
끝난뒤 제방에 부딪치는 파도소리를 들으며
오누이는 섬등성이에 앉았다.

이번 역시 오빠는 동생이 아침에 무엇때문에
늦었는가를 묻지 않았다.

《...혜선아, 우린 공장을 떠나올 때
<80년대속도>창조의 선구자가 되자고 약속을

하지 않았더니. 그런데 너는 오늘 그 속도를 지연시켰다.

물론 힘이 들지. 그럴수록 대오에서 떨어지지 말고 발을 맞추어야 한다. 개인은 자기의 대오에 그 대오는 당의 구령에 발을 맞추는 때 전국이 하나의 구령에 따라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수 있는것이다. <80년대속도>도 그럴 때만이 창조되는것이 아니겠니...》

조용하면서도 절절한 소대장, 오빠의 말은 혜선동무의 가슴을 쳤다.

《전 그제야 비로소 이 시대가 창조하는 <80년대속도>와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당의 구령과 지시에 발을 맞추는 때 비로소 새로운 속도가 창조될수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어요. 그때로부터 우리 청년돌격대원들은 일초도 드림없이, 아니, 일초라도 더 앞당겨나가기위해 힘썼을뿐이에요.》

혜선동무는 갓 돌아난 야들야들한 풀잎을 뜯어 손톱여물을 썰면서 이렇게 말했다.

순간 나의 가슴은 흥분으로 하여 뻐개질듯했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한낱 신화처럼 생각되던 너무나도 빠른 속도, 한낱 옛말에서만 들어오던 너장수와의 같이 대오의 앞장에 서서 바다를 메우고 산을 허물던 너성돌격대원 혜선의 참모습, 그의 뜨거운 심장이 눈앞에 확연히 나타났다.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 인간들이 이룩하고있는 《80년대속도》창조의 비결인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당에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수립되었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거기동무들이 하루에 제방을 70미터까지 내밀고있답니다.》하고 처음으로 만났던 이곳 사업소 한 일군의 목소리가 궁지높이 울리던것이 바로 70미터씩 뻗어간 제방의 길이를 두고 한계 아니라 이런 인간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생각되었었다.

자연과의 싸움, 더우기 날바다를 가로막아 조국의 대지를 넓혀가는 투쟁은 때로는 상상조차 할수없을만큼 가혹하기도 하다. 그 싸움은 미래에 대한 확신과 강요한 의지를 요구한다. 바로 이런 신념, 이런 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아니라면 바다를 정복할 엄두도 내지 못할것이다. 오직 당과 같이 숨쉬며 움직이며 당의 구령과 지시에 한사람같이 발을 맞추어나가는 혜선동무와 같은 주체시대의 인간들만이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수 있는것이다.

하루에 날바다를 70미터까지 내막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는것도, 물살 센 개고막이전투를 단 세시간에 끝내는 성과들도, 해감탕이 밀려드는 속에서 수문건설을 예정기일보다 훨씬 앞당겨 끝낼수 있는것도 바로 이런 비결에 의하여 창조된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이 간석지건설장에 와서 가슴벅차도록 보고 느낀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더 려거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돌격대원 김혜선동무의 이야기가 그 속도창조의 비결을 명백히 밝혀준이상 그것은 한갓 설명에 불과한것이기때문이다.

발을 맞추자!

이 말은 나의 가슴속에 커다란 견인력을 가지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케 한다.

속도-이것은 시간이 얼마나 빠르냐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일것이다. 따라서 그 속도는 각종 계기와 기구들에 의하여 측정된다. 하지만 그 어떤 고도로 발전된 전자기구로써도 측정할수 없는것이 오늘 우리 시대가 창조하고있는 《80년대속도》가 아니겠는가!

왜냐 하면 오늘 우리가 창조해가는 《80년대속도》는 단순한 시간적개념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위훈의 창조과정이며 우리 당의 전투력의 기준이기때문이다.

세상사람들은 《평양속도》가 창조되어 하루밤만 자고나면 혁명의 수도 한복판에 고층건물이 우뚝우뚝 일어서는것을 보고 《비날론속도》가 창조되어 무연한 벌판에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이 일떠서는것을 보고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된 우리 당에 대해,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상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했었다.

하거늘 오늘 주체시대의 새로운 속도, 《80년대속도》는 또한 얼마나 세인을 경탄케 할것인가!

사람들이여, 당중앙의 구령과 지시에 발을 맞추자!

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신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위력을 온 세상에 시위할 《80년대속도》를 창조해가자!

이웃집

김정철

강건너 흥겨운 웃음소리는
이웃집 트랙에서 들려오는 소리냐
강너머 그윽한 꽃향기는
이웃집 꽃밭에서 풍겨오는 향기냐

압록강가
나란히 마주앉은 두 마을
동지, 내 나직이 불러도
통즈, 저 집문이 활짝 열릴 듯

아침마다 손저으며
즐거운 마음 일터로 가고
맑은 물우에
행복의 파문을 마주 그리며
너인들 빨래도 행구어라

압록강가
나란히 마주앉은 두 마을
뛰노는 아이들 잠시 안보여도
소리쳐 묻고싶고
친선의 새 노래가 나와도

함께 부르고싶은 저 사람들
저 트랙엔 찍혀있어라
항일선렬의 피어린 자욱
내 트랙에도 찍혀있어라
지원군용사의 의로운 자욱
오늘도 나누는 서로의 인사
이웃집에 일이 생기면
어느때고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한줄기 강을 사이에 두고
예로부터 이웃으로 살아서이라
피를 나눈 한 운명으로
마음의 처마를 마주한 이웃집

아, 이웃집
날마다 마주보는 저 집에서
나는 느껴라
형제의 나라 중국이여
그대를 우리의 이웃집으로

가사

철길원 처녀

류민호

기적소리 울리며 푸른 산 굽이도니
철길원 처녀의 신호등이 반겨주네
언제나 웃음속에 밝은 길 열어주는
가슴속의 그 마음 뜨겁게 안겨오네
깊은 산 험한 길에 밤안개를 헤칠 때에도
철길은 넘려 말라 푸른 등이 웃어주네

비오나 눈내리나 변함없는 그 불빛
조국땅 누벼가는 이 마음 비쳐주네
산속의 철길을 홀로 지켜섰어도
온 나라 대건설 한복판에 서있네
속도전 열풍속에 수송혁명 한길에
언제나 앞장에서 우리 함께 달려가네

고성어머니

최봉무

아무리 바쁘다 해도 이 땅에 생을 둔 사람이라면 지도를 펼치고 조국의 모습을 눈여겨보시라.

그러면 원한의 분계선은 더할나위 없고 한 강토에서 하나의 군이 둘로 갈리운 땅이 가슴을 허빌것이다. 우리들중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 고살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부끄러워 말고 이제라도 군사분계선 동쪽 맨끝을 보시라. 거기에 꼭같은 이름으로 불리우는 두개의 《고성군》이 있다.

나는 오늘 한 군에서 벌어진 두 이야기를 가지고 독자들과 마주앉으려 한다.

얼마전 나는 유럽 어느 나라에서 있는 국제권투경기에 갔던 우리 나라 선수들의 귀국을 취재하기 위하여 비행장에 나간적이 있다.

비행장은 관계부문 일군들과 환영나온 시내 근로자들로 꽃바다, 꽃물결을 이루고있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선수들은 가슴에 금메달을 달고 번쩍이며 공화국기발을 높이 들어 답례하였다. 그들의 림름한 얼굴마다에 공화국 체육인의 긍지와 자부심이 활짝 피여났었다.

나는 여러 측면에서 사진기를 대고 촬영을 하다가 한 청년이 평범한 어머니와 포옹하는 광경을 목격하였다.

기자적측감이라 할가 나는 재빨리 그리로 렌즈를 돌릴수 있었다. 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샤타를 누르고 어머니에게 다가가 그 청년이 누군가고 물었다.

《내 아들이외다. 나라의 명예를 빛내이고 오는 아들을 마중나왔수다.》

한없는 자량이 어린 어머니의 말이다.

나는 사연이 있음직한 모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 했으나 너무도 봄비는 사람들속에서 소원을 성취할수 없었다.

아쉬운 마음을 금할수 없어 적지 않은 시간을 들였으나 어머니마저 군중의 흐름속에 섞이여 두사람을 다 놓치고 말았다.

하는수 없이 나는 버스에 올라 돌아오면서 환영나갔던듯한 한 체육인청년에게 어머니와 아들의 모상을 상기시키며 물었다.

그러자 청년은 《오, 고성어머니요.》라고 친근하게 환성을 올리더니 그 어머니는 강원도 고성군에서 농사를 짓다가 조국의 이름을 떨치고있는 아들을 따라 수도로 올라왔다는것이였다.

고성어머니! 그 순간 나는 그 자리에 굳어져버렸다. 얼마전 신문에서 본 기막힌 사연이 가슴을 찔기때문이었다.

나는 여기에 그 원문을 그대로 옮긴다.

《남조선방송보도에 의하면 미국살인악당들과 전두환괴뢰들에 의하여 잔인하게 살해된 남조선 권투선수 김득구(23세)의 어머니가 아들을 잃은 슬픔에 모태기던 끝에 지난 29일 저주로운 남조선사회를 등지고말았다.

김득구의 어머니 양선녀는 이날 남조선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에 있는 자기집에서 농약을 마신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

알려진바와 같이 김득구청년은 지난해 11월14일 미국의 가스베스에서 권투경기를 하다가 불리한 형세에 빠진 미국선수 만시니놈이 경기규정을 위반하고 뒤통수를 치는바람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후 미국살인귀들과 전두환매국노들의 치떨리는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겼다.

그가 병원에 입원하자 미국놈들과 남조선괴뢰들은 김득구의 어머니를 미국에 끌고가 아들의 심장과 콩팥을 <미국국민에게 기증>할것을 집요하게 강요하면서 갖은 위협과 회유술책을 다 쓰는 한편 살아숨쉬는 김득구청년에게 달려들어 그의 장기를 도려내어 죽이는 천인공노할 범죄적만행을 감행하였다...》

남조선의 한 방송도 김득구의 어머니가 자식의 한을 어떻게 풀어줄것인가에 대해 고심해왔다고 전하였다.

김득구어머니의 음독자살은 그가 자식의 심장과 콩팥을 《미국국민에게 기증》했다고 떠들던 전두환악도의 궤변이 황당한 거짓임을 실증해주고있다.

상전을 위해서라면 동족의 목숨도 서슴없이 섬겨바치는 전두환살인악당들은 저주받을 만고역적으로서 온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못할것이다.

나는 하나의 혈통을 이은 한 민족으로 피가 끓어오르고 가슴이 찢어지는것 같아 남모르게 모지름을 썼다.

이 아픔으로 하여 아까 그 고성어머니와 그의 아들을 만나보고싶은 충격은 더욱 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제도하에서 인민들은 당과 국가를 떠나서는 한시도 살아나갈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입고 먹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모든 생활을 전적으로 당과 국가에 의탁하고있습니다.》

이튿날 나는 뻘스칸에서 만났던 체육인청년이 알려준 주소를 들고 권투선수청년의 집을 찾았다.

행복한 가정은 나를 황홀케 했다. 온수온돌의 화려한 방안마다에는 다심한 어머니의 손길처럼 당에서 돌려준 온갖 배려가 뜨겁게 스며있었다.

일요일이어서 권투선수아들은 없었다. 동무들과 함께 만경대유치장으로 놀러 갔던것이다. 아쉬움을 금할수 없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있으니 나의 취재에서는 큰 지장이 없었다.

어머니는 인자한 얼굴에 너그러운 미소를 담으며 나에게 깨끗한 밤빛뚜정의 사진첩을 꺼내주고 마주 앉았다.

그리고 텔레비존의 음향을 낮추어놓는것이였다.

나는 취재를 시작하면서 천천히 사진첩을 펼치였다.

첫장에는 유럽의 어느 나라 람홍색공화국기발을 높이 올리고 가슴에 금메달을 번쩍이며 눈굽을 적시는 권투선수의 모습이 찍힌 화보장이 붙어있었다. 그는 이 어머니의 아들이였다.

사진에 눈길을 주며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이야기하는 고성어머니의 목소리는 무한한 행복으로 젖어있었다.

《세상에 자기 아들을 권투선수를 시킬 어머니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육인자식을 둔 우리 어머니들이 오늘은 왜 그리도 행복에 겨워 사는지 입니까?!》

어머니의 말에는 깊은 뜻이 있었다. 어머니 자신은 아들을 권투선수로 둔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긴다는것이였다. 그것은 체육인의 존재가치가 그 제도자체에 있기때문이다.

어머니는 이 진리를 실지 자기 생활체험을 통하여 터득하였다는것이였다.

몇해전에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한 산촌마을소년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에게 공화국의 체육인으로 발전할 길을 활짝 열어주었다.

그 이듬해에는 그의 어머니를 평양으로 모셔오고 생활의 사소한 불편마저 느낄세라 나라에서 책임지고 극진히 보살펴주었고 그 혜택은 나날이 더 커가고있다.

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취재수첩에 가득 채워넣느라고 시간가는줄 모르고있었다.

바로 이때 밖에서 초인종 누르는 소리가 복도에서 방안으로 귀따갑게 울려와었다.

나는 어머니가 일어날가봐 먼저 일어나 출입문을 열었다. 문밖에 귀밑머리가 희숙희숙한 학자풍의 아바이와 간편한 플색트렁크를 든 급살한 처녀가 서있었다.

《어떻게 오셨는가요?》

나는 의아한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의대병원에서 왔습니다. 아드님이 국제경기에 갔다가 돌아왔다지요?》

나는 영문을 몰라 저도 손님이라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사실을 알리였다.

어머니는 이미 구면이였었다. 반갑게 맞아 그들을 방안으로 안내하는것이였다.

《기자동무, 애가 국제경기에 갔다오면 이렇게 꼭꼭 먼저 알고 검진을 찾아오우다!》

어머니의 이 말에 나는 코마루가 쨍하고 눈굽이 확 더워올랐다.

순간 나의눈앞에는 남조선 고성어머니의 아들 김득구권투선수가 미제살인마들과 전두환매국역도에 의하여 심장과 콩팥을 뜯기우고 그의 어머니가 분통이 터져 음독자살한 참상이 떠오르며 눈물이 펄 돌았다.

아, 너무도 판이한 현상이다. 원한의 분계선이 가로질러간 지척에서 두 고성어머니들이 누리는 행복과 당하는 불행의 차이가 이렇게 하늘과 땅의 거리로 멀어져야 되겠는가?

피를 나눈 한 민족이 락원과 암흑의 언덕에 마주서서 무엇때문에 이처럼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살아야 한단말인가?! 무엇때문에?...

원통한 일이다. 민족의 비극이다.

나는 가슴이 터질듯한 걱정을 누를길 없어 슬그머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어쩐지 꼭 다문 아래턱이 자꾸 떨리고 앞이 뿌옇왔다.

평양체육관, 빙상관, 창광원이 요란히 솟은 보통강기슭의 정다운 유보도에는 화려한 옷차림들이 그대로 꽃물결이 되어 흘렀다. 체육선수용가방을 멘 자식을 거느린 어머니들의 행복한 모습은 류달리 가슴뜨겁게 안겨왔다.

나는 두주먹을 부르쥐고 마음속의 천둥소리로 겨레의 념원을 담아 삼천리가 쨍 울리도록 부르짖었다.

술기롭고 용감한 남북의 권투선수들이여, 신성한 그 무쇠주먹으로 미제와 만고역적 전두환괴뢰도당의 대갈통을 박살내고 이 땅우에 하나의 조선이 살게 하자! 하나의 고성군에 모든 고성어머니가 하나처럼 행복하게 살아계시게 하자!

그날은... 기다리는 그날은 멀지 않아 반드시 오고야말리라.

판문점

신병강

여기서 끝장났다

50년대 미제의 야망이...

판문점 판문점

조국땅 너의 지점은 작아도

온 세상이 다 아는 력사의 땅

어제도 끌려나왔다 미제!

오늘도 끌려나왔다 미제!

흰것도 검다고 검은것도 희다고

흑백을 전도하던 파렴치한 미제

단호한 우리의 징벌앞에

네놈들은 또 머리를 수그렸다

오 두고두고 대를 두고

미제의 죄행을 때리라고

이 작은 땅이 생겨났는가

네놈들의 면상맞는 꼴이 하도 통쾌해

서둘러 불꽃을 터뜨리는

저 무수한 사진기의 섬광을 보라!

이 땅이 어떤 땅이라구 감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구 감히?!

천맹과니 네놈들의 눈깔이 멀었지

노랑머리 네놈들이 오산이나 했지

오, 판문점 판문점!

온 아메리카땅을 여기에 매달아놓고

세계인류의 면전에서

어제도 치고 오늘도 치는

도고한 조선의 존엄이여!

추상같은 조선의 기상이여!

보느냐, 미제야!

네놈들의 정수리에 내려쬰히는 비수인가

강대한 공업강국의 위용떨치는 저 번쩍임-

듣느냐, 미제야!

이 땅에 찾아온 세계 관광객들이

네놈들을 향해 웨치는 저 분노의 함성을...

오, 판문점 판문점!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세계인류의 발걸음으로 다져지고

미제의 목덜미를 즈려밟은

조선의 존엄으로 빛나는 땅이여

80년대 조선은 여기서 총결산하리라

20세기 미제가 감행한

지구상의 그 모든 범죄를!...